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연구원: 조연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SFWF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 Contents

## I 서론 \_ 0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2. 연구범위와 방법 .....	7
1) 연구의 내용 .....	7
2) 연구의 방법 .....	8
3. 단계별 추진내용 .....	12

## II 선행연구 검토 및

### 마을공동체의 성별 관련성 논의 \_ 13

1.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존 논의와 한계 .....	15
2. 마을공동체 사업과 성인지적 관점 .....	19
1) 마을공동체의 젠더 관점 필요성 .....	19
2) 마을공동체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기본 개념들 .....	21
3.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젠더 이슈 .....	24
1) 성 평등 목표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배제 .....	25
2) 젠더화된 고용과 자원활동 구조 .....	26

## Contents

3)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과소대표성 .....	28
4) 이사회/위원회 운영 등의 남성중심문화 .....	29
5) 마을의 돌봄공동체 사업에 반영된 성별고정관념 .....	30
4. 해외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젠더프로그램 추진사례 .....	32
1) 아일랜드 북서부주 도니골 지역개발위원회의 젠더초점집단 .....	32
2) 근로자 교육연합과 권력주변의 여성 프로그램 (북 아일랜드) .....	34
3) 아일랜드의 지역개발관리 회사 .....	35
4) 유럽의 반빈곤 네트워크 European Anti-Poverty Network(EAPN) ·	38
5) 사례를 통한 시사점 .....	39

### Ⅲ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및

#### 영역별 현황분석 \_ 41

1. 사업개요 .....	43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	45
1) 마을주민, 공동체, 소모임 활성화 .....	47
2) 마을활동가 양성: 청년, 여성, 은퇴자 .....	48
3)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	49
4) 주민이 주도, 행정은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	50
3. 영역별 사업현황의 성별 특성 .....	51
1) 창의적 활동가 양성사업: ‘마을아카데미’ .....	55
2) 복지(돌봄):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	58
3) 마을경제: 마을기업 활성화 .....	63
4) 주민참여: 주민제안사업, 우리마을 프로젝트 .....	67

4. 사업영역별 추진단계의 성별고려에 대한 시사점 .....	70
1) 영역별 사업기획 및 선정단계의 성별 고려 .....	71
2)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 .....	72
3)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 .....	73

#### **IV**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및 참여자 조사결과 분석 \_ 75

1. 조사개요 .....	77
1) 조사 목적 .....	77
2) 조사설계 .....	78
3)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81
2. 활동가 조사결과 분석 .....	86
1) 마을활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반영에 대한 성별인식 .....	86
2) 마을활동가의 활동 실태 .....	92
3) 마을활동가의 역량 및 성별 특성 .....	96
4)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에 대한 성별 분석 .....	103
3. 사업참여자 조사결과분석 .....	113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동기와 목적 .....	113
2) 사업참여자의 마을활동 참여 실태 .....	116
3) 사업 특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21
4. 일반시민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27

- 1)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_만족도 ..... 127
-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의향 ..... 128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 ..... 131
- 5. 조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 136
  - 1) 성 평등 가치 강조 필요성 ..... 136
  - 2) 마을지역에서 권력적 요소의 성별 편중 ..... 137
  - 3) 활동가의 성별 활동실태 및 역량의 특성 ..... 138
  - 4) 활동가의 인력양성 체계에 대한 만족도 ..... 139
  - 5)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율성에 대한 성별 인식 ..... 139
  - 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성과 다양성 제고 방안 ..... 140

**V**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_ 141

- 1.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 143
  - 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구성과 변화 ..... 143
  - 2)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설정 ..... 144
- 2. 사업 기반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 149
  - 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149
  - 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 154
  - 3)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 ..... 156
- 3.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 170
  - 1) 마을사업의 기획 및 집행단계 ..... 170
  - 2) 사업평가 및 개선단계 ..... 176

4. 요약과 시사점 ..... 183  
 1) 정책추진 기반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시사점 ..... 183  
 2) 추진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시사점 ..... 184

**VI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_ 187**

1. 마을공동체 추진기반 개선방안 ..... 189  
 1) 성평등 가치 및 균형참여를 명시한 조례정비 ..... 189  
 2) 성별, 연령별 등 주민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보완 방안 ..... 191  
 3) 추진지원체계 개선방안 ..... 193  
 2.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별 성별 특성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197  
 1) 마을활동가의 성별 특성에 따른 개선방안 ..... 197  
 2) 사업 참여자 및 일반시민의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반영방안 .... 199  
 3) 일반시민의 성별 수요 및 참여확보 방안 ..... 200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도적 개선방안 ..... 200  
 1) 심사·사업선정 심의기준 및 평가과정에 성인지 관점 반영 ..... 200  
 2) 중간지원인력의 성인지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 201  
 3) 성별 맞춤형 행정지원의 특성화 ..... 202

**참고문헌 \_ 204**

**부 록 \_ 209**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설문지 ..... 21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조사 설문지 ..... 223  
 서울시 마을(지역)주민 조사 설문지 ..... 230

## 표 목차

표 I-1	마을공동체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추진내용 요약	9
표 I-2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참여자 조사설계	11
표 II-1	마을공동체 구성요소별 관련 연구 요약	18
표 III-1	서울시 지역별 마을공동체 현황(2012년 현황)	47
표 III-2	전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현황	49
표 III-3	'12년 및 '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분야 및 예산현황	52
표 III-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	54
표 III-5	사업분야별 심층적 분석대상 사업	55
표 III-6	마을활동가 양성계획	56
표 III-7	'12, '13년 마을활동가 양성 실적	56
표 III-8	인재개발원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57
표 III-9	'12년 부모커뮤니티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59
표 III-10	2012년도 부모커뮤니티 선정단체의 구성특성	59
표 III-11	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현황	61
표 III-12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62
표 III-13	돌봄공동체 사업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62
표 III-14	서울시마을공동체기업 지원체계	64
표 III-15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등록 및 지원프로그램 참여 현황	64
표 III-16	'13년 마을공동체 기업의 선정현황	65
표 III-17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업체의 업종별, 성별 현황	67
표 III-18	'13년도 사업유형에 따른 주민제안사업 선정현황	68
표 III-19	자치구별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 선정현황	69
표 III-20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영역별 선정현황	70
표 IV-1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 모집단 규모 및 응답자 율	79
표 IV-2	일반시민 대상 특성별 사례 수 분포	80
표 IV-3	활동가의 자녀연령	82
표 IV-4	마을사업 참여자의 자녀연령	83
표 IV-5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83
표 IV-6	마을주민 응답자 특성	85



표 IV-7	성별 활동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	87
표 IV-8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	88
표 IV-9	공동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89
표 IV-10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가치실현에의 기여 정도에 대한 성별인식	91
표 IV-11	활동가의 주요 활동 분야(중복응답)	92
표 IV-12	성별 마을활동가 활동 경력	93
표 IV-13	성별 마을활동의 참여방법(중복응답)	94
표 IV-14	1일 평균활동시간 및 1주 평균활동일수(성별)	94
표 IV-15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활동시간	95
표 IV-16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1주일 평균 활동일 수	96
표 IV-17	성별 주요 활동시간대	96
표 IV-18	성별 마을활동가의 '역량'에 대한 본인평가	98
표 IV-19	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	99
표 IV-20	마을활동가의 성별 역량(중복응답)	100
표 IV-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성별 만족도	101
표 IV-22	현재 중간인력양성체계에 대한 불만족 이유	101
표 IV-23	성인지 관련 교육에의 참여경험(중복응답)	102
표 IV-24	활동가의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자율성 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104
표 IV-25	활동가의 가치와 비전의 반영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105
표 IV-26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실현의 어려운 이유	105
표 IV-27	마을활동가의 성별 주요활동 분야(중복응답)	106
표 IV-28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마을이슈 및 사업분야	107
표 IV-29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필요한 연령층 순위와 그 이유	108
표 IV-30	통합성을 위해 각 항목의 시급성에 대한 성별 인식	110
표 IV-31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110
표 IV-32	제도적 개선필요성에 대한 성별 인식정도	111
표 IV-33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112
표 IV-34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동기	113
표 IV-35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목적	114
표 IV-36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 반영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115
표 IV-37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반영 안된 이유에 대한 자유의견	116
표 IV-38	응답자의 성별 사업참여 분야	116

## Table Contents

표 IV-39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기간	117
표 IV-40	평균 마을활동참여 시간 및 일수	117
표 IV-41	성별 1일 평균 참여시간	118
표 IV-42	성별 하루 중 마을활동 참여 시간대	118
표 IV-43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119
표 IV-44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가 겪는 어려움(중복응답)	120
표 IV-45	성별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121
표 IV-46	성별 성인지 의식 교육 관련 경험(중복응답)	122
표 IV-47	성별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123
표 IV-48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125
표 IV-49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지경로 (N=109,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	129
표 IV-50	참여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사업분야(N=102, 참여의향 있는 사람)	131
표 IV-5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도	133
표 IV-52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주체에 대한 성별 인식	133
표 IV-53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	134
표 V-1	성별영향평가 지표 변화단계	144
표 V-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상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지표	146
표 V-3	기반체계 관련 분석평가 항목 및 분석내용	147
표 V-4	마을사업 추진단계별 평가항목과 분석내용	148
표 V-5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제정 및 내용 현황	150
표 V-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선방안	153
표 V-7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영역과 분석지표	156
표 V-8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각종 서식의 정보현황	158
표 V-9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업무분장 및 인원	160
표 V-10	자치구별 주무부서 현황	161
표 V-11	마을지향 행정의 추진방향	162
표 V-1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164
표 V-13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	165
표 V-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주요 안건	167
표 V-15	마을공동체 자원(資源) 현황	168

표 V-16	‘마포여성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자원 현황	169
표 V-17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항목 및 주요 분석내용	170
표 V-18	사업의 이슈발굴 및 기획시 성별관점 고려 여부	171
표 V-19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고려 빈도	172
표 V-20	공동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172
표 V-21	사업기획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 반영하는지 여부	173
표 V-22	성별 참여단체나 모임 참여 비율	174
표 V-23	성별 참여단체(모임)에서의 지위(중복응답)	175
표 V-24	마을활동가의 성별 정보획득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175
표 V-25	성별 정보획득경로	176
표 V-26	활동가 역할에 대한 만족도	177
표 V-27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의 항목별 성별 만족도_기술통계량	177
표 V-28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178
표 V-29	사업수행절차와 과정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178
표 V-30	예산회계 및 정산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179
표 V-31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의 불만족 이유	179
표 V-32	추진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사업영역별 개선필요성	180
표 V-33	성(남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181
표 V-34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에 대한 사업영역별 개선필요성	182
표 V-35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개선필요성에 대한 사업영역별 조사결과	182
표 VI-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	191
표 VI-2	각종 서식의 공통 및 선택정보	194
표 VI-3	마을공동체 활동가 성인지 인식 및 정책교육 과정(예시)	197

## 그림 목차

■ 그림 I-1 ■ 연구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	12
■ 그림 III-1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 .....	45
■ 그림 III-2 ■ 서울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	46
■ 그림 III-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3대과제와 10대 전략 .....	52
■ 그림 IV-1 ■ 현 거주지 거주 기간 .....	127
■ 그림 IV-2 ■ 현 거주지 만족도 .....	128
■ 그림 IV-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인지도 .....	128
■ 그림 IV-4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공감 정도 .....	130
■ 그림 IV-5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	130
■ 그림 IV-6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도 .....	132
■ 그림 IV-7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도 .....	135
■ 그림 V-1 ■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영역 .....	145
■ 그림 V-2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영역과 범위 .....	147
■ 그림 V-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163

## 연구요약

### I 서론

#### □ 연구배경

-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영역이 사업에서 계획, 법령으로까지 확대되었음에도 일반 시민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전히 생소한 정부정책에 불과함. 따라서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주류화 제도를 확산·정착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서울시는 민선5기 후반기 주요정책의 하나로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12. 3.15)하여 매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사업은 생활기반인 '마을'을 정책단위로 하며, 정책대상자와 참여자가 모든 시민이 되며 마을이라는 공간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젠더이슈 발굴과 개선과제는 일반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으므로 성주류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 첫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인 '사회적 연대형성'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성평등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실제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마을생활에서 젠더이슈를 도출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성주류화를 일반시민에게까지 확산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

- 셋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지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II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별 이슈

### □ 선행 연구

-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는 공동체의 발전 및 형성요소를 논의하는 연구가 있음. ‘마을’이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과 달리 현대적 도시공간에서 ‘마을’은 시민과 행정의 관계 속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의 핵심주체에 대한 논의가 주요 중심주체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음. 정규호(2012)는 한국도시공동체의 형성을 ‘사회공간적’ 맥락에 근거를 두고 역동적인 형성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즉, 공동체 참여주체로서 성원의 공동체 형성의 계기에 따라 ‘적응형’ 도시공동체 운동(‘60~70년대), ‘저항형’ 도시공동체 운동(‘80년대), ‘방어형’ 도시공동체운동(‘90년대), ‘창조형’ 도시공동체 운동(‘90년대 후반)으로 정리
- 다음은 ‘주민’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음(김찬동, 2012; 박세훈외 2009; 민현정, 2013 등). 김찬동(2012)은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를 참여 활성화 단계, 공동체성 구비단계, 준주민자치 단계, 준단체자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성공사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강화, 전문성 및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셋째,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요소나 성공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가 있음(김태운·김진영, 2012; 송인하, 2010; 호은지, 2012; 신경희, 2012 등). 김태운·김진영(2012)은 주민참여 활성화의 요소로 경제적 요소, 사회자본적

요소, 조직적 요소로 구분하고 집단 효능감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제주 올레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해외사례에서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지역개발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먼저, 지역개발 정책이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공통된 신념 - ‘바람직성’ 즉, 공동선에 대한 지향 - 은 그 과정에 내재한 구체적인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평등’ 가치를 드러내고 성평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 둘째는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동등기회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점임
  - 셋째는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음. 성평등 달성은 여성에 대한 기회와 참여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파트너십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임. 전략적인 파트너십 방안을 함께 고안하도록 해야 할 것임.

### Ⅲ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생활공간인 ‘마을 속’에서 경쟁과 성장 중심의 가치로 인한 피폐한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은 다음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마을주민, 공동체 소모임 활성화

- 둘째, 마을활동가 양성: 청년, 여성, 은퇴자
- 셋째,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 넷째, 주민이 주도, 행정은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추진기반	추진체계	법·제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주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전과 목표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3대 과제 10대 전략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참여주체	마을활동가 - 마을오지라퍼 - 마을코디네이터		마을넷 - 자치구 단위의 주민모임 - 자발적 네트워크	
	지향과 가치	마을지향 행정		마을경제	
	사업내용	마을사업: - 육아·돌봄, - 마을문화공방 - 마을미디어, 마을축제, 마을학교		- 마을공동체 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협동조합 - 마을뱅크	

┃ 그림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

## IV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 □ 조사개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 과연 어떠한 성별특성이 있는가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음



【 표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참여자 조사설계

구 분	마을활동가	사업영역별 참여자	일반시민
조사 목적	- 마을공동체형성 및 활성화 를 위한 마을리더의 성 별 역량강화 방안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의 성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영역별 성평등 가치 반영 방안 제시	-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여부 -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 한 수요 파악
조사 대상	- 약 100명 내외 - 자치구별 마을넷 대표 및 활동가 10명 내외(보육공 동체 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등)	- 약100명(사업영역별 보 육돌봄, 마을기업, 주민 제안공모사업 및 교육사 업 참여자)	- 총200명 - 성별, 자치구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비례할당
조사 내용	- 일반특성(성별, 연령별, 성평등 가치지향 - 성별 성인지의식 및 성평 등 지향성 -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행 태 성별분석 - 마을시민의 참여유도	- 일반특성(성별, 연령별, 성평등 가치지향) - 성별 성인지의식 및 성평 등 지향성 - 성별 활동실태 및 문제점 도출 - 사업참여 만족도 및 성별 수요조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에 대한 인지도 - 공동체 사업참여 의향 및 관심사업 분야 -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의견 등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13년 11월 13 ~ 29일	2013년 11월 13 ~ 29일	2013년 11월 7일 ~ 20일

□ 조사결과의 시사점

○ 성평등 가치의 강조 필요성

- 활동가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마을주민의 성별 수요를 고려한다는 활동가의 인식은 여성 3.35점, 남성 3.34점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고려는 여성 3.68, 남성 3.88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

○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다양한 권한적 요소가 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요한 권한적 요소는 크게 의사결정 권한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음. 활동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보다 남성에

게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권한적 요소가 있음이 밝혀짐

- 마을지역에서의 주요 사업참여자 수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활동의 경력과 연한, 그리고 마을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활동가의 1일 평균 활동시간은 여성 6.64, 남성 9.59시간으로 나타났다으며, 1주일 평균 활동일 수는 여성 4.5일, 남성 5.09일로 남성이 약 0.5일 긴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활동시간의 성별차이는 남성은 마을활동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은 마을활동 역시 가정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간지원인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하는 것임. 실제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사업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점척도일 때, 여성 3.69, 남성 3.70). 그럼에도 활동가 스스로는 그와 같은 인력양성체계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 이유는 활동가의 낮은 전문성과 수당의 부적절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또 하나의 특성 중 하나는 ‘행정’이 아닌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임. 이와 같은 특성은 서울시 공동체 사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주도의 공동체 사업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임. 활동가 및 마을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활동가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V 정책제언 및 정책과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기반체계 개선방안
  - 첫째, 성평등 가치 지향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시장은 ‘성평등 목표’를 천명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로 제5조(시장의 책무)에 ‘성평등한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성평등 가치 실현은 마을공

동체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일치하며, 실현하는 주체가 여성과 남성인 주민  
이므로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본계획에 성별등 주민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보안 필요. 서울시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그동안 지역발전이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지역사회의 ‘외형적’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민 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됨. 이와같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을 제안함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단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 마을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의식교육 훈련을 통한 요구 반영
  -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주민의 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으며, 마을활동가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주민의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지침을 개발·제시해야 할 것임. 실제 마을활동가들은 마을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조금 넘고 있을 뿐 그 외 응답자는 성별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활동의 범주에 주민의 성별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임
-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동등기회의 보장
  - 마을활동가의 성별 응답자 비율은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마을은 주민들의 생활 연장선상에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의사결정 행위의 성별 분리 현상은 마을공동체와 같이 작은 소규모 수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관습적인 행위를 끊기 위해서는 위원회별 성평등 가치를 강조하고 의사결정지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도록 공동체 규약 혹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성별 정보 균형을 위한 방안의 모색

- 정보력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 누가 더 많은, 혹은 더 질 좋은 정보를 갖느냐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정보의 양에 관계없이 성별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정보의 획득 경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획득 수단으로써 각종 회의나 교육, 워크숍 외에 남성의 경우 사적인 모임이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공식적인 모임 외에 사적모임이나 네트워크는 빈번하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임.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의 실천이며 이는 마을생활에서도 권한(권력)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으로써 마을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보공유의 방식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필요로 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제도적 개선방안

- 심사·사업선정 심의기준 및 평가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성별 특성 및 수요파악, 그리고 실제 성인지성을 고려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함
- 중간지원인력의 성인지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마을활동가는 마을이슈를 찾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념 등은 마을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을사업 참여자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짐. 따라서 활동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역량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마을지역 주민과 대면접촉이 빈번한 위치에서 성인지 의식교육이나 마을주민에 대한 성별 수요에 대한 파악, 성별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와 함께 각 활동영역별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마을활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성별 맞춤형 행정지원의 특성화: 여성과 남성의 활동가 역량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같은 지식·정보의 수집 및 활용 역량, 마을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및 동원 역량에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나 자치구 등 정부와의 관계 등 공식적인 관계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스스로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참여와 사회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수단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이 요구됨. 한편, 남성의 경우 마을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역량에 대해 취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을사업 참여주민의 높은 비율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한계인식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각종 상담 및 조력, 컨설턴트 활동에 있어서 이성(異性)에 대한 소통방법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마을사업에 있어서 성별 이슈를 찾고 마을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I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단계별 추진내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온 이래 서울시는 매해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성인지적 사업개선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실제 사업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사업의 성인지적 개선에 기여해왔다. 2004년 ‘복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문화시책, 장애인고용 정책, 서울숲 조성 및 운영 사업, 환경교육정책,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 노숙인 지원정책 등 복지, 교육, 도시공간,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의 성별 이슈를 발굴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선에 기여해 왔다.<sup>1)</sup> 이후 2011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수가 급증하

1) <표> 2004~2010년 서울시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현황

구 분	사 업 명	수행기관
2004년	서울시 복지정책 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개발원
2005년	서울시 문화시책사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년	서울시 장애인 고용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7년	서울 숲 조성 및 운영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환경교육정책 성별영향평가	"
2008년	서울시 관광종사인력 양성정책 성별영향평가	"
2009년	생활권 자전거친화타운 조성사업 성별영향평가	"
2010년	서울시 노숙인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	"

였고, 이에 따라 양적 실적에 초점이 모아짐으로써 각 개별사업이 갖는 성별 특성과 정책추진의 한계,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었고,<sup>2)</sup>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은 대상과제 선정→분석평가서 작성 및 환류과정 등 일련의 추진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추진되면서 각 세부사업에 내재한 성별특성 도출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한계를 갖는다.<sup>3)</sup> 이에 따라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적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정 정책영역(복지, 일자리, 교육, 도시공간 등) 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젠더이슈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 정책개선의 계기마련과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주로 정부기능에 따른 정책대상과 영역이 비교적 구체화된 사업으로 예를 들면 대상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이거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일자리 정책, 평생교육·직업교육·직무교육 등 교육정책, 도시공간 및 시설 설치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대상사업은 사업참여자와 수혜자가 구체적이며 따라서 개선과제를 통한 사업개선의 기대효과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수 많은 정부사업 중 여전히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일부분이며, 개선범위에 있어서도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평등 가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특정 사업에 집중되고 일반시민이 실제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평등 이슈나 가치에 대한 논의나 고려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즉 시민이 사업참여자요, 대상자가 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는 민선5기 후반기 주요 시정 방향으로 도시생활에 있어 공동체를 통한 인

2)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는 '10년 10개, '11년 10개에서 '12년 52개, '13년 61개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이하 ‘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대상과제 수 급증함  
3)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12년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추진 과정의 민-관 간담회 및 평가단계의 ‘평가포럼’에서 제기되었음

간성 회복을 강조해 왔다. 이것의 하나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2012. 9. 11)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제정·공포(2012. 3. 15),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확산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생활기반인 ‘마을’을 정책단위로 하며 정책대상자와 참여자가 모든 시민이 되며 마을이라는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젠더이슈 발굴과 개선과제는 일반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으므로 성주류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의 생활 문화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서울시민이 사업의 대상자이며 참여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시민의 일상생활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시생활에서 인간성 회복과 사회적 연대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도시생활에서 ‘성평등’ 가치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가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는 제도적 틀에서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를 넘는 가운데(국토해양부, 2011)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는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물질만능의 자본주의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목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환경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생활지역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공동의 생활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개별화된 개인의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있다. 지역사회에서 주요 활동주체는 여성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70%대, 50%대임을 감안하면 낮시간 동안의 주요 활동주체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는 보육이나 돌봄(노인이나 장애인 등 신체적·정신적 허약자), 건강, 안전, 교육 등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과연 성별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점검·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례나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이나 지침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는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실제 지역이나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별·연령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활동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과 성별 관계를 일정한 분석틀에 따라 평가하고 성 평등한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 마을사업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성별 특성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행동양식의 차이와 마을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성별 이슈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마을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관계 맺기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공간인 마을(지역)에서 ‘공동체’를 통한 가치는 상호연대와 호혜성, 협력 등인데 반해 ‘마을’의 특성으로 보수성은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인식변화에 둔감하다. 따라서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별관계의 갈등구조와 문제해결 과정에서 성별이슈와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마을구성원의 주체는 참여역할에 따라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마을리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원의 특성별로 성별, 연령별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와 같은 다양성에 기초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쟁점과 이슈를 찾아 마을공동체가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참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생활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지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정한 지역공간을 토대로 한 마을공동체에는 다양한 마을살이가 있고,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복지영역으로 보육, 청소년, 안전과 경제영역으로 일자리,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기반조성 구축사업에는 마을공동체 교육과 주민제안 공모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통합적이고 자율적인 생활공간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체계상 사업 영역이 분할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양한 구성원 특성을 마을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 참여자 특성의 다양성, 사업참여, 수행방식의 다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마을활동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다뤄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sup>4)</sup>은 크게 세 개의 절로 구분하고 있다. 1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의 필요성, 2절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마을공동체의 성별 관련성을 살펴본다. 특히 마을공동체에서 왜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의 삶에 ‘성별 이슈’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내재된 성별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별적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어서 3절에서는 공동체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해외 지역사회 개발과정에서 성별 이슈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공동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사업참여자, 그리고 일반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활동가와 참여자의 성별 활동실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주민의식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

4) 제2장 2, 3, 4절은 강선미 소장(하랑성평등연구소)이 작성함.

고자 한다. 제4장<sup>5)</sup>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표설정 및 평가지표에 따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기본계획, 추진체계 등의 성별적 특성을 평가할 평가 틀을 제시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성평등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활동가 및 참여자 성별 수요조사 결과와 일정한 분석·평가 지표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문헌연구, 활동가·사업참여자·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사업담당자 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1) 기존 문헌연구 및 행정·통계자료 분석

도시 및 지역개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 및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젠더이슈의도 출과 성별 특성반영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 등 선행연구를 검토·분석하였다. 성

### (2)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제 추진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기관, 관계자 간담회,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실시하였다.

- ① 먼저, 마을공동체의 현장에서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의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실제 마을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사전정책회의를 실시하였다. 마을공동체에

---

5) 제4장 2절은 김애령 소장(돌봄사회연구소)이 작성함.

대한 성별 관점 반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주요 참여주체와 참여자 유형별 특징, 여성참여자 특성을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 ② 착수자문회의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범위와 방법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자( 마을공동체 연구자, 활동가, 관련기관의 사업담당자, 서울시 공무원) 회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성평등’ 가치와의 관련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틀, 마을공동체 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에 따른 지표 적용성 분석,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반영하였다.
- ③ 사업별 참여자와 활동가 유형별(컨설턴트, 인큐베이터, 상담원 등) 간담회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부모커뮤니티, 마을기업, 우리마을프로젝트, 주민제안사업-를 1~2명 추천을 받아 실제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 성별이슈와 여성과 남성 활동가의 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개별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④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담당자 간담회에서는 실제 지역주민의 수요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는지,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는지, 지역주민의 성별 활동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일선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담당자로서 느끼는 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생각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1 | 마을공동체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추진내용 요약

구분	일시	주요 논의내용
사전정책회의	'13.7.17(수)	-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 - 공동체 사업 참여자 및 활동가 실태의 성별특성 - 여성활동가의 역량강화 필요성 제기 및 지속적인 참여방안 마련 요구
전문가 자문회의	'13.8.13(화)	- 마을공동체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 논의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 및

구분	일시	주요 논의내용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방안 - 조사대상의 적절성과 조사내용에 대한 요청
사업참여자 및 활동가 간담회	'13.10.15(화)	○ 마을공동체 활동가 간담회 - 공마을활동가에 대한 범위와 개념정의, 역할과 활동실태 - 공동체 사업의 핵심개념 요소(자율성, 다양성, 차별성, 필요 역량 등)에 대한 의견
	'13.10.23(수)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간담회 - 사업별 마을사업 활동의 성별 특성과 애로사항 - 사업별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마을공동체사업 담당자 간담회	'13.11.21(목)	-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실태 및 특성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기관별 특성 -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하우 등

### (3) 마을공동체 활동가, 사업참여자,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마을공동체 내 활동주체의 성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유형화하면 모든 주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 및 자치구가 추진하는 공동체 사업을 이끄는 주체로서 활동가,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마을공동체 활동가(상담원,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등),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그리고 공동체사업의 잠재적 참여대상자로서 마을주민, 즉 현재는 직접적으로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참여가능성이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크게 둘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과정과 단계는 과연 참여구성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즉, 참여 단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마을사업의 성별 요구나 수요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이에 공동체 사업참여자의 성별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사업개선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둘째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사업참여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활동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관련자에 대한 조사설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 I-2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참여자 조사설계

구 분	마을활동가	사업영역별 참여자	일반시민
조사 목적	- 마을공동체형성 및 활성화 화를 위한 마을리더의 성 별 역량강화 방안마련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의 성별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영역별 성평등 가치 반영 방안 제시	-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여부 -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 한 수요 파악
조사 대상	- 약 100명 내외 - 자치구별 마을넷 대표 및 활동가 10명 내외(보육공 동체 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등)	- 약100명(사업영역별 보육 돌봄, 마을기업,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교육사업 참 여자)	- 총200명 - 성별, 자치구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비례할당
조사 내용	- 일반특성(성별, 연령별, 성 평등 가치지향 - 성별 성인지의식 및 성평 등 지향성 -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행 태 성별분석 - 마을시민의 참여유도	- 일반특성(성별, 연령별, 성 평등 가치지향) - 성별 성인지의식 및 성평 등 지향성 - 성별 활동실태 및 문제점 도출 - 사업참여 만족도 및 성별 수요조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에 대한 인지도 - 공동체 사업참여 의향 및 관심사업 분야 -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의견 등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 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 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설 문조사
조사 기간	2013년 11월 13 ~ 29일	2013년 11월 13 ~ 29일	2013년 11월 7일 ~ 20일

### 3. 단계별 추진내용

연구 추진단계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과 그에 따른 산출결과를 과정별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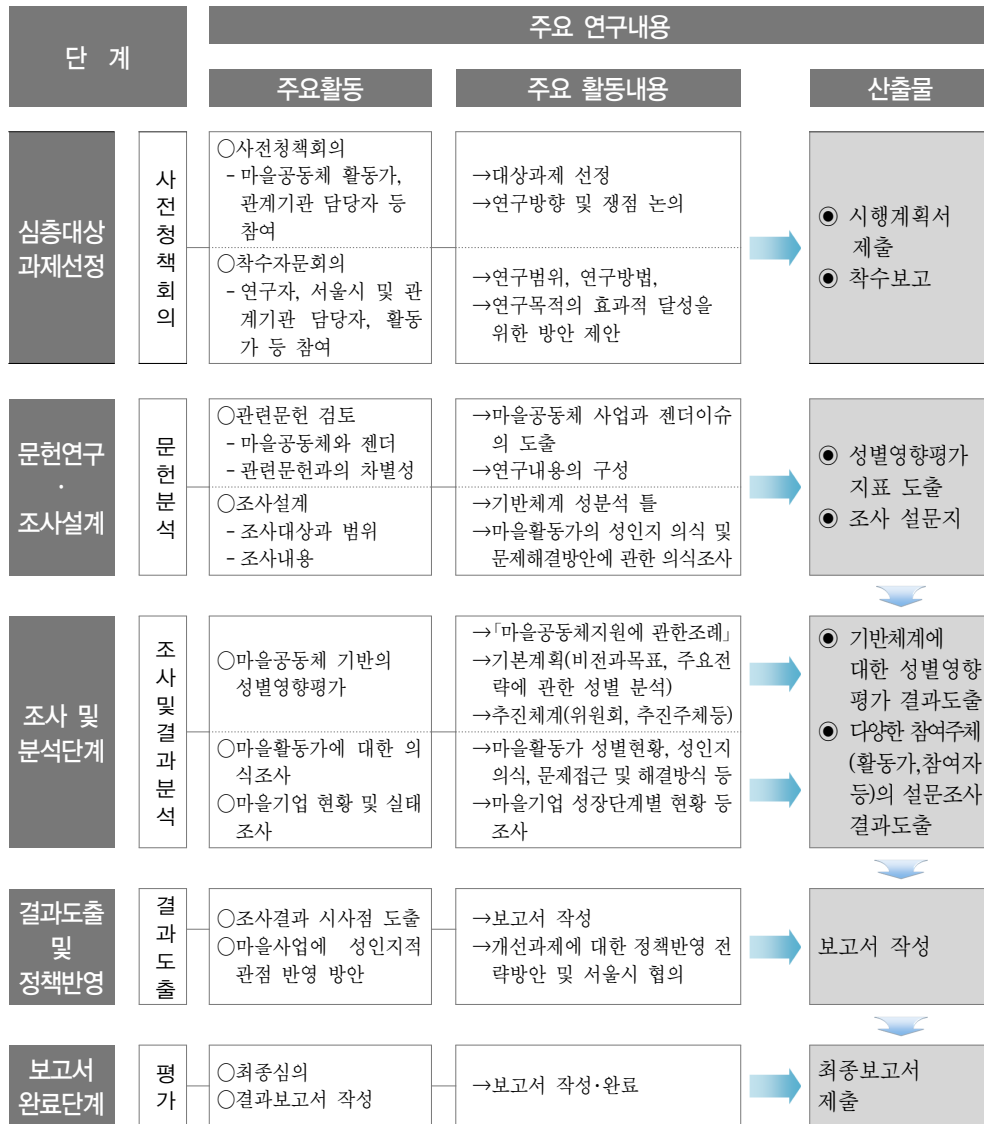


그림 I-1 연구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 II

## 선행연구 검토 및 마을공동체의 성별 관련성 논의

1.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존 논의와 한계
2. 마을공동체 사업과 성인지적 관점
3.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젠더 이슈
4. 해외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젠더프로그램 추진사례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

## 선행연구 검토 및 마을공동체의 성별 관련성 논의<sup>6)</sup>

### 1.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존 논의와 한계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경향은 이론이나 논쟁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논리적 배경, 근거에 대한 논의보다, 실천적 활동으로 다양한 사례발굴이나 정부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모형개발, 성공적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적인 촌락단위의 전통적인 마을이 붕괴되고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형성과 도시화로 인한 문제로써 각종 범죄와 인간성 해체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마을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거리 지역에 기반한 ‘마을’ 혹은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실제 마을 단위에서 구성원들간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한 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나 사례가 발표되는 등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적 시각도 있다(박주형, 2012). 즉,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마을사업의 추진을 ‘통치’기술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최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민의 자발적 노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여야 하는가,

---

6) 제2장 2, 3, 4절(pp.19~38)은 강선미 소장이 작성함

그리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성원들의 모임과 활동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성원들간의 연대형성의 긍정적 효과들을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념요소로서 공동체의 형성주체, 공동체의 핵심가치, 마을사업 관련한 공동체 형성의 성공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 관련 연구가 있으며, 특히 공동체에 대한 젠더적 접근 필요성과 사례 관련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의 경향들을 주제별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공동체의 발전 및 형성요소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 ‘마을’이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과 달리 현대적 도시공간에서 ‘마을’은 시민과 행정의 관계 속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의 핵심주체에 대한 논의가 주요 중심주체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정규호(2012)는 한국도시공동체의 형성을 ‘사회공간적’ 맥락에 근거를 두고 역동적인 형성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체 참여주체로서 성원의 공동체 형성의 계기에 따라 ‘적응형’ 도시공동체 운동(‘60~70년대), ‘저항형’ 도시공동체 운동(‘80년대), ‘방어형’ 도시공동체운동(‘90년대), ‘창조형’ 도시공동체 운동(‘90년대 후반)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구분이 주체와 주체의 특성이 시민주도 혹은 관주도의 극단적 특성에 있음을 제시하고 ‘민-관’ 협력의 협력형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을의 붕괴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을 강조하고 이러한 모델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행정주도의 공동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연구가 있는데(송인하, 2010; 박세훈·전현숙·전성제, 2009; 김찬동, 2012; 민현정, 2013), 이와 같은 논의의 핵심에는 주민주도가 필수적이나 자발성을 위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인하(2010)는 전통사회의 해체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공동체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거버넌스’를 제안하고 행정주도의 마을공동체 사례를 진안군의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주민’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로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김찬동, 2012; 박세훈외 2009; 민현정, 2013 등). 김찬동(2012)은 마을공동체 형성단계를 참여활성화 단계, 공동체성 구비단계, 준주민자치 단계, 준단체자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성공사례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강화, 전문성 및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박세훈(2009)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참여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크게 미시와 거시 수준으로 구분하고, 거시수준은 주체와 구조, 미시수준에서 주체의 참여성, 자율성, 상호의존성으로 구분하고 두 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민현정(2013)의 연구는 생활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활성화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 참여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마을의 생활 중심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요소나 성공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김태윤·김진영, 2012; 송인하, 2010; 호은지, 2012; 신경희, 2012 등). 김태윤·김진영(2012)은 주민참여 활성화의 요소로 경제적 요소, 사회자본적 요소, 조직적 요소로 구분하고 집단 효능감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제주 올레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인하(2010) 역시 마을공동체 형성의 주요요소인 사회적 자본 요소로 구성원의 주체적 역량, 외부 인적자원 충원, 참여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안군 사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주요주체와 활성화 요소로 거시적(법·제도적) 혹은 미시적인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공동체의 가치나 참여주체 내의 다양성이나 성평등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는 ‘공동체의 가치’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성원들간 공동체의 ‘바람직함’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체에의 접근이 누구나 동일한 관점으로 출발하고 있지 않다. 상호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한 공동체가 아닌, 다양성과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공동체는 그동안 마을 만들거나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주체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준원, 2000). 김미경외(2006)의 연구는 공동체 논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전

제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구성원간 동일한 사고와 시각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논의에서 성평등 가치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성평등에 대한 접근 내용의 추상성은 실제 마을공동체 내에서 성별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주혜진(2011)의 연구는 지역(마을) 내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마을 지역에서 여성의 활동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참여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동체 내 성별 관계의 특성을 밝히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성인지적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II-1 마을공동체 구성요소별 관련 연구 요약

주요 요소		관련 연구	비고
핵심 주체	행정주도	송인하(2010): 전북진안군 사례	주체
	민간주도 (주민참여)	김태윤·김진영(2012): 제주 올레탐방자조사 박세훈·천현숙·전성제(2009) 민현정(2013) 김찬동(2012):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조	
	민-관 협력, 참여거버넌스	정규호(2012),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강조 - 안산시, 수원시 마을만들기 - 서울북촌마을, 광주북구 문화운동	
환경과의 관계	- 네트워크 - 외부자원의 통합성	특성화	
마을공동체의 가치: 사회적 자본	송인하(2010): 구성원의 주체적 역량과 인식의 전환, 외부 자원의 충원 등 김태윤·김진영(2012): 신뢰와 소통, 주민참여와 적극적 역할		
공동체의 개념	이준원(2000): 이질성의 공동체, 과정으로서 공동체를 강조		
성평등 가치	김미경외(2004): 구성원간 동일한 사고와 시각공유, 남녀 차별적 인식 극복	젠더적 접근	
여성의 역량강화	이혜경(2010): 제3세계 여성역량강화(주체, 공동체,연대, 그리고 우정) 주혜진(2011): 여성의 성장단계별 지역공동체 참여 활동을 설명하고, 공동체운동의 활성화 방안 제시		



주요 요소	관련 연구	비고
주민역량강화	위성남외(2013): 서울시 성미산마을 여관현(2013):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 이규선외(2012):부산시 감천문화마을	지역 사례
마을기업	이주원(2012): 사회적기업에 의한 주거지재생 민양문(2011): 마을에서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대전여민회 사례)	
안전마을 등	이왕건·류태희(2010): 일본의방법형 안전도시 마을 만들기	

이상과 같은 마을공동체 관한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의 활동주체, 공동체 형성의 요소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성평등을 의식하여 성별 특성을 도입하고 있으나 마을공동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그치고, 생활공간으로 공동체 활동실태와 현황 분석을 기초로 실제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젠더 특성과 이를 개선하기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접근의 필요성과 젠더이슈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마을공동체 사업과 성인지적 관점

### 1) 마을공동체의 젠더 관점 필요성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 가치에 두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2년 발표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화로 인해 사라진 사람 사이의 관계망 복원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취지의 정책소견을 발표했다. 이는 지식경제와 후기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도시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 혹은 도시재생(urban revitalization)

7)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의 역사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여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음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김미란, 2005; 이소영, 2006; 이소영·김현호, 2008; 김진범 외, 2009; 진영환 외, 2010; 초의수, 2010; 김준호, 2010; 한승욱 외, 2011 등). 한편, 여성정책적 접근으로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현재까지 제4차에 걸쳐 계획·추진해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문제 삼음으로서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추진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지역여성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민선4기 여성들이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3불 요인(불편, 불안, 불쾌)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 공공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공간에서의 여성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도시생활에서 성별 관점을 도입·적극적으로 반영한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요사업 영역으로서 도시공간 정책 뿐 아니라, 일자리, 돌봄, 여가 및 문화 등 전체 시정영역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 및 공간설계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시설 및 공간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단위에서 도시공간의 여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여성친화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여성친화적 도시조성’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인증하는 사업 역시 도시공간의 성별 관점을 도입·반영한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은 지역(공간)정책의 성주류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추진전략의 활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공간시설의 ‘여성’ 친화성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일정한 지역(마을)이나 도시공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마을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관계, 특히 성별·연령별·인구 특성 등 구체적 젠더 이슈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기산업사회의 도시위기와 관련하여 관주도의 지역개발과 차별화되는 ‘주



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특성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학계나 정책분야에서 정책배경으로 제시된 '도시의 위기'나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여전히 모호하고 매우 파편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란과 모호성, 파편성 등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방해하며, 정책 목표나 대상의 불분명성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본 절에서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 기반하여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하는 대상정책관련 주요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사회적 개념으로서 젠더(gender, 성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 차별이나 경험, 이해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식론적 태도 혹은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정책의 성별관련성을 살펴본다는 것은 이 정책의 배경이 된 '도시의 위기' 진단이나, '주민주도'의 접근방식 설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주 설정 등에서 시민들의 연령, 계층, 인종의 경계를 횡단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이들 간의 성별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우선 성인지 관점의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도시의 위기,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개념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로서 각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2) 마을공동체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기본 개념들<sup>8)</sup>

### ① 일상생활에서의 젠더

인간은 여성 혹은 남성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하는 모든 일과 양자

---

8) 이 절에서의 설명은 국제노동기구가 2010년도에 발간한 지방의 경제개발전략에서의 성주류화에 관한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0),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ILO Bureau for Gender Equality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led/documents/publication/wcms\\_141223.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led/documents/publication/wcms_141223.pdf). pp.3~4.

에게 기대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은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 성적으로 구분된 기능을 제외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학습되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한다. 또한 문화 간에 혹은 같은 문화 내에서도 큰 다양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들의 요구와 우선순위는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들이 또한 집단, 연령, 민족과 같은 사회적 카테고리에 대한 소속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처럼 여성이나 남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한편 사회 구성원들의 젠더는 크게 성 역할과 정체성, 남성다움·여성다움과 같은 자기표현의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 차이 개념에 의해 만들어 진다. 젠더에 기반한 규범과 고정관념(stereotyping) 또한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성(masculinity), 특히 권력, 소유권(ownership),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남성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여성들의 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을’은 전통적인 가치와 의식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이 짙으며, 이로 인해 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나 갈등구조가 표면화되지 못하고 현상유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이슈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구성원간 합의할 수 있는 지침이나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② 젠더이슈 생산 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주류화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혹은 과정을 말한다. 이는 한편으로 정책, 기본계획과 사업, 제도적 구조 등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기존하는 불평등 요소들을 완화시키고 평등요소들을 보존하기 위해 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특정한 요구와 우선순위들을 별도로 혹은 한데 묶어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참여적 접근은, 여성과 남성의 정책과정 참여에서 균형잡힌 대표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을 요구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전략의 계획과 이행은 여성과 남성의 특수하고 때로 서로 다른 관심사들에 대해 진실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개발과정에서 성공적인 성주류화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성주류화는 단지 기존하는 사업활동에 ‘여성적 요소’ 혹은 ‘성평등 요소’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참여의 증진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지역(경제)개발의제들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 지식, 이해관심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의제 자체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확인하는 노력을 부과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개발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목표, 전략, 사업내용 등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성평등 주류화의 목적은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적, 제도적 구조들을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정의로운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sup>9)</sup>

행정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성 주류화란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고, 중점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양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성 주류화란 사업의 과정, 참여인력, 예산배정, 투입물, 결과, 영향이라는 모든 요소 및 포괄적 과정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 세부사업 등 각 정책수준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주기(cycle) 상 매 단계별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고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젠더전문성과 적합한 물적·인적자원의 배정이 필수적이다. 어떠한 수준의 계획과 사업이든, 사업의 주기별 성 주류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시 성분석 (gender analysis) 및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요구조사 시행, ② 성인지적 사업 설계 (사업목표에 성평등 목표 통합), ③ 사업 집행시 성 주류화 사업 구성요소 이행 및 성인지 역량 강화, ④ 성인지적 모니터링과 평가, ⑤ 성 주류화 사업실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의 공유와 환류(feedback).

9) *ILO Policy on Gender Mainstreaming, 1999.*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gender/newsite2002/about/defin.htm>.

ILO Bureau for Gender Equality(2010). p.4.에서 재인용.

### ③ 자원배분의 형평성 검토; 성인지 예산의 활용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산분석을 통한 자원배분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이 성인지적인가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만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예산 배분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성인지 교육, 젠더에 관한 일시적 또는 지속적 조사연구, 젠더 전문가 파견 등 성인지적 활동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은 관련 사업에 명시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가? 예산과정에는 자원들이 성평등 목표에 맞게 배분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마을만들기의 맥락에서 성인지 예산은 그 예산들이 여성과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예산사업들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지 혹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영구화시키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 3.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젠더 이슈

많은 젠더전문가들은 마을공동체의 본래적 책무가 지역공동체와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내에서 또는 지역의 실행과정 내에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젠더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국가발전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의 성평등 부서에서 발간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의 성주류화 이슈” 보고서(Marie Crawley and Louise O'Meara, 2002)는 이러한 견해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했던 젠더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음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들이 이론적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차원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성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마을공동체사업의 궁극적 목표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다음으로 아일랜드의 보고서와 같이 선진국의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젠더

불균형 요소들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마을사업 관련 고용에서의 성불평등과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향, 의사결정시 여성들의 과소대표성, 마을기업의 이사회/위원회 조직의 ‘남성중심문화’, 돌봄공동체 운영지원에 반영된 성별고정관념 등.

### 1) 성 평등 목표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배제

마을공동체 형성의 맥락에서 성평등<sup>10)</sup>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그것은 거버넌스 참여, 양질의 고용기회와 노동조건, 자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이 어떤 사람이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사실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참여가 가부장적 전통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서의 불이익과 낮은 교육수준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은, 성평등을 공언하는 정책은 많지만 그 실행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전략에서의 성주류화를 다룬 ILO(2010)의 보고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의 요구, 우선순위, 의견들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고 성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개발전략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성주류화 전략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인 성평등 성과지표에 근거한 개입이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10)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거나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 평등은 자원이나 이윤의 분배에서,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타고난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성 평등의 가치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간의 권력과 자원, 가사와 양육 책임 등 재분배를 통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관계의 변화를 지향한다. 성 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상호존중을 의미하며, 성 폭력과 성 희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성 평등은 여성의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여성의 성적·재생산적 권리를 수반한다. 성 평등은 인권존중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모든 개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 성적 지향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정의에 기초한다.

## 2) 젠더화된 고용과 자원활동 구조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를 위해<sup>11)</sup> 그 답을 ‘마을’에서 찾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마을’은 여성에게 그리고 젠더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국 월드뱅크(World Bank)의 여성정책 전문가인 캐롤린 모저(C.W.Moser)는 그 답을 ‘지역사회의 서로 다른 성역할’<sup>12)</sup>에서 찾고 있다.

모저에 따르면 지역사회 관리 역할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역할은 수도, 보건, 교육과 같은 집합적 소비의 희소자원들에 대한 제공과 관리를 보장한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간’에 수행되는 자발적 무급노동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치 역할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공식적 정치를 조직화하는 남성에게 의해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지위와 권력의 상승을 통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유급노동이다.

즉 마을공동체 내에서는 성별분업 체계가 명확한데, 여성은 ‘집합적 소비’를 위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남성은 지역정치의 참여 등 권력 추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별 분업 관계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가?, 소(小)지역사회인 ‘마을’에서 성평등을 위한 지향점과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과연 무보수의 마을관리 노동 및 지위의 상승을 수반하는 마을정치 활동 간의 비가시화된 성별분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러한 이슈를 다룰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직 방향성을 가늠하기에는 매우 초기의 상태에 있다. 대안적 공동체로서 호혜적인 마을관계를 정립하는 일은 새로운 행정 혁신과

11)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활용설명서」(홈페이지 자료), 49-50쪽 참조.

12) 캐롤린 모저, 장미경 외 옮김(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문원출판), 57-59쪽 참조.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지향 행정에 합의하는 등 동질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혁신 요소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던 젠더전문가들은 마을공동체와 자원활동 부분에서 유급/무급(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로 불림)으로 나뉘는 두 가지 범주의 행위주체가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유급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복지사, 개발사회사업가/개발단체소속직원, 프로젝트 관리자, 재정행정직원, 보육종사자 등은 지역활동가로 유급노동자들이다. 반면, 마을공동체와 자원활동 부문 프로젝트들(일반적으로 시간, 기술, 책임에 있어서 상당한 헌신과 참여와 관련되어 있음)을 관리·감독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항상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행사조직을 지원하거나 서비스전달 분야에서 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급노동자와 무급의 자원봉사자들은 성별로 구분되며 유사한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가정에서의 가사와 양육활동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활동으로 이중적 부담을 느끼며 어렵사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점은 공동체 활동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전업주부들의 사회 참여에서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보수나 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여 공동체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보수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특성이나 기능을 구분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가 지불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이 요구된다. 실제로 북유럽의 북아일랜드에서는 여성이 이 부문에서 우세한 인력으로 72.4%를 차지하지만, 2001년 11월 자원활동법을 위한 북아일랜드 의회가 실시한 임금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파트타임직은 전체인력의 44.8%를 차지하는 반면 최고위 직급을 차지하는 여성비율은 2%정도에 불

과했다. 즉, 여성들은 지역공동체와 자원활동 부문에서는 전체 파트타임 근로자수의 77.7%를 구성하면서 파트타임 인력에서 매우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는 노동의 여타영역에서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파트타임 고용에 있어서 여성의 과대대표의 의미는 더 낮은 연금과 복리후생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3)</sup>

한편 “지역개발과 정책결정구조에서의 여성대표성”을 검토한 아일랜드의 지역개발협의회 참여 여성들(Women in Local Development Consortium:이하 WLDC, 2002)의 보고서는 지역개발과 자원봉사 부문에 대한 자원활동가들의 공헌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14)</sup> 이들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을만들기사업과 자원봉사 부문은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자원활동이 사회서비스, 지역개발사업과 공동체 자원 센터들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절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여성들의 일은 여러 면에서 가치결여와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에서의 돌봄노동이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 3)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의 과소대표성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지역에 기반한 마을공동체사업에서의 주요 위원회 여성들의 과소대표성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 아일랜드의 지역개발사업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 Marie Crawley and Louise O'Meara(2002)의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정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젠더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기업,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등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영역과 대상집단을 선별해내고, 각각의 예산할당량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주요 조직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조직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존재와 대표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13) Northern Ireland Council for Voluntary Action, ‘State of the Sector II’, 2001.

14) Women in Local Development Consortium(2002), ‘Ait ag an mBord: Represent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Structures for Local Development in Ireland’.



다음으로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들의 대표성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의 위원회나 이사회 대표자 지명/선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임기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의도치 않게 여성들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젠더불균형 현상은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와 우선순위가 지역개발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지출에 반영되는 정도로 나타난다. 최근 각국의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사회변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다. 여성들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서 빠질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은 여성들의 필요와 경험을 고려하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게 된다.

#### 4) 이사회/위원회 운영 등의 남성중심문화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등 소위 ‘사회적 경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업과 불완전고용의 증가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민-관-학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서 또 하나 점검해야 할 요소는, 과연 이 사업이 성주류화 전략에서 중시해 온 바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여성들이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마을활성화 계획에 여성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의 WLDC 보고서(2002)는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남성들이 주도하는 조직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기반 민-관-학 파트너십에 입각한 거버넌스 체제를 활용하는 지역개발정책결정을 위한 이사회/위원회에 참여하는 남성임원들은 흔히 자신들이 속한 단체나 기업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이사회/위원회 밖에서 일상적 업무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계들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문화는 이들의 관계구조

를 지배하게 된다. 그 결과는 남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창출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거나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들이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려면, 가족돌봄과 재정문제 등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벽은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이다. 특히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성들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매우 강하고, 여성들이 그러한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접근하기란 너무도 어렵다.’

동 보고서는 마을활성화사업들이 여성들이 마을의 변화를 위한 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민-관-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38개 마을기업들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험은,<sup>15)</sup>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문화가 여성들에게 포용적이기보다 배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문화는 여성참여에 포용적이거나 개방적이지 않다. 파트너십에서 여성들의 이슈나 여성들의 일하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조직의 남성중심적 문화가 미치는 성별영향은 단순히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배제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사회/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우선적 요구반영이 불공정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마을정치구조의 전반적인 남성중심적 문화는 마을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을 활성화시켜 글로벌화와 정보화, 스마트화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실업의 원인들을 제거하려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 5) 마을의 돌봄공동체 사업에 반영된 성별고정관념

자녀양육이나 혹은 고령노인에 대한 돌봄역할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현대가족이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중심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

15) Faughan, Pauline, et al (1997) Gender Equality in the Partnerships: Women's Experience, Dublin, Community Action Network.

움직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문제는 돌봄공동체 운영지원 사업이 돌봄을 ‘대표적인 여성활동’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성주류화 접근을 빚겨가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아일랜드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분석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공공서비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돌봄서비스 영역의 고용구조와 고용조건을 살펴보는 일이다. 돌봄서비스 영역의 고용구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단기근로, 시간제 근로형태로 일하고 있다. 이들이 병가나 휴가제도, 연금 등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sup>17)</sup> 이와 관련 마을의 돌봄공동체 운영지원사업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여성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고무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고용과 자원활동의 구조를 직급별·성별임금구조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측면은 돌봄서비스 예산분배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남녀 성비이다. 돌봄서비스 분야가 대표적인 여성영역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위원들이 많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돌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인 돌봄지원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성비구성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의 연구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균형을 위해 적어도 소수자 위치에 있는 남성 혹은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돌봄서비스 정책영역에 적용될 경우 남성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아동보

16)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48쪽 참조.

17) 지난 2012년 1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돌봄노동시장 규모는 6개 서비스부문 48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간병, 장애인보조, 아동보육 등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이 50만명에 육박하지만, 저임금에다 사회보험 혜택도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역할로 간주되던 돌봄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대체·보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인데, 보건분야의 관리적 대다수가 남성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들이 아동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점진적으로 전통적으로 여초분야인 돌봄공동체 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원들의 선정절차나 이들의 사정 및 교체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부재는 의도하지 않게 여성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Marie Crawley and Louise O’Meara, 2002:16, 괄호 안은 필자).”는 것이다.

#### 4. 해외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서 젠더프로그램 추진사례<sup>18)</sup>

지난 수년간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젠더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성주류화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체 개발과 관련하여 젠더문제에 대한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다양한 지역과 국제 사례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지역공동체 개발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 아일랜드 북서부주 도니골 지역개발위원회의 젠더초점집단

도니골(Donegal) 주의 여성네트워크(Donegal Women’s Network:이하 DWN)인 그리산 나 움반(Greasán na mBan)은 지난 2000년부터 자치구 개발 위원회(County Development Board: 이하 CDB)와 그 관련 조직구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입의 촉매제가 된 것은 당시 새롭게 구성된 CDB의 낮은 젠더균형수준이었다. DWN은 여성을 위한 재교육 사업(the Second Chance Education Project for Women)에 협력하여 CDB와 함께 성평등에 관한 정책대화를 시작했다. CDB의 사업구조 내

18) 본 절에서 소개하는 해외사례들은 Marie Crawley and Louise O’Meara(2002), *GENDER EQUALITY in Community Development*, NDP, March에서 소개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관련자료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음.

에서 성평등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집단이 확장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DWN은 초기의 대화집단을 확장하여 젠더초점집단(Gender Focus Group:이하 GFG)을 조직하였다. GFG는 CDB와 관련 조직구조들 내에서 성평등 의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촉매자 역할을 맡았으며, 그 목적은 주민들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하는 전통적인 성별가치와 규범들을 제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GFG는 자치주의 모든 주요 조직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초기의 임의조직 형태에서 진화하여 CDB 산하의 정식조직으로 발전했다.

GFG의 구체적 실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CDB와 관련 조직들의 임원들을 위한 젠더 분석 워크숍 주최
- CDB 구조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젠더 체크리스트 질문지 개발
- CDB에 대한 성평등 상황 보고

GFG는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영향력 범위를 보다 넓은 지역개발 및 법정 영역들까지 확장시키기 위하여 ‘균형회복:도니골주의 성평등 초점(Restoring the Balance: A County Donegal Focus on Gender)<sup>19)</sup>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였다(이 사업은 정의와 평등, 법개혁부[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의 여성을 위한 평등조치[Equality for Women Measure]의 기금 지원을 받음). 이 프로젝트는 성주류화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지역공동체 기반사업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이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정치구조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FG는 여성들을 위한 리더십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중간관리자급의 여성들을 위한 지지메카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여성들의

19) 이 프로젝트는 ‘균형감각찾기(Finding A Balance)’라고도 번역되며, 도니골주 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도니골주 직업교육위원회, 주의회, 보건서비스 서부집행부, 젠더초점집단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협력사업. “Donegal project highlights ways to make the workplace more inclusive”, Donegal Democrat, Published 17/09/2007 17:35.  
<http://www.donegaldemocrat.ie/news/donegal-news/donegal-project-highlights-ways-to-make-the-workplace-more-inclusive-1-1983458>.

효과적 참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했다.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는 법정 기관들 내부와 지역공동체 부문 내부 모두에서 성평등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평등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성평등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세 개의 법정 기관들 내에서 이틀간의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 부문 내에서 성평등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 프로젝트는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의 가족친화 정책과 유연노동 실태에 관한 현행 정책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의 결합이 여성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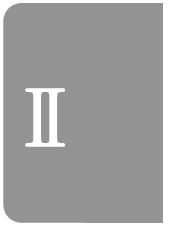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들의 결합을 통해 GFG는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 혹은 조직의 상위직급 진출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호의적인 환경을 창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젠더의제의 추구가 이러한 여성들의 유일한 책임 영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도였다.

## 2) 근로자 교육연합과 권력주변의 여성 프로그램 (북 아일랜드)

근로자 교육연합(The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WEA)의 여성교육을 위한 기회(Opportunities for Women Learning, OWL) 프로그램은 지역에 기반한 여성교육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북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남부의 영국과의 접경에 있는 여섯 개 주에서 여성들에게 일정범위의 인가받은 교과과정들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여성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러한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첫걸음은 마을공동체와 지역개발사업들에서 지도적이고 인정받는 역할에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 교육과정을 거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고위직이나 정치조직 내 의사결정직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OWL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OWL은 '권력주변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Women on





the Fringes of Power Programme)’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공공 기관들과 위원회, 이사회 등의 성인지력 증진과 동시에 각종 사회조직과 공적 생활에서 여성들의 원활한 상위직급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공공 기관과 각종 위원회 및 정당 등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참여를 선택할 경우 맞아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사회 임원후보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참여자들이 이러한 기구들에 참여하여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에서 권력의 성별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지원이 필요했다. 여성 개인들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지원과 의사결정기관들을 위한 위로부터의 교육훈련의 결합방식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과 기관들의 참여를 원활히 하고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3) 아일랜드의 지역개발관리 회사

유럽위원회와의 동의 하에 세워진 아일랜드 정부 산하의 지역개발관리주식회사(Area Development Management Ltd.; 이하 ADM)는 회사법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증진시키고, 사회경제개발을 통해 불리한 처지에 놓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sup>20)</sup>

ADM은 지역사회 정부지원사업들<sup>21)</sup> 내에서 성주류화 의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전략을 수행하였다.

먼저, 젠더자문집단(위원회)의 설치(Establishment of Gender Advisory Group)이다. 1994년 ADM은 위원회 산하에 ‘젠더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정

20) <http://www.adm.ie/programs.htm> 참조.

21) ADM은 아일랜드, 영국, 유럽위원회가 협력하는 경제적 의류 프로그램(The Economic Clothing Program), 비즈니스배달서비스부(Department of Business Delivery Services and Affairs)를 대신한 꽃재배업자들을 위한 배달서비스사업(DSP for florists),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기회증진을 위한 지역재활성화 사업(Revitalising Areas through Planning Investment and Development:RAPID), 교통부의 농촌교통개선사업(Rural Transport Initiative:RTD)과 택시민원처리사업(Taxi Hardship Panel), 정의, 평등과 법개혁부의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의 여성을 위한 성평등조치(The Equality for Women Measure) 등 아일랜드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중개하고 있다. <http://www.adm.ie/programs.htm>.

부협력사업과 마을기업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다.

둘째, 정책협력기관들의 여성포용 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1996년 ‘통합적 개발에서의 성평등을 위하여(Towards Gender Equality in Integrated Development)’라는 지침서를 개발했다. 이 특별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 소위원회의 위원들과 직원구성에서 젠더균형(여성, 남성구성원 최소 40% 보장) 원칙
- 지역발전기본계획의 개발과 실행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적정사업 고려 원칙. 지침은 모든 회의의 조직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유연한 구조와 특히 회의시간, 여행, 사회적 돌봄지원(예: 부양노인들에 대한 돌봄)과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평등한 활용의 원칙들을 강조한다.

또한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지역발전계획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개발계획을 위한 지침들〉

- 평등에 대한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하며 특히 ‘성평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임원, 조직구성, 직원채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절차에 대한 성평등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과정에 여성개인들과 집단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 여성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프로파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즉 교육훈련, 노동, 사회복지, 생활편의시설과 지원서비스, 빈곤과 소외문제, 보육서비스, 자원활동 등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와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조치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연간 최우선 사업과제 목록에 있어서 성평등 지침이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ADM의 자문위원회는 각종 정책협력 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참여조사연구 실시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성평등 침에 대한 생각을 수렴했다. 그 결과로 나온 “협력사업에서의 성평등: 여성들의 경험 (Gender Equality in the Partnerships: Women’s Experience)”이라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 및 권고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정책실행에 참여하는 파트너 회사들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력 분석 및 훈련

- 이사회 및 정책결정기구의 성원구성에서의 성평등 증진
- 성불평등 시정을 위한 해결책 마련 및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증진의 의미 구체화, 특히 아동돌봄에서의 평등증진방안 마련
- 정책실행에 참여하는 파트너 기업들 내에 성평등 추진절차 마련. 각 회사들은 훈련이수 후, 회사의 모든 절차들이 평등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이행여부를 평가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활동과 권고사항들이 제안되었다;

- 성평등 목표 이행은 ADM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 되어야 한다.
- 성별 균형은 총괄 이사회 수준 보다는 각각의 정책 부문내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 워크숍은 여성들이 여러 유형의 리더십 모델, 참여 스타일, 남성과 여성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권력문제에 관한 여성의 고유한 신념과 가치들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 별도의 훈련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안심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서로 다른 사유방식과 일처리방식, 언어와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평등과 파트너십을 반영하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에게 필수적 요건이 되어야 한다.
- 개별 정책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파트너 기관들은 각각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여성들에게 파트너 회사들의 사업구조와 절차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훈련은 여성들의 자신감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여성들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만나 서로를 지지하고 젠더에 관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 파트너십 사업에서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단지

여성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공동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 젠더에 관한 토론에 남성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이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성불평등은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 4) 유럽의 반빈곤 네트워크 European Anti-Poverty Network(EAPN)

EAPN은 1990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중심의 개발원칙을 활용한다. EAPN은 유럽기구들뿐만 아니라 반빈곤 민간단체들과 풀뿌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의 네트워크로서 국가, 지역, 지방차원의 네트워크들로 연계되어 있다.

EAPN의 회원단체들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고립을 끊고 사회적 배제에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APN은 자신들의 활동에서 성주류화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해, 각 EAPN의 사업추진팀과 국별 네트워크와 집행위원회의 업무에 적용해야 할 ‘젠더 입증 가이드라인(gender proofing guidelines)’을 개발하였다. 주요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각 이사회/위원회는 성주류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각 이사회/위원회는 임원구성에서 젠더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각 이사회/위원회는 운영과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 모든 이사회/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 이사회/위원회는 다양성에 대해 포용적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회의 분위기는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허용, 독려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참여증진을 위해 어떠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가?</li><li>(b) 성인지적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가? 만일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가 수정될 수 있을 것인가?</li></ul> |
|---|

- (c) 사업추진팀/국별 네트워크/집행위원회 활동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제가 있는가?
- (d) 만일 있다면, 여성 혹은 남성에게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을 확인하고 제거한 적이 있는가?
- (e) 젠더관계의 변화/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료가 존재하는가? 만일 없다면, 이러한 종류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하고 수집해야 할까?
- (f) 여성과 남성의 기여를 각각 분리하여 반영하는 지표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어떤 지표들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만일 없다면 왜 없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 (g) 젠더를 다루는 절이 EAPN의 연례보고서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이사회/위원회가 회의운영과 업무실행에서 젠더차원을 얼마나 깊숙이 통합시켰는지에 대하여 매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관련 논의는 이론적 차원과 사례 발굴의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론적 측면에서는 주로 공동체 형성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가 공동체의 성공적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가치, 특히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제한적이다. 성평등한 공동체 형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연구와 공동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경로를 연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실제 사례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도 지역(마을)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젠더 이슈를 드러내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공동체 내에서 참여주체에 따른 공동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밴드를 통한 지역내 문화활동 공유, 마을 내에 '사랑방'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이 모이고, 모임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돌봄이 이루어지는 등 공동체를 통한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자녀양육에 있어서 돌봄공동체 형성은 그동안 여성에게만 주어졌던 지역내 돌봄 역할에 있어서 그 배우자인 남편의 참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외의 사례에서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젠더 이슈를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지역개발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역개발 정책이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공통된 신념 - ‘바람직성’ 즉, 공동선에 대한 지향 - 은 그 과정에 내재한 구체적인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평등’ 가치를 드러내고 성평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의 가치는 선택적 가치가 아닌 의무적 가치이며 따라서 강제할 수 있을 만큼 필수적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동등기회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마련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여성 역량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정 밖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맺음과 같이 대외적 관계나 네트워크 역량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필요역량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성인지 의식훈련, 리더십 훈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성평등 달성은 여성에 대한 기회와 참여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파트너십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략적인 파트너십 방안을 함께 고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II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및 영역별 현황분석

1. 사업개요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3. 영역별 사업현황의 성별 특성
4. 사업영역별 추진단계의 성별고려에 대한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I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및 영역별 현황분석

### 1. 사업개요

도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갈등과 소외, 각종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도시의 곳곳에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은 주민 커뮤니티를 와해시키고 이해와 단절로 인한 지역주민간 공동체적 요소가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다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마을공동체'<sup>22)</sup> 복원 사업이 시정의 중심과제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는 2011년 제기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2012년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 제정('12. 3)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설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12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다.

학술세미나(4.30)와 시민토론회(5.8),  
마을공동체 위원회 개최(5.15, 7.10), 공동체위원회 워크숍(6.15),  
자문회의(5.21, 5.31, 6. 20, 6.26, 7. 18),  
시 및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6.21)

22) 마을공동체 사업은 2000년대 초반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이미 시작하였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일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지속가능한 공동체형성 및 발전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음

이렇게 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2013. 3. 15) 이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었으며 전담부서 외에 각 실·국의 사업부서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생활공간인 ‘마을 속’에서 경쟁과 성장 중심의 가치로 인한 피폐한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은 재미와 행복,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과 목표에 따라 3대 과제인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를 두고 각 과제에 따른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코디네이터,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등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주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지역단위의 지역모임과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향과 가치는 공동체 사업의 주체가 행정인 아닌,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마을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마을지향 행정’과 지역기반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상호간 연대와 호혜를 달성한다는 취지의 ‘마을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사업으로는 육아·돌봄, 마을문화공방, 마을미디어, 마을축제, 마을학교 등 공동체 사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뱅크 등 지역단위의 마을경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기반	추진체계	법·제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추진주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부서	
		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전과 목표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3대 과제 10대 전략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참여주체	마을활동가 - 마을오지라퍼 - 마을코디네이터		마을넷 - 자치구 단위의 주민모임 - 자발적 네트워크
	지향과 가치	마을지향 행정		마을경제
	사업내용	마을사업: - 육아·돌봄, - 마을문화공방 - 마을미디어, 마을축제, 마을학교		- 마을공동체 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협동조합 - 마을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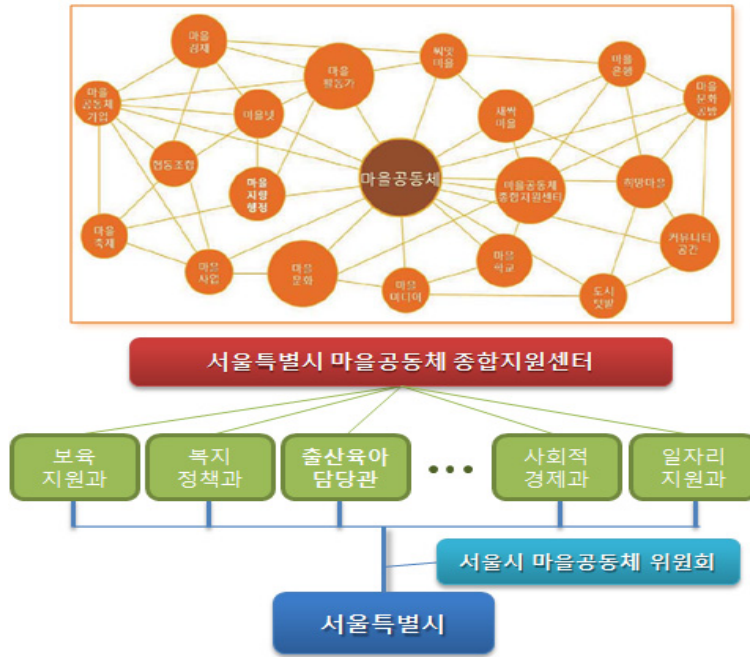
【그림 Ⅲ-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

##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개별화되어 가는 도시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형성에 대한 각종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원체계로 서울시 및 자치구 각 사업부서와 공동체 사업의 방향과 사업선정 기준 등에 대한 주요한 심의기구인 위원회,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며 각 사업부서별 다양한 공동체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마을로 가면 종합적인 생활공간으로 부

서와 칸막이가 없는 복합적 생활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크게 정책기획 및 지원체계와 실제 마을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Ⅲ-2】 서울시·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정부주도 공동체 사업이 갖는 한계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함으로써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정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의 소모임 활성화, 마을주민이 스스로 마을이슈를 제기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가 양성, 마을주민의 일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 등의 운영방안을 특징으로 한다.

### 1) 마을주민, 공동체, 소모임 활성화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서울지역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생성하여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약 85개, 돌봄이나 육아 등을 중심으로 마을단위의 양육공동체를 포함한 초보적 형태의 마을이 240여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마을공동체기본계획, 2012).

공동체의 특징으로 주거형태별로 ‘아파트’ 공동체(9개)가 다수를 차지하며, 독서모임 및 도서관 공동체(6개), 돌봄 및 육아 공동체, 문화·예술(벽화) 공동체 등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동체모습을 볼 수 있다.

Ⅰ 표 Ⅲ-1 Ⅰ 서울시 지역별 마을공동체 현황(2012년 현황)

연번	자치구명	개수	마을명	초보형 태마을
1	종로구	3	품애, 창신 마을넷, 북촌한옥마을	3
2	중구	1	엔질피그 족발쿠기	3
3	용산구	4	해방촌 빈집/빈마을, 동자동 사랑방, 용산생협, 이태원 주민일기	4
4	성동구	4	성수 희망찬 마을, 논골마을, 계화마을, <u>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u>	6
5	광진구	3	화양동 문화마을, 늘푸른가게,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텃밭공동체 마을	11
6	동대문구	6	회기동 벽화마을, <u>동대문 도서관 공동체</u> , 나눔반장활동(푸른시민연대)	11
7	중랑구	-	-	-
8	성북구	6	장수마을, 참길음 나눔마을, 성북나눔연대, 공동육아 행복한 우리어린이집, <u>래미안 석관아파트 도서관 북카페</u> , <u>삼선힐스테이트 아파트 ‘작은 도서관’</u>	15
9	강북구	6	삼각산 재미난 마을, 인수동 능안골, 아름다운 마을, <u>해모로 아파트</u> , 삼양 주민연대, 시소와 그네	14
10	도봉구	7	방학2동 저층주거지, <u>창4동 아파트</u> , 수변형 마을만들기, 마을신문 도봉N, 도봉사람들, 도깨비창	8
11	노원구	7	<u>청구3차 아파트 공동체</u> , 건강마을만들기, 공릉꿈마을, 백사마을, 노원골, 간지마을, 월계동 롯데캐슬 루니아파트	27
12	은평구	6	갈현2동 골목상상마을, 산새마을, 진관내동, 역마을만들기,	11

연번	자치구명	개수	마을명	초보형 태마을
			<u>초록길도서관, 마을엔도서관</u>	
13	서대문구	4	개미마을, 가재울마을, 충현동마을, 남이마을	11
14	마포구	5	성미산마을, 가재트공방마을, 대흥염리동 복합공간, 염리동 창조마을, 신수동 도시텃밭 마을	20
15	양천구	3	모기동 마을만들기, 신월2동, 신정동 아펜하우스	3
16	강서구	1	<u>화곡푸르지오 살맛나는 아파트</u>	7
17	구로구	4	구로동 커뮤니티, 온수동 마을만들기, 수궁동 커뮤니티, 고리 문화예술창작소	19
18	금천구	3	반수마을,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꿈이 피어나는 남문시장	4
19	영등포구	2	문래동 예술창작소,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	8
20	동작구	2	성대골마을, <u>대방동 해맑은 어린이도서관</u>	7
21	관악구	4	대학동 고시촌, <u>삼성동 임대아파트 1,2단지</u>	30
22	서초구	-	-	7
23	강남구	-	-	-
24	송파구	2	파크리오 맘, 즐거운가	4
25	강동구	3	장미마을, 서원마을, 해밀타운	5
	기타	2	수유너머	2
	전체	85	00은 대학	240

자료: 서울특별시(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재구성

## 2) 마을활동가 양성: 청년, 여성, 은퇴자

서울 시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양성계획에 따라 ‘마을아카데미’를 통해 활동가를 양성·교육하고 있다. 특히 마을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주체로 여성, 은퇴시니어, 청년활동가를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가 양성을 시행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설계시 여성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위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은 하루일과 중 마을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주도적인 소통의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보육과 교육, 소비경제의 주체로써 마을일이 대부분 이들을

통해서 이뤄지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영역으로 부모커뮤니티나 양육돌봄 공동체 사업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의 참여와 이들의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 3) 중간지원조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행정의 직접 주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정보제공, 마을간 연계 등을 위한 주체로써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찍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광주광역시 북구 기초자치단체는 2005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처음 설립하였으며, 이후 강원도 강릉시(2008년), 경기도 안산시(2008년)의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9년 전라북도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2012년도에, 부산광역시는 올해인 2013년에 설치하였다.

표 III-2 전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현황

연번	지역구분	자치구	지원센터명	설립연도
1	서울특별시	광역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2
2		성북구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1
3		금천구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3
4	경기도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2008
5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2011
6	전라북도	광역	전라북도마을만들기 협력센터	2009
7		완주군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0
8		정읍시	정읍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2012
9		진안군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12
10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005

연번	지역구분	자치구	지원센터명	설립연도
11		남구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2012
12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	2013
13	부산광역시	광역시	부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3
14	강원도	강릉	강릉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08

출처: 각 시·도 마을지원센터 사이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마을공동체 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2조)는 설립 근거를 두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제23조). 즉,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초조사와 이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마을일꾼 발굴 및 육성, 활동가 교육 및 홍보, 자원관리 등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는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제23조(종합지원센터의 기능)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주민이 주도, 행정은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민관협력을 위한 기본전제는 민과 관이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그동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된 것은 마을주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없이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지원 및 사업추진이 있어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빈



번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이슈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체적으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그로인한 보람을 마을주민이 스스로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 역할에 있어서 마을주민은 행정의 해결해야 할 마을지역의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행정은 마을(지역)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지원·연계함으로써 상호역할을 지원·협력적 관계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3. 영역별 사업현황의 성별 특성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사업지원 방향으로 서울시는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하고 3대 과제로는 사람마을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이며, 각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으로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은 마을활동가의 육성, 마을살이의 중심 주체로서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둘째, 일정한 지역공간을 공유하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활이슈를 찾아 함께 해결하는 ‘마을살이 함께하기’는 마을생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공동체 문화 육성, 이웃돌봄 활성화, 마을경제 활성화, 에너지 절감마을 조성의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존의 정부주도의, 행정중심의 주민은 단지 구성원과 사업의 수혜자로서 수동적 지위와 역할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중심의, 마을지향 행정을 위한 민과 관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며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마을지향 민-관협력 거버넌스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민주도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현장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 마을지향 행정시스템 정

작을 내용으로 한다.



■ 그림 Ⅲ-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3대과제와 10대 전략

'12년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1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체 문화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10개, 이웃 돌봄 전략에 해당되는 사업이 3개, 에너지 절감 1개, 기타 1개로 공동체 문화육성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거점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기본계획에 따른 3대과제와 10대 전략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 표 Ⅲ-3 ■ '12년 및 '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분야 및 예산현황

연번	10대 전략	사업명	2012년 실적		2013년 (계획)	비고
			선정단체 (혹은 모임)	예산(천원)	예산(천원)	
0		전 체	329	5,254,631	22,203,000	
1	돌봄	부모커뮤니티(1차) 부모커뮤니티(2차)	76개 64개	406,799 185,197	1,000,000	
2	돌봄	돌봄지원	10개	84,250	610,000	'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연 번	10대 전략	사업명	2012년 실적		2013년 (계획)	비고
			선정단체 (혹은 모임)	예산(천원)	예산(천원)	
3	공동체문화	청소년 휴카페	17개	530,000	500,000	
4	공동체문화	마을예술창작소	23개	1,319,254	2,088,000	
5	공동체문화	마을북카페조성지원	19개	943,622	2,500,000	
6	공동체문화	마을안전망구축(1차)	25개	117,000	1,000,000	
		마을안전망구축(2차)	21개	61,000		
7	공동체문화	건강친화마을	2개	540,000	-	
8	공동체문화	농어촌체험마을간 교류사업	4개	13,020	-	
9	공동체문화	취약계층자활(1차)	2개	95,000	100,000	'13년 다문화공 동체 활성화
		취약계층자활(2차)	4개	349,700		
10	공동체문화	세대통합 마을공동체	10개	165,285	-	
11	돌봄	장애인 마을공동체	2개	19,829	-	
12	공동체문 화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21개	169,175	615,000	
13	에너지절감	에너지 자립마을	7개	105,000	300,000	
14	공동체문화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4개	17,000	73,000	
15	마을경제	마을기업 활성화	-	-	6,298,000	'13년 신규
16	마을경제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	-	300,000	〃
17	인력양성	청년마을 활동 활성화	-	-	228,000	〃
18	공동체문화	아파트마을 공동체 활성화	-	-	1,301,000	〃
19	인력양성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	-	2,430,000	〃
20	인력양성	우리마을 프로젝트	-	-	382,000	〃
21	기반조성	기타	18개	133,500	2,478,000	'13년 6개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참조

마을공동체 사업분야는 공동체의 주요이슈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3년도 사업분야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중장기 전략방향에 따라 사업분야를 통합·정리하여 보다 체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년 사업분

야는 10개 사업이 공동체 문화와 관련한 것이고, 돌봄 2개와 기타 3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나, '13년도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3대 과제와 전략방향에 맞도록 사업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2개, 돌봄 2개, 마을경제 3개, 공동체 문화 8개 사업, 그리고 마을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1개로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표 Ⅲ-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성

(단위: 개)

구분	전체	인력양성	마을살이(공동체의 문제와 해결)				인프라 구축 (주민참여 활성화)
			돌봄	마을경제	공동체 문화	기타	
2012년	15	-	2	-	10	3	
2013년	16	2	2	3	8	-	1

16개 사업 분야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분야별로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분야별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과제와 전략을 담아 각 분야별 사업의 성별이슈와 특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네 개 사업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창조적 활동가 양성으로 인력양성 사업 1개(활동가 아카데미), 마을살이의 주요사업인 돌봄(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활성화)과 사회적 경제(마을기업활성화) 각 1개, 그리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사업과 우리마을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분석하고자 한다.

【 표 Ⅲ-5 】 사업분야별 심층적 분석대상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특성	분석내용
인력 양성분야	- 상담원 양성	- 마을활동가 양성사업으로 마을활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육성 - 청년, 여성, 은퇴어르신 등	-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 - 교육프로그램 내용 분석
돌봄분야	- 부모커뮤니티 - 공동육아활성화	- 자녀양육문제 해결과 올바른 부모 역할 실현하기 위한 부모커뮤니티지원, 지역양육환경조성 목적 -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실현	- 사업선정기준 - 사업참여자 성별 특성 - 커뮤니티 프로그램 특성분석
마을 경제분야	- 마을기업 활성화	- 인큐베이터 운영 - 성장단계별 지원: 씨앗기-교육, 팀워크숍, 조사·의제개발지원, 사업비, 임대보증금 지원	- 사업참여자 성별 분석 - 성별, 업종별 분석
인프라 구축분야	- 우리마을프로젝트 - 주민제안사업	- 기존마을공동체 사업의 공동체활동지원: 마을자원조사, 마을테마 조성 등	- 사업참여자 성별 분석 - 제안사업 및 프로그램 분석



### 1) 창의적 활동가 양성사업: '마을아카데미'

서울시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의 구석구석 크고 작은 문제를 찾아내어 마을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주체인 '마을활동가'<sup>23)</sup>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 기존의 활동가로 활동하는 310명외에 '12년 190명, '13년 400명, '14년 480명 등 지속적인 활동가 발굴 및 양성을 통하여 2017년까지 3,000여명의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242백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3)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를 '주민과 함께 마을활동을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표 III-6 】 마을활동가 양성계획

구분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명)	3,180	500	400	480	600	600	600
예산(백만원)	1,242	72	199	224	249	249	249

출처: 서울시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반주민, 활동가 양성, 행정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같이 대도시에서의 생활은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경쟁사회에서 과중한 일과 사람에 치여 생활이 개별화되고 자기의 문제이외에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에 여력이 없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의 핵심주체로 마을에 살며 주민과 소통하고 생각을 모아내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핵심주체는 하루일과 중 마을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년, 여성, 은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 '12년과 '13년 마을활동가 교육은 '마을공동체 교육' 사업내 다양한 대상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참여자 실적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대상의 범주는 크게 네 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 주민교육, 촉진자 교육(퍼실리테이터), 주체별 마을살이 교육으로 활동가 양성교육, 자치구별 순회 마을활동가 워크숍 및 명사특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12년과 '13년 1500명씩 총 3044명이 마을공동체 교육에 참여하였다. 행정의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은 총연인원 약 4,700명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인원보다 훨씬 많다. 한편, 활동가 양성교육은 전체 시민교육 중 약 18%를 차지하여 '12년 200명, '13년 300명으로 총 540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 표 III-7 】 '12, '13년 마을활동가 양성 실적

(단위: 명)

구분	합계	실적		비고
		'12	'13	
합계	3,044	1,524	1,520	*공무원

구분	합계	실적		비고
		'12	'13	
				4,469명
일반주민교육	1400	700	700	
주체별 마을살이(청년,여성)	540	200	340	
우리마을프로젝트 촉진교육	264	24	240	
순회교육,활동가워크숍	840	600	240	

자료: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내부자료, 2013.

마을공동체 교육은 공동체의식 함양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마을공동체 담당자 뿐 아니라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사업소 등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 및 활동능력 있는 대상에 대한 활동가 양성교육이 함께 추진되었다. 한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은 모두 6개 과정, 78시간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 타시도 마을공동체 우수기업 정책현장 탐방, 사회적 경제 이해, 사회적 경제 실천체험, 주택행정: 도시만들기 현장탐방 및 아파트 공동체 탐방 등 주로 사례교육과 탐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은 마을공동체를 확산하는데 보다 기술적인 사례중심의 실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가지는, 공동체를 통한 가치실현의 문제와 같이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은 할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8 】 인재개발원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과 정 명	교육시간	총인원	대상	횟수
합 계	78	580	-	13
① 마을공동체만들기 실무 (공유경제와 마을공동체, 사업이해, 현장탐방, 워크숍등)	21	20	6급 이하	1회
② 타시도 마을공동체 우수기업 정책 현장 탐방	27	400	5급	4회

과 정 명	교육시간	총인원	대상	횟수
③ 사회적 경제 이해(협동조합, 사례로 배워보기), 사회적경제의 이해	7	60	5급이하	2회
④ 사회적 경제 실천 체험	6	60	5급이하	2회
⑤ 주택행정: 도시마을만들기 현장탐방 및 아파트공동체 탐방	7	20	5급이하	1회
⑥ 서울시정연수: 일자리정책실습	7	20	타시도	3회

자료: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내부자료, 2013.

## 2) 복지(돌봄):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전통적으로 출산·양육은 개인의 문제였으나 오늘날 ‘돌봄’은 공공적 해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돌봄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보육예산의 규모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 및 보육정책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만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자녀양육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현재의 보육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의 돌봄은 생활공간으로써 공동체의 몫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커뮤니티 사업이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같은 돌봄 사업은 중요한 마을살이의 사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부모커뮤니티를 지원,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 약 1,000여개의 모임(단체)의 활동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임(단체포함)은 총 140개로 1차 76개, 2차 64개가 참여하였고, 총 지원금액은 592백만원이다. '13년은 지원대상 모임(단체)가 전년도에 비해 52.9%가 증가한 214개 모임이 선정되었고, 예산 역시 전년도의 약 52%가 증가한 900백만원으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9】 '12년 부모커뮤니티 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총 계	1차	2차	총 계	1차	2차
선정단체 수 (모임, 단체)	140	76	64	214	167	47
지원금액 (백만원)	592	407	185	900	689	211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

돌봄사업으로써 부모커뮤니티 사업에서 제기할 수 있는 성별 이슈는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공동체로써 지역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모임 대표와 구성원의 성별구성, 그리고 연령별, 성원의 특성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선정모임(단체)의 특성을 구성연도, 구성성격,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으로 파악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참여주체의 특성

주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12년도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구성 특성을 보면 구성기간이 2년 이상 비율이 60%로 이미 마을에서 육아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 성격에 있어서도 단체나 기관을 통한 커뮤니티 구성보다는 소규모의 공동의 돌봄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조모임의 비율이 5/3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을 볼 때, 이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공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씨앗단계에 있는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시작과 함께 크고 작은 모임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0】 2012년도 부모커뮤니티 선정단체의 구성특성

구 분		빈도(개)	비율(%)
전 체		140	100.0
구성기간	2년 미만	56	40.0

구	분	빈도(개)	비율(%)
구성성격	2년 이상	84	60.0
	자조모임	85	61.0
	단체·기관	55	39.0
성장단계	씨앗단계	74	52.0
	새싹단계	29	21.0
	줄기단계	28	20.0
	기타	9	7.0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 재구성

모임이나 구성원의 성별 특성분석과 관련하여,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양성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부모커뮤니티 사업 참여 모임의 성별 특성은 아버지, 어머니 양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겨우 50%를 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절반가량의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서 가정과 지역에서 출산과 양육활동의 주체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2년)에서 조사한 ‘서울부모커뮤니티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99개의 부모커뮤니티 관련 자조모임을 포함한 관련 단체 중 참여자 유형으로 아버지 참여자가 37.2%인데 반해 어머니 참여자가 94%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참여자가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돌봄공동체 참여의 성별 비율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sup>24)</sup>(서수경외, 2012).

## ② 부모커뮤니티 및 공동육아 추진실적 및 내용분석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내용은 자녀양육 등 돌봄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인 ‘부모모임’ 지원 사업이 ‘12년과 ‘13년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각 12.9%, 23.0%), 다음은 지역봉사인데 ‘13년도 지역봉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율이 19%로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내 ‘돌봄’

24) 참여자 구분을 어머니 및 아버지 참여자로 한정하지 않고, 한부모, 예비부모, 조부모, 다문화부모 등으로 구분하여 중복응답을 허용함으로써 전체 응답자 중 아버지 참여자 비율이 37%로 나타났다

활동이 이웃과 지역에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주로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양육을 계기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자녀양육과 마을활동이 연계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양육의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역사회 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11 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상반기)	
	빈도(개)	비율(%)	빈도(개)	비율(%)
계	140	100.0	167	100.0
부모교육	14	10.0	26	15.0
부모모임	18	12.9	39	23.0
문화활동	16	11.4	23	14.0
독서활동	17	12.1	21	13.0
자녀교육 활동	18	12.9	26	16.0
지역봉사	9	6.4	32	19.0
활동가 양성	10	7.1	-	-
기타 (취약계층, 환경, 방과후활동)	38	27.1	-	-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

한편,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은 지역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 및 일상생활공간의 활용으로 주민참여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사업 방향을 갖고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구축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성장단계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3년까지 총 20개 단체(모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년도 15개 단체 중 사업비 지원하는 12개 단체는 평가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표 Ⅲ-12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구분	계	2012년	2013년	비고
지원사업	20개	15개	8~10개 단체	'12년도 사업평가후 재지원결정
사업비 지원		12개 단체	상반기 7개 사업 선정	새싹 및 줄기단계
인큐베이팅		3개 단체		씨앗단계(커뮤니티 활성화단계)
예산액	713,056천원	113,056천원	600,000천원	

③ 사업선정 기준 검토

사업선정 기준은 많은 사업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걸러내는 장치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이 결정되므로 선정기준을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념과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사업의 적합성, 적정성, 기대효과가 공동체의 가치와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어떠한 요소를 담고 있는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10명의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조건도 두고 있지 않다.

【 표 Ⅲ-13 】 돌봄공동체 사업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구분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활성화	비고
심사위원의 구성	- 10명 내외 (민간위원 50%이상)	- 10명 내외(민간위원 50% 이상) * '13마을공동체 담당관 표준절차 안	*위원구성의 성별 고려 없음
선정심사기준	- 1단계: '센터'현장조사,자치구의견서(적합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 - 2단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단체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기대효과 등 - 3단계: 전체심사위원회 집합심사	- 준비된 집단 or 단체에 우선지원, but 자조모임 공동체·임대주택 단지를 배려 - 평가: 3단계 평가	*성인지적 관점 반영 기회 없음

### 3) 마을경제: 마을기업 활성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업은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온 ‘마을기업’(행정안전부)과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소비경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동조합원리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첫째, 마을필연성이다. 즉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다. 둘째,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보충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립성을 담보하는 자립가능성이다. 셋째, 마을의 공공복지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다루고 마을에 대한 수익 일부를 재투자함으로써 지역환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기업활성화 사업은 '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존 정부의 마을기업 사업과 차별화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상시접수를 원칙으로 하는 ‘등록제’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마을기업 사업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고 공모·선정하는 방식이라면, 마을공동체기업은 주민이 스스로 요구를 파악하고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과 준비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성장하는 과정과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인큐베이터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다. 마을경제에 관심을 갖는 주민이 마을(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기업 육성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주민의 다양한 수준과 진입 경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마을조사, 의제발굴, 팀워크숍, 창업기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 <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업의 지원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씨앗기 단계는 마을공동체에서의 기업활동에 관심을 갖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역 의제개발을 위한 조사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한다. 이후 창업기나 안정기 단계에서는 ‘서울형 마을공동체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 공간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 Ⅲ-14】 서울시마을공동체기업 지원체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타
씨앗기	주민누구나	씨앗기 교육 및 의제개발비, 조사지원비 (각 최대 100만원 지원)	플랫폼에 등록
창업기 · 안정기	마을필연성, 자립도, 공공성 갖춘 마을공동체 기업	컨설팅 및 교육	플랫폼에 등록
	- 이용자가 취약계층이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경우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한도) → 상환조건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출처: 서울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내부자료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기 위해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은 2013년 9월 현재 총 335개 이며, 스토리 등록 단체 362개, 필수교육 이수 모임(단체) 328개 이나, 본격적인 조사교육과 의제교육을 거친 모임(단체)는 각 21개,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5】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등록 및 지원프로그램 참여 현황(2013. 9월 현재)

연번	자치구명	마을기업 수	발전단계					
			스토리	필수교육	조사교육	의제교육	팀워크숍	마을기업
	총계	335(개)	362	328	21	9	0	0
1	서울시	2	2	2	1	0	0	0
2	종로구	15	16	10	0	0	0	0
3	중구	7	7	5	0	0	0	0
4	용산구	11	11	13	1	0	0	0
5	성동구	6	7	9	0	0	0	0
6	광진구	8	8	9	2	1	0	0
7	동대문구	10	10	11	1	1	0	0
8	중랑구	7	7	12	2	1	0	0
9	성북구	12	13	14	1	1	0	0
10	강북구	11	13	9	0	0	0	0

연번	자치구명	마을기업 수	발전단계					
			스토리	필수 교육	조사 교육	의제 교육	팀워크 습	마을 기업
11	도봉구	23	23	23	0	0	0	0
12	노원구	14	14	11	1	0	0	0
13	은평구	21	26	27	2	1	0	0
14	서대문구	12	14	13	0	0	0	0
15	마포구	23	24	19	0	0	0	0
16	양천구	18	26	14	2	2	0	0
17	강서구	11	11	9	1	0	0	0
18	구로구	13	13	13	2	1	0	0
19	금천구	7	7	8	3	1	0	0
20	영등포구	12	13	14	0	0	0	0
21	동작구	10	10	6	0	0	0	0
22	관악구	10	10	12	1	0	0	0
23	서초구	15	15	14	0	0	0	0
24	강남구	20	21	17	0	0	0	0
25	송파구	21	22	20	1	0	0	0
26	강동구	16	19	14	0	0	0	0

출처: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마을기업 현황 재구성.

한편, 실제 서울시 마을기업 씨앗기 프로세스의 선정단체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모두 64개 단체(모임)가 선정되었으며, 공간지원 선정기업 35개(54.7%), 사업비 지원 선정기업 29개(45.3%)로 공간지원 선정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마포구가 총 8개 선정되어 가장 선정기업수가 많았으며(12.5%), 다음이 용산구 5개(7.8%), 성북구 4개(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6 '13년 마을공동체 기업의 선정현황

(단위: 개, %)

연번	자치구명	기업수 (단체수)		지원유형			
				공간지원		사업지원	
-	총 계	64	100(%)	35	100(%)	29	100(%)
1	종로구	3	4.69%	1	2.86%	2	6.90%

연번	자치구명	기업수 (단체수)		지원유형			
				공간지원		사업지원	
2	중구	2	3.13%	1	2.86%	1	3.45%
3	용산구	5	7.81%	3	8.57%	2	6.90%
4	성동구	2	3.13%	1	2.86%	1	3.45%
5	광진구	3	4.69%	1	2.86%	2	6.90%
6	동대문구	3	4.69%	-	-	3	10.34%
7	중랑구	1	1.56%	1	2.86%	-	-
8	성북구	4	6.25%	3	8.57%	1	3.45%
9	강북구	2	3.13%	2	5.71%	-	-
10	도봉구	2	3.13%	2	5.71%	-	-
11	노원구	2	3.13%	1	2.86%	1	3.45%
12	은평구	4	6.25%	2	5.71%	2	6.90%
13	서대문구	3	4.69%	2	5.71%	1	3.45%
14	마포구	8	12.50%	4	11.43%	4	13.79%
15	양천구	1	1.56%	-	-	1	3.45%
16	강서구	2	3.13%	2	5.71%	-	-
17	구로구	1	1.56%	1	2.86%	-	-
18	금천구	2	3.13%	1	2.86%	1	3.45%
19	영등포구	1	1.56%	-	-	1	3.45%
20	동작구	5	7.81%	3	8.57%	2	6.90%
21	관악구	2	3.13%	1	2.86%	1	3.45%
22	서초구	2	3.13%	1	2.86%	1	3.45%
23	강남구	1	1.56%	1	2.86%	-	-
24	송파구	2	3.13%	1	2.86%	1	3.45%
25	강동구	1	1.56%	-	-	1	3.45%

자료: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마을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2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36%), 다음이 돌봄 14개(22%), 카페운영 5개(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기업 운영업체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약 63%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47%를 차지하여 여성 참여가 약 16%p 높다. 평균지원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마을식당인 반면, 가장 낮은 업종은 유통업으로 23,33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지원액이 가장 많은 마을식당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더 많은 반면, 가장 낮은 업종인 유통업은 여성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마을기업의 주요 업종은 제조업과 돌봄 업종으로 전체의 65%를 넘고 있는 반면, 남성역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29.2%), 다음이 돌봄 16.7%, 마을식당 및 숙박 1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마을기업과 같이 소규모에 업종에 있어서도 여성이 접근하기 용이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7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업체의 업종별, 성별 현황

연번	업종	기업체수		성 별				평균지원액 (천원)
				여성		남성		
	총 계	64	100(%)	40	100(%)	24	100(%)	57,219
1	제조	23	35.9%	16	40.0%	7	29.2%	54,717
	제조(공방)	9	-	5	-	4	-	55,556
	제조(식품)	6	-	6	-	0	-	57,667
	제조(봉제)	4	-	3	-	1	-	40,000
	제조(기타)	4	-	2	-	2	-	63,125
2	돌봄	14	21.9%	10	25.0%	4	16.7%	67,143
3	카페운영	5	7.8%	3	7.5%	2	8.3%	65,840
4	마을식당	4	6.3%	1	2.5%	3	12.5%	82,500
5	문화예술	3	4.7%	2	5.0%	1	4.2%	30,000
6	유통	3	4.7%	2	5.0%	1	4.2%	23,333
7	숙박	3	4.7%	0	0.0%	3	12.5%	60,000
8	교육	2	3.1%	2	5.0%	-	-	55,000
9	안마서비스	2	3.1%	2	5.0%	-	-	75,000
10	기타	5	7.8%	2	5.0%	3	12.5%	40,860

자료: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 4) 주민참여: 주민제안사업, 우리마을 프로젝트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 분야와 영역이 정해져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

제 주민이 관심을 갖는 마을이슈를 찾아 기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유 공모제 형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제안사업’이나 ‘우리마을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마을주민들이 삼삼오오 이슈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서울시 '13년도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126개 사업의 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사업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축제나 공연에서부터, 판매, 건강, 돌봄, 네트워크, 장례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은 마을축제 및 공연이 31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커뮤니티 공간 사업으로 15개(12%), 마을학교 13개(10.3%), 체험 프로그램 10개(7.9%), 마을탐방 9개(7.1%)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기록을 남기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같은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평균지원예산액 규모는 마을축제 및 공연사업이 가장 사업비가 낮은 5,423천원이었으며, 가장 지원금액이 큰 사업은 공간사업으로 사업당 평균 35,000천원으로 분석되었다.

【 표 Ⅲ-18 】 '13년도 사업유형에 따른 주민제안사업 선정현황

연번	사업유형	사업개수		평균지원 예산액(천원)
	총 계	126	100(%)	15,803
1	마을축제·공연	31	24.6%	5,423
2	커뮤니티 공간	15	11.9%	35,122
3	마을학교	13	10.3%	15,264
4	체험프로그램	10	7.9%	10,057
5	마을탐방	9	7.1%	8,782
6	생태계 조성사업	6	4.8%	19,500
7	카페운영	6	4.8%	34,137
8	도서관	5	4.0%	31,115
9	마을소식지 나눔 및 발간	5	4.0%	12,183
10	공동 먹거리 나눔	4	3.2%	18,980
11	전시, 판매	4	3.2%	12,125
12	주민건강	3	2.4%	9,752
13	부모교육, 육아	4	3.2%	20,456

연번	사업유형	사업개수		평균지원 예산액(천원)
14	가족프로젝트	2	1.6%	5,628
15	문화예술	2	1.6%	4,050
16	마을 장례 진행	2	1.6%	2,000
17	네트워크(단체 네트워킹, 홍보)	1	0.8%	18,928
18	마을 다큐멘터리 제작	1	0.8%	12,600
19	마켓운영	2	1.6%	20,000
20	주민 참여 방송 프로젝트	1	0.8%	13,500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실 내부자료, 재구성.

한편 '우리마을프로젝트'(우마프)의 경우, '13년도 총 15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은평구 15개, 영등포구 12개, 금천구와 노원구 각 1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표 III-19 】 자치구별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 선정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수	비율
	총 계	156	100%
1	종로구	8	5.1%
2	중구	2	1.3%
3	용산구	7	4.5%
4	성동구	5	3.2%
5	광진구	5	3.2%
6	동대문구	5	3.2%
7	중랑구	4	2.6%
8	성북구	5	3.2%
9	강북구	5	3.2%
10	도봉구	7	4.5%
11	노원구	11	7.1%
12	은평구	15	9.6%
13	서대문구	6	3.9%
14	마포구	7	4.5%
15	양천구	7	4.5%
16	강서구	3	1.9%

연번	자치구	사업수	비율
17	구로구	3	1.9%
18	금천구	11	7.1%
19	영등포구	12	7.7%
20	동작구	10	6.4%
21	관악구	7	4.5%
22	서초구	2	1.3%
23	강남구	1	0.6%
24	송파구	1	0.6%
25	강동구	7	4.5%

사업영역별로 크게 경제, 돌봄, 문화, 주거 및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문화 영역으로 분류된 사업이 79개로 절반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타영역을 제외하고 ‘돌봄’이 1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마프’ 사업은 사업예산 규모가 전체 평균 2,116천원이며 각 영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Ⅲ-20 】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영역별 선정현황

연번	사업영역	사업수(개)/비율(%)	평균지원액(천원)	
	총 계	156	100%	2,116
1	경제	9	5.8%	2,411
2	돌봄	26	16.7%	2,131
3	문화	79	50.6%	2,141
4	주거	7	4.5%	1,257
5	기타	35	22.4%	2,146

출처: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재구성.

#### 4. 사업영역별 추진단계의 성별고려에 대한 시사점

이상과 같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영역별 추진현황 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사업의 성별특성이나 성별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

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업추진단계는 사업영역별 사업기획 및 선정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실제 사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참여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업평가 단계는 회계정산과정과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각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설계가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영역별 사업기획 및 선정단계의 성별 고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부문이나 혹은 영역에 따라 사업공모 및 지원과정을 거쳐 다수의 제안사업 중 기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의 사업선정 기준과 심의·선정 위원회의 성별 특성을 통해서 사업기획과정의 성인지적 고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활동가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계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외에 활동가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활동가 양성을 위한 타겟그룹을 청년, 여성, 은퇴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집단특성 상 낮시간 동안에 지역이나 마을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비교적 긴 집단층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마을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복지영역으로 돌봄사업인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 자녀양육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역할 실현과 지역양육환경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선정과정과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사업선정 기준은 적합성, 적정성, 기대효과 등 추상성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특히 2단계에서 사업참여단체의 수행능력이나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적인 기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을 뿐 참여자나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기준은 명시되고 있지 않다. 한편,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 수와 민간위원 비율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마을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은 마을지역 내 자립과 함께 지역내 경제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방법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 기업의 참여자의 인적특성(성별, 연령별, 전공이나

학력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방향이나 내용은 명시되고 있지 않다. 사업의 선정 기준은 돌봄사업 영역과 같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적합성 등 행정적 지침이나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역시 사업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공동체사업의 정형화된 영역이외의 다양한 지역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특히 지역의 자원이나 스토리 형성과 같이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찾아내어 공동체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유주제 공모방식이다. 이 사업 영역 역시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사업선정기준과 지침에서 성별 고려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 2)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자 및 참여자의 성별 비율을 파악하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의 하나이다.

먼저 활동가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활동가 양성 대상 집단을 청년, 여성, 은퇴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총체적인 인력양성 규모만 제시되고 있을 뿐 각 대상집단별로 성별, 연령별 등 활동가 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총 수만 나타나 있고, 성별 현황자료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모집과 선발에서 각종 서식 자료의 성별, 연령별 기초정보를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별 현황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 복지영역으로 돌봄사업인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 성별 비율 역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특히 돌봄 영역의 사업은 3인이상의 주민이 단체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부모커뮤니티 사업참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참여자의 성별비율은 여성참여자가 대부분이며, 남성 참여자는 1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사업의 성별 편향성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등 돌봄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이 마을과 지역으로 그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돌봄의 사회화를 실

현하기 위해서는 남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은 성장단계별로 참여자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먼저, 모든 마을공동체 기업은 서울시의 ‘마을기업’ 홈페이지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자료 중 성별 정보가 명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사업 역시 단체 혹은 모임단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각각 성별 정보를 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일정단계를 거친 후 마을공동체 기업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단체나 모임의 현황을 대표자 성명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는 여성이 약63%, 남성 37%로 여성이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마을공동체 기업의 성별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자 및 참여자 각각에 대한 성별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안사업 참여자의 성별 현황 역시 파악할 수 없었다.

### 3) 프로그램 내용의 특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용은 이미 사업 영역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나, 각 사업영역의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성인지성에 대한 고려와 관점 여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활동가 양성사업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양성사업으로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나 강좌 외에 워크숍이나 간담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하여 활동가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동체만들기 실무(사업이해, 현장탐방, 워크숍 등)를 중심이며, 특히 타시도의 사례경험을 배우기 위한 현장탐방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27시간). 마을이나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지역 구성원에 대한 특성파악과 이들의 수요와 요구에 기초한 사업발굴 등 공동체 목표확인과 공동체의 가치실현을 위한 동기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체 사업이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복지영역으로 돌봄사업인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내용은 부모교육, 부모모임, 문화활동, 독서활동, 자녀교육활동, 지역봉사, 활동가 양성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교육이나 부모모임은 엄마와 아빠가 공동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부모역할에 대한 성별적 특성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강좌가 대부분 문화활동이나 독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화나 특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마을공동체 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기업의 직·업종에 대한 분석결과, 제조업, 돌봄, 카페나 식당운영, 문화예술, 유통, 숙박, 교육 등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과 돌봄 업종에서, 남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식당, 숙박, 기타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특성은 성별 우세업종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나 지원방법 등을 특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대목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제안사업의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업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면, 축제나 공연(문화예술), 부모교육이나 육아(돌봄), 문화예술, 마켓운영(마을기업) 등은 기존의 사업영역과 유사하여 사업영역을 구분한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 IV

##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및 참여자 조사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활동가 조사결과 분석
3. 사업참여자 조사결과 분석
4. 일반시민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5. 조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V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및 참여자 조사결과 분석

## 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이 과연 어떠한 성별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참여주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추진과 관련한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 특성 중 하나는 마을주민으로써 ‘활동가’를 통해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마을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가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을일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을 찾아내고, 그 지역에 주요 마을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와 관점, 지향은 결국 마을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성평등 의식, 지향, 관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자 조사이다. 서울시가 올해 총 16개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실제 참여하면서 느끼는 성별 이슈 및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젠더문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각 마을지역의 주민이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주민에 대한 조사이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공동체 주체로써 성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대상자에 대한 설문 조사의 목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 및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성별 특성으로 인한 차이를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다른 정부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공동체 사업은 특히 사회적 연대형성, 공동체 회복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나 참여자의 성별 특성에 따라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체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나 인식정도, 사업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조사설계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마을활동가, 마을사업 참여자, 마을주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동가 대상 FGI를 통해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동가로 참여하는 사람을 조사하였다.

#### 【마을활동가】

-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사람
-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돕는 사람
- 먼저 한 경험을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에 나눠주는 사람
-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촉진자, 링커, 컨설턴트, 조력자 등
- 이렇게 개념정의 했을 때, 상담사,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강사, 퍼실리테이터 등이 포함됨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상담원, 인큐베이터, 컨설턴트, 강사, 지역별 마을넷 활동가 등을 포함하는데 활동가는 연인원 200여명에 이르나 이 가운데는 1명이 1개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다. 202명의 모집단 중 응답자는 총 98명으로 응답율은 48.5%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는 16개 분야의 사업 중 본 연구에서 주요 사업영역으로 선정한 네 개 분야 사업 참여자 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네 가지 사업영역으로는 돌봄, 마을기업, 인력양성 사업, 주민제안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여사업자 수는 359개(혹은 모임)이다. 참여자 수 역시 1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참여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사업참여자 359개 중 응답자는 94명으로 응답율은 24.2%이다.

표 IV-1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 모집단 규모 및 응답자 율

구 분		대상자 수(개)	응답자수
총 계		461	192(34.5%)
활동가	상담원	47	98(48.5%)
	인큐베이터	25	
	컨설턴트	20	
	마을공동체교육 강사	10	
	마을넷	100	
	소계	202	
마을사업 참여자	부모커뮤니티	200	94(26.2%)
	마을기업	64	
	인력양성	45	
	주민제안/우리마을프로젝트	50	
	소계	359	

셋째, 마을주민은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시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비례할당 표집에 따라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표 IV-2】 일반시민 대상 특성별 사례 수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	100.0
성별	여성	100	50.0
	남성	100	50.0
연령	20대	40	20.0
	30대	50	25.0
	40대	50	25.0
	50대 이상	60	30.0
거주지	도심권	40	20.0
	강북동	40	20.0
	강북서	40	20.0
	강남서	40	20.0
	강남동	40	20.0
결혼여부	결혼	129	64.5
	미혼	71	35.5
직장 여부	자영업	15	7.5
	정규직(시간제)	47	23.5
	정규직(풀타임)	69	34.5
	계약직	14	7.0
	일용/임시직	7	3.5
	일하지 않음	48	24.0

##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웹프로그래밍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온라인 설문 응답율이 저조하여,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 추진하였다.

## (3) 조사내용

공통질문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결혼유무, 자녀여부와 자녀연령, 직업, 거주지 및 주택형태
마을활동가	○ 성평등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활동 목적과 동기</li> <li>- 사업참여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반영여부</li> <li>- 성평등 및 성인지의식교육 참여실태</li> <li>○ 마을활동 참여 실태의 성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경력, 활동분야, 활동실태(활동시간, 시간대 등)</li> </ul> </li> <li>○ 활동가의 역량에 대한 성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의 역량에 대한 평가</li> <li>- 활동가의 자율성, 보상체계에 대한 만족도</li> </ul> </li> </ul>
사업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동기와 목적</li> <li>-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가치 반영에 대한 인식</li> </ul> </li> <li>○ 마을활동 참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분야, 참여기간, 평균 참여시간 및 활동일수, 참여의 애로사항</li> </ul> </li> <li>○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실현에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li> <li>○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li> </ul>
일반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사업 인지도: 인지경로</li> <li>○ 사업참여 의향</li> <li>○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li> </ul>

### 3)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활동가 설문은 총98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사업참여자의 응답자 수는 총 94개로 나타났다. 활동가 설문의 응답자 성별은 여성 58.2%, 남성 41.8%로 여성응답비율이 17%p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참여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78.7%, 남성 21.3%로 여성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3~40대 구간의 활동가 비율이 42.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4~50대 구간 37.5%, 50대 12.5%의 순이며 30세 미만 활동가는 3%, 60대 이상 활동가는 4%로 젊은 층과 고령층 활동가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사업참여자의 연령별 비율은 4, 50대 비율이 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3, 40대가 26%, 5, 60대 13%로 활동가에 비해 사업참여자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활동가는 마을활동에 보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마을사업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이와 같은 특징은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령요소가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결혼여부와 관련하여 활동가는 결혼 72%, 미혼 28%로 나타났으며, 자녀 수에서 ‘없음’ 비율이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하고도 자녀가 없는 사례가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수는 2명이 약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명 11.8%, 3명 7.5%, 4명 이상 2.2%로 3명 이상도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참여자는 결혼 86.2%, 미혼 13.8%로 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명 17%로 2명까지가 71%를 차지하여 활동가에 비해 2명이하의 자녀 수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 없음은 13.8%로 활동가 39%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자녀수로 볼 때에도 활동가는 사업참여자에 비해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마을활동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가정적 여건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가의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이전 연령인 7세 미만까지 17.5%인데 반해 사업참여자의 첫째 자녀연령은 7세 이하까지 62.5%로 사업참여자 자녀연령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참여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첫째 14.95세(N=81, SD. 9.146), 둘째 자녀 평균 연령은 12.17세(N=64, SD. 8.739), 셋째 자녀 평균 연령은 11.71세(N=14, SD. 11.214)로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응답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IV-3 】 활동가의 자녀연령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0~4세	6	10.5	10	21.7	4	44.4
5~7세	4	7.0	2	4.3	1	11.1
8 ~13세	12	21.1	10	21.7	1	11.1
14~19세	15	26.3	13	28.3	3	33.3
20세 이상	20	35.1	11	23.9	-	-
합계	57	100.0	46	100.0	9	100.0



【 표 IV-4 】 마을사업 참여자의 자녀연령

구분	계	첫째		둘째		셋째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0~4세	20(100.0)	5	25.0	11	55.0	4	20.0
5~7세	24(100.0)	9	37.5	13	54.2	2	8.3
8 ~13세	55(100.0)	31	56.4	20	36.4	4	7.3
14~19세	27(100.0)	17	62.9	8	29.6	2	7.4
20세 이상	33(100.0)	19	57.6	12	36.4	2	6.1

활동가의 살고 있는 거주지와 관련하여 강북동이 32.7%, 강남서 25.5%, 강남동 23.5%, 강북서 1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도심권이 거주지인 활동가는 1명만이 응답하고 있다. 주택형태와 관련하여, 아파트( 45.4%)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형태(44.3%)가 거의 90%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단독주택이 약 8%, 기타 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참여자 거주지는 활동가와 동일하게 강북동이 43%(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강남서 20.4%, 강남동 15.1%, 강북서 10.8%, 도심권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심권 응답자가 적은 것은 도심권은 종로, 중구, 용산구 세 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본사 등이 위치한 상업지역으로 거주인구가 적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표 IV-5 】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활동가		사업참여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57	58.2	74	78.7
	남성	41	41.8	20	21.3
	소계	98	100.0	94	100.0
연령별	20~30세 미만	3	3.1	6	6.5
	30~40세 미만	41	42.7	24	26.1
	40~50세 미만	36	37.5	45	48.9
	50~60세 미만	12	12.5	12	13.0
	60세 이상	4	4.2	5	5.4
	소계	96	100.0	92	100.0

구분		활동가		사업참여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결혼여부	결혼	70	72.2	81	86.2
	미혼	27	27.8	13	13.8
	소계	97	100.0	94	100.0
자녀 수	1명	11	11.8	16	17.0
	2명	37	39.8	51	54.3
	3명	7	7.5	11	11.7
	4명이상	2	2.2	3	3.2
	없음	36	38.7	13	13.8
	소계	93	100.0	94	100.0
거주지	도심권	1	1.0	8	8.6
	강북동	32	32.7	40	43.0
	강북서	17	17.3	10	10.8
	강남서	25	25.5	19	20.4
	강남동	23	23.5	14	15.1
	기타	-	-	2	2.2
	합계	98	100.0	93	100.0
주택형태	단독주택	8	8.2	11	11.7
	다세대 혹은 연립 주택	43	44.3	19	20.2
	아파트	44	45.4	59	62.8
	기타	2	2.1	5	5.3
	소계	97	100.0	94	100.0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마을공동체 사업에의 참여의향,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만20세 이상 200명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특성을 성별로 연령별, 결혼여부별, 직장여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특성에 따른 비율을 할당하였으므로 여성과 남성 응답자 수가 규칙적이다. 예를 들면, 20대 표본수가 총 40명이므로 여성 20명, 남성 20명으로 할당되

었다. 결혼여부별로 여성 결혼비율 67%, 미혼 33%로 결혼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결혼비율은 62%, 미혼 38%로 남성의 미혼 비율이 조금 높다. 직장여부별로 여성은 '일하지 않음'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28%, 정규직(풀타임) 23%, 계약직 8%, 임시직(일용직 포함) 4%의 직업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을 포함하여 정규직이 전체 응답자의 53%, 일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불안정한 직장 비율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성 응답자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1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풀타임 정규직 비율은 46%로 여성의 2배에 해당하는 한편, 시간제 정규직 비율은 여성 28%인데 비해, 남성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남성의 직장이 보다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V-6】 마을주민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40	20.0	20	20.0	20	20.0
	30대	50	25.0	25	25.0	25	25.0
	40대	50	25.0	25	25.0	25	25.0
	50대 이상	60	30.0	30	30.0	30	30.0
	소계	200	100.0	100	100.0	100	100.0
결혼여부	결혼	129	64.5	67	67.0	62	62.0
	미혼	71	35.5	33	33.0	38	38.0
	소계	200	100.0	100	100.0	100	100.0
직장 여부	자영업	15	7.5	2	2.0	13	13.0
	정규직(시간제)	47	23.5	28	28.0	17	17.0
	정규직(풀타임)	69	34.5	23	23.0	46	46.0
	계약직	14	7.0	8	8.0	6	6.0
	일용/임시직	7	3.5	4	4.0	3	3.0
	일하지 않음	48	24.0	35	35.0	13	13.0
	소계	200	200.0	100	100.0	100	100.0

## 2. 활동가 조사결과 분석

### 1) 마을활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 반영에 대한 성별인식

#### (1) 마을활동의 참여동기와 목적

##### □ 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마을활동가들이 실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컨설턴트나 상담원, 인큐베이터 등과 같이 마을주민에게 사업의 이슈발굴, 의제화를 통해 마을사업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돕는 사람을 ‘마을활동가’로 정의할 때, 선생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촉진자, 링커, 컨설턴트 조력자로 응답한 응답자가 35.7%, 역시 조력자의 개념을 정의한 ‘직접 마을사업을 하기보다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돕는 사람’이 34.7%로 3/2이상이 마을 주민을 돕는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마을리더, 활동가로 인식한 응답자는 19.4%, 연결자 혹은 정보제공자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5%, 마을이슈 발굴 및 사업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3	3.1	1	1.8%	2	4.9%
직접 마을사업을 하기보다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돕는 사람	34	34.7	21	36.8%	13	31.7%
마을사업의 경험을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에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5	5.1	5	8.8%	0	0.0%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촉진자, 링커(linker), 컨설턴트, 조력자	35	35.7	17	29.8%	18	43.9%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실제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사업의 대표자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 활동가	19	19.4	11	19.3%	8	19.5%
기타	2	2.0	2	3.5%	0	0.0%

마을활동가의 성별 특성으로 인한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응답이 대체로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여성활동가는 가사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마을활동과 양육의 병행, 활동시간 중 자신의 아이에 대한 돌봄문제가 빈번하게 어려움으로 제시된 반면, 남성의 경우 마을주민과의 관계, 특히 성(性)이 다른 주민과의 의사소통이나 대면·상담시 직면하는 문제, 대면해야 하는 주민들이 여성이 많은데 여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가정이나 공적영역에서 성별 분리된 소통이나 관계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와 같은 영역이 경계가 없어지고 이에 따른 대응논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표 IV-7】 성별 활동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

여 성	남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 중심 구조</li> <li>- 육아로 인한 시간 제약]</li> <li>- 마을에서 활동은 여성들이 많아요. 모임에서 남성이 없다보니 남성의 역할을 해 줄 사람이 부족해서 집중되거나 과중되는 경향이 있음</li> <li>- 남성들만의 조직에서 그리고 어린 여성일수록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속에서 활동하기가 수월하지는 않다</li> <li>- 식구들을 못 돌봐서</li> <li>- 각종 마을회의나 행사시 아이 돌봄 할 공간이 없어서 참여가 불가할 때가 있다.</li> <li>-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들의 활동이 많아 남성이 참여하기 어려움</li> <li>- 마을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 속에서 활동하기가 좀 불편함을 느낌.</li> <li>- 대표성을 남성들이 많이 갖게 되는 것, 공무원, 연구자들 다수가 남성이고, 마을활동가들을 파트너로 삼을 때도 주로 남성을 찾는 경향.</li> <li>- 마을활동에서 주 활동하는 분들이 아이 엄마들인데, 아직 애 없는 유부남이라 대화에 끼는 것도 좀 어렵고, 마을 여성들만의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 때 안 껴 주신다 하셔서 π π(남자들 있으면 속내를 꺼내기 어렵다 하</li> </ul>

여 성	남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주민단체 남성 중심 구조이고, 여성은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어 대표에도 보조 인력으로 인식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li> <li>- 시간제약(야간시간)</li> <li>- 육아로 인해 늦은 시간 활동은 제약이 있음</li> </ul>	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가호호 방문시 낯선 남성이라 대화가 용이하지 않음</li> <li>- 여성참여자가 많은데 감성적 소통법을 잘 몰라서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li> </ul>

□ 마을활동가 활동 목적

먼저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어진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1개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에 목적을 둔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문제의 자율적 해결’ 22.4%로 ‘마을자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의 활동역량 강화 11%, 공동체 성장을 통한 보람 1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을활동 목적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활동목적에 대한 경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8】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 계	98	100.0	57	100.0%	41	100.0%
내가 살고 있는 마을문제의 자율(주체)적 해결	22	22.4	13	22.8%	9	22.0%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54	55.1	30	52.6%	24	58.5%
공동체 성장을 통한 보람	10	10.2	6	10.5%	4	9.8%
개인의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보람있는 삶	11	11.2	7	12.3%	4	9.8%
기 타	1	1.0	1	1.8%	0	0.0%

## (2) 사회적 및 성평등 가치 반영에 대한 인식

□ 마을공동체 사업 지역주민의 성평등 영향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크게 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7%, 그저그렇다는 24.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8.4%로 나타나 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응답자는 거의 5/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여성은 56.1%, 남성 58.5로 남성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 표 IV-9 】 공동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성평등 영향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2.0	2	3.5%	0	0.0%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54	55.1	30	52.6%	24	58.5%
그저그렇다	24	24.5	15	26.3%	9	22.0%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15.3	9	15.8%	6	14.6%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1	1	1.8%	2	4.9%

IV

□ 사회적 가치실현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마을활동가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공동체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고 질문하였다.

서울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이라는 정책목표 실현에 어느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해 여성은 절반이상인 59%가 ‘기여’(크게기여+기여하는 편)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41%만이 기여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를 실현’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 여성은 51.8%, 남성 50%가 기여했다고 생각한 반면, 그저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직 사회적 경제실현의 성과를 논의할 만큼의 시간적 추진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으로 ‘행정이 아닌 사람중심의 마을실현’이라는 특성에 대해 여성 60.7%, 남성 47.5%가 ‘기여’(크게 기여+기여한편)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인식도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도 40%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에 대해 남성 12.5%가 응답하고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람중심의 마을실현’에의 기여에 대해 소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기여’했다(크게기여+기여한편)는 응답비율이 5개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48.2%, 남성 47.5%로 긍정적 응답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공동체 사업의 선정기준과 과정에서 차별과 경쟁적 방법의 불가피함으로 인한 활동가의 평가로 해석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성별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여’했다는 여성은 59%가 응답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은 40%에 불과해 여성과 남성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남성 50%, 여성 35.7%로 남성의 경우 긍정도 부정도 아닌 판단유보의 중립적인 응답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마을활동가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참여 확대에의 목표달성에 회의적인 관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IV-10 】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가치실현에의 기여 정도에 대한 성별인식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	합계	56	100.0%	39	100.0%
	크게 기여	3	5.4%	2	5.1%
	기여하는 편	30	53.6%	14	35.9%
	그저그러함	15	26.8%	13	33.3%
	거의 기여하지 못함	5	8.9%	8	20.5%
	전혀 기여하지 않음	3	5.4%	2	5.1%
2)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	합계	56	100.0%	40	100.0%
	크게 기여	1	1.8%	0	0.0%
	기여하는 편	28	50.0%	20	50.0%
	그저그러함	22	39.3%	14	35.0%
	거의 기여하지 못함	5	8.9%	6	15.0%
	전혀 기여하지 않음	0	0.0%	0	0.0%
3) 행정이 아닌 사람 중심의 마을실현	합계	56	100.0%	40	100.0%
	크게 기여	4	7.1%	0	0.0%
	기여하는 편	30	53.6%	19	47.5%
	그저그러함	20	35.7%	16	40.0%
	거의 기여하지 못함	2	3.6%	5	12.5%
	전혀 기여하지 않음	0	0.0%	0	0.0%
4)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 적 참여	합계	56	100.0%	40	100.0%
	크게 기여	4	7.1%	1	2.5%
	기여하는 편	23	41.1%	18	45.0%
	그저그러함	25	44.6%	18	45.0%
	거의 기여하지 못함	3	5.4%	2	5.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	1.8%	1	2.5%
5)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합계	56	100.0%	40	100.0%
	크게 기여	3	5.4%	2	5.0%
	기여하는 편	30	53.6%	14	35.0%
	그저그러함	20	35.7%	20	50.0%
	거의 기여하지 못함	3	5.4%	4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0	0.0%	0	0.0%

## 2) 마을활동가의 활동 실태

### (1) 활동경력 및 주요 활동 분야

상담원, 인큐베이터, 컨설턴트, 교육강사 등을 마을활동가로 정의하고 ‘선생님께 서는 다음 활동가 중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로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마을활동가 56.1%(5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마을넷 운영위원 33.6%(32명), 상담원 33.3%(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은 교육강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10.5%), 남성은 마을넷 운영위원 41.5%, 마을활동가 비중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활동가의 주요 활동 분야(중복응답)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소계	165	169.9%	87	152.6%	78	190.2%
상담원	31	33.3%	18	31.6%	13	31.7%
인큐베이터	11	11.2%	5	8.8%	6	14.6%
컨설턴트	11	11.2%	5	8.8%	6	14.6%
교육강사	9	9.2%	6	10.5%	3	7.3%
마을넷 운영위원	32	33.6%	15	26.3%	17	41.5%
마을사업 대표자	11	11.2%	5	8.8%	6	14.6%
마을 활동가	55	56.1%	30	52.6%	25	61.0%
기타	5	5.1%	3	5.3%	2	4.9%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동가 경험 연한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마을공동체 활동체 참여한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순수 풀뿌리 활동 경험을 포함하여 응답)’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31%가 5~10년 미만 활동경험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2~4년 미만 24.5%, 4~5년 미만 10.2%로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부터 마을활동을 한 응답자 비율이 전체의 72.4%나 되고 있어 자생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 미만 활동경험을 갖는 응답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한편, 성별로 여성은 2~4년 미만의 활동경험을 갖는 응답자 비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5~10년 미만 21%, 4~5년 10.5%로 2년 이상의 마을활동 경력을 갖는 비율이 전체의 73.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5~10년 경험을 갖는 응답자 비율이 약 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년 이상의 활동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두 70.8%로 여성과 비교하여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성별 마을활동가 활동 경력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1년 미만	13	13.3	7	12.3%	6	14.6%
1~2년 미만	14	14.3	8	14.0%	6	14.6%
2년~4년 미만	24	24.5	19	33.3%	5	12.2%
4~5년 미만	10	10.2	6	10.5%	4	9.8%
5~10년 미만	30	30.6	12	21.1%	18	43.9%
10년 이상	7	7.1	5	8.8%	2	4.9%

다음은 활동가로써 마을활동의 참여방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주로 활용하시는 마을활동의 참여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가장 빈번한 방법을 우선 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토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빈번한 참여방법은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63명, 64.3%), 다음이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참석 57.1%, 상담 및 방문컨설팅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방법은 교육 15.8%(남성 4.9%), 행사참여 및 홍보활동 26.3%(남성 19.5%)이다.

【표 IV-13】 성별 마을활동의 참여방법(중복응답)

구분	전체(N=98)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191	194.9%	112	196.6%	79	192.7%
상담 및 컨설팅(방문)	34	34.7%	18	31.6%	16	39.0%
상담 및 컨설팅 (이메일 or 전화)	4	4.1%	1	1.8%	3	7.3%
교육	11	11.2%	9	15.8%	2	4.9%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참석	56	57.1%	33	57.9%	23	56.1%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활동	63	64.3%	36	63.2%	27	65.9%
행사참여 및 홍보	23	23.5%	15	26.3%	8	19.5%

□ 마을활동가의 활동현황 및 실태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일 평균 활동시간, 1주 평균 활동일 수, 주요 활동시간 대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여성은 1일 평균 6.64시간, 남성 1일 평균 9.59시간으로 1일 평균 활동시간이 약 3시간 차이가 나고 있으며, 1주일 평균 활동일은 여성 4.56일, 남성 5.09일로 남성이 약 0.5일 정도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4】 1일 평균활동시간 및 1주 평균활동일수(성별)

구분	평균참여시간(1일)		평균참여일수(1주)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응답자수	47	39	51	38
평균	6.64	9.59	4.56	5.09
표준편차	10.175	28.160	4.842	4.493
통계량(t)	-.669		-.530	

활동가의 1일 평균 활동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 마을활동 참여시간은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2~4시간

미만 36.0%, 4~6시간 미만 23.3%, 6~10시간 미만 22%로 나타났고, 10시간 이상 활동한다는 응답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활동가는 2~4시간 미만에서 40.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고, 4~6시간, 6~10시간 활동한다는 응답자도 각 19%로 나타나고 있어 1일 평균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비율은 약 45%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활동가의 경우도 2~4시간 미만 31%로 가장 높은 비율 보이고 있으며, 4~6시간 미만 28%, 6~10시간 미만 26%의 순이며, 4시간 이상 활동하는 비율이 64.1%로 절반이상의 활동가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활동하고 있어 여성활동가에 비해 1일 평균 활동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 표 IV-15 】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활동시간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86	100.0	47	100.0%	39	100.0%
2시간 미만	9	10.5	7	14.9%	2	5.1%
2~4시간 미만	31	36.0	19	40.4%	12	30.8%
4~6시간 미만	20	23.3	9	19.1%	11	28.2%
6~10시간 미만	19	22.1	9	19.1%	10	25.6%
10시간 이상	7	8.1	3	6.4%	4	10.3%

활동일 수와 관련하여 1주일 평균 활동 일 수를 질문한 결과, 3~5일 미만 활동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6% 차지하였고 5일 이상 활동한다는 응답자도 29%를 차지하여 1주일 평균 3일 이상 활동하는 활동가가 65%나 되고 있다. 성별로 여성은 1~3일 미만이 37.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 3~5일 미만, 5일 이상 각 27.5%로 55%는 1주일 평균 3일 이상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1주 평균 활동일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주일 평균 3일 이상 활동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79%나 되어 마을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6】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1주일 평균 활동일 수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89	100.0	51	100.0%	38	100.0%
1일이하	7	7.9	4	7.8%	3	7.9%
1~3일 미만	24	27.0	19	37.3%	5	13.2%
3~5일 미만	32	36.0	14	27.5%	18	47.4%
5일 이상	26	29.2	14	27.5%	12	31.6%

주요 활동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전 9~12시, 오후 2~6시, 저녁 7~12시 세 개 시간으로 구분하여 주로 어느 시간대에 활동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는 오후 2~6시 사이로 전체 응답자 중 74.5%가 이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전시간(9~12시)과 오후시간(2~6시)대의 활동 비율은 성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활동시간대가 7시 이후의 저녁시간은 역시 남성 활동가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저녁시간에도 마을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7】 성별 주요 활동시간대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빈도(명)	비율(%)	소계	빈도(명)	비율(%)	소계	빈도(명)	비율(%)
오전9~12시	98	53	54.1	57	32	56.1	41	21	51.2
오후2~6시	98	73	74.5	57	41	71.9	41	32	78.0
저녁7~12시	98	37	37.8	57	16	28.0	41	21	51.2

### 3) 마을활동가의 역량 및 성별 특성

활동가로서 본인역량에 대한 평가

마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동가의 ‘역량’과 관련하여 스스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선생님께서 마을활동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의 ‘본

인'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성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식·정보수집 역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충분'(매우충분+충분한편)하다는 평가는 여성 56.1%, 남성 51.3%로 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그저그렇다는 평가는 여성 35.1%, 남성 41.5%로 남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지식·정보의 활용역량'에 대해서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한편)는 평가는 여성 63.2%, 남성 53.7%로 여성이 지식·정보 활용역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그저그렇다는 의견은 여성 28.1%, 남성 39%로 남성의 경우 그저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역량'에 대해서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한편)는 여성 59.6%, 남성 63.4%로 남성의 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부족하다는 평가는 여성 8.8%, 남성 2.4%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서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한편)는 여성 59.6%, 남성 48.8%로 남성보다 여성의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그저그렇다는 남성 46.3%, 여성 33.3%로 남성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 활용역량'에 대해서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하다)는 여성 52.7%, 남성 46.3%로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그저그렇다는 남성 43.9%, 여성 40.4%로 남성의 중립적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나 자치구 등 정부와의 관계역량'과 관련하여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하다)는 여성 35.1%, 남성 41.5%로 남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부족'하다(매우부족+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성 22.8%, 남성 12.4%로 시나 자치구 등 정부와의 관계역량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8】 성별 마을활동가의 '역량'에 대한 본인평가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지식·정보수집 역량	합계	57	100.0%	41	100.0%
	매우충분	0	0.0%	4	9.8%
	충분한편	32	56.1%	17	41.5%
	그저그렇다	20	35.1%	17	41.5%
	부족한편	5	8.8%	3	7.3%
	매우부족	0	0.0%	0	0.0%
지식·정보활용 역량	합계	57	100.0%	41	100.0%
	매우충분	1	1.8%	4	9.8%
	충분한편	35	61.4%	18	43.9%
	그저그렇다	16	28.1%	16	39.0%
	부족한편	5	8.8%	3	7.3%
	매우부족	0	0.0%	0	0.0%
다른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역량	합계	57	100.0%	41	100.0%
	매우충분	4	7.0%	6	14.6%
	충분한편	30	52.6%	20	48.8%
	그저그렇다	18	31.6%	14	34.1%
	부족한편	5	8.8%	1	2.4%
	매우부족	0	0.0%	0	0.0%
마을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	합계	57	100.0%	41	100.0%
	매우충분	2	3.5%	3	7.3%
	충분한편	32	56.1%	17	41.5%
	그저그렇다	19	33.3%	19	46.3%
	부족한편	4	7.0%	2	4.9%
	매우부족	0	0.0%	0	0.0%
인적·물적 자원 활용 역량	합계	57	100.0%	41	100.0%
	매우충분	1	1.8%	3	7.3%
	충분한편	29	50.9%	16	39.0%
	그저그렇다	23	40.4%	18	43.9%
	부족한편	4	7.0%	4	9.8%
	매우부족	0	0.0%	0	0.0%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시나 자치구 등 정부와의 관계 역량	합계	57	100.0%	41	100.0%
	매우충분	2	3.5%	4	9.8%
	충분한편	18	31.6%	13	31.7%
	그저그렇다	24	42.1%	18	43.9%
	부족한편	13	22.8%	5	12.2%
	매우부족	0	0.0%	1	2.4%

마을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각 역량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활동의 역량에 대해 남성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나 자치구 등 공식적인 관계 역량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응답이 제시되었다.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육과 훈련, 각종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IV-19】 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

구분	활동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필요교육
소통능력	- 공감능력 - 주민과의 소통, 갈등 조정능력	리더십 역량 - 대인관계 등
업무역량	- 네트워킹 능력 - 자원의 연계능력 - 풍부한 경험 - 컴퓨터 활용능력 - 실무집행능력(기획, 추진 등)	행정 및 관리 역량
자질, 성품	- 친화력 - 인내, 내공 - 지구력과 창의성 - 주민의 역량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 - 민주적 소양 - 유연한 사고	<마을공동체 가치형성 교육 및 훈련>
기타	- 경제적 여유 - 시간적 여유	

마을활동가가 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잘하는 항목과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가장 잘하는 항목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 모두 ‘활동가들간 소통과 연대’를 가장 잘 하는 항목으로 꼽았고(여성 51.8%, 남성 66.7%), 여성의 경우 ‘마을주민과의 연대’ 39.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이 ‘지역자원의 모집과 배분’이 30.4%로 잘하는 역량으로 꼽고 있다. 반면 남성은 ‘마을주민과의 연대 38.5%, 이웃마을이나 이웃단체와의 연대’ 28.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어려운 항목으로 여성은 ‘지역자원의 모집과 배분’이 약 3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시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과의 연대’를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꼽고 있어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IV-20 마을활동가의 성별 역량(중복응답)

구 분	1) 가장 잘 하는 항목				2) 가장 어려운 항목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빈도 (명)	백분율
계	88	157.2	67	171.9	72	133.4	55	141.0
① 이웃마을, 이웃단체 (혹은 모임)와의 연대	12	21.4%	11	28.2%	11	20.4%	10	25.6%
② 지역자원의 모집과 배분	17	30.4%	9	23.1%	21	38.9%	15	38.5%
③ 마을주민들과의 연대	22	39.3%	15	38.5%	13	24.1%	5	12.8%
④ 시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과의 연대	8	14.3%	6	15.4%	18	33.3%	20	51.3%
⑤ 활동가들간의 소통 과 연대	29	51.8%	26	66.7%	9	16.7%	5	12.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으로써 중간지원인력의 인력양성체계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자 ‘선생님께서서는 중간지원인력으로써 상담원,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강사 등에 대한 인력양성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

문하였다. 대체적으로 인력양성체계의 만족도는 3점 내외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 3.31점을 나타냈고, 수당지원 3.02점, 활동방법 및 보고체계 3.0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 역시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지만(3.32점) 평균 3점대로 높은 점수는 아니다. 특히 활동수당의 지원과 관련하여 평균 2.88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활동방법 및 보고체계도 평균 2.95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비교해도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다.

표 IV-21 서울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성별 만족도

구분	여성			남성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	56	3.31	.791	41	3.32	.789	-.049
활동수당의 지원	55	3.02	.765	41	2.88	.781	.879
활동방법 및 보고체계	54	3.00	.869	41	2.95	.705	.293

이와 같이 현재 중간지원인력 양성 체계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시되었다. 대체로 낮은 만족도에 대한 원인은 중간인력양성 체계가 아직 상담이나 컨설팅 분야에 따라 전문화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활동수당에 있어서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사업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간지원 인력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22 현재 중간인력양성체계에 대한 불만족 이유

구분	낮은 이유
전문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컨설팅의 전문성이 낮음</li> <li>- 전문분야가 불분명하고 관계적 측면 강함</li> <li>- 상담과 인큐베이팅의 전문성이 낮음</li> <li>- 네트워킹만 치중하고 전문성 낮음</li> </ul>

구분	낮은 이유
보수, 수당	- 수당과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수당산정이 적정하지 않음 - 상담원이나 컨설턴트로 생활어려움
업무관련	- 상담, 컨설팅 등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인간 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
인력양성체계	- 인력양성프로그램이 빈약, 저조
기타	- 체계적이지 못하고 통합되지 않음 - 서류양식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성인지 역량강화 및 지원 정책 수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활동가의 성인지역량강화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다음과 같은 ‘성인지’ 관련 교육에의 참여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여성은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80.4%,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54.3%, 성주류화 정책 교육 30.4% 등 1인 평균 1.8회의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남성은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84.4%,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47%로 나타나 1인 약 1.3회의 교육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3 ■ 성인지 관련 교육에의 참여경험(중복응답)

N=46(여성), 32(남성)

구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 계	85	184.6%	43	134.4%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37	80.4%	27	84.4%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25	54.3%	15	46.9%
성인지 통계 관련교육	7	15.2%	1	3.1%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	14	30.4%	0	0.0%
기타	2	4.3%	0	0.0%

#### 4) 마을공동체 활동의 특성에 대한 성별 분석

##### □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나 자치구가 제시한 조례나 지침, 다양한 활동가와의 교류, 마을주민과의 소통 등 공동체를 둘러싼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적 요소를 제도적 지침, 소속단체 이념 및 지향, 마을주민의 수요나 요구, 활동가 자신의 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든 영향력 요소에서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시나 자치구 활동가 지침이나 매뉴얼에 대한 영향정도에 대해서 ‘영향’받는 다(크게 영향 받음+영향받는 편)는 여성 45.6%, 남성 47.5%, 그저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 여성 31.6%, 남성 25%로 나타난 반면, 영향받지 않음(거의+전혀) 여성 22.8%, 남성 27.5%로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소속단체나 모임에서 논의된 마을활동의 지향이나 가치로부터의 영향력 정도에 대해서는 여성 89.4%, 남성 90%로 나타나 단체나 모임의 가치지향이 큰 영향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제 마을주민의 수요나 요구에의 영향력 정도에 있어서 여성은 82.7%, 남성 92.5%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활동가가 마을 주민의 수요나 요구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본인의 그동안의 마을활동 경험이나 주관에 대해서 여성 89.4%, 남성 90%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되었다.

전체적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나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보다는 단체나 모임 활동을 통해 도출한 가치지향이나, 경험, 실제 마을주민의 요구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활동경험, 소속단체의 가치지향, 마을주민의 수요 등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V-24 】 활동가의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자율성 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구분		여성		남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활동가'로서의 지침이나 매뉴얼	합계	57	100.0%	40	100.0%
	크게 영향 받음	4	7.0%	2	5.0%
	영향받는 편	22	38.6%	17	42.5%
	그저그러함	18	31.6%	10	25.0%
	거의 영향받지 않음	11	19.3%	8	20.0%
	전혀 영향받지 않음	2	3.5%	3	7.5%
2) 소속단체나 모임에서 논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마을활동의 지향이나 가치	합계	57	100.0%	40	100.0%
	크게 영향 받음	17	29.8%	9	22.5%
	영향받는 편	34	59.6%	27	67.5%
	그저그러함	5	8.8%	4	10.0%
	거의 영향받지 않음	1	1.8%	0	0.0%
	전혀 영향받지 않음	0	0.0%	0	0.0%
3) 실제 마을주민의 수요나 요구	합계	57	100.0%	40	100.0%
	크게 영향 받음	12	21.1%	8	20.0%
	영향받는 편	34	59.6%	29	72.5%
	그저그러함	9	15.8%	3	7.5%
	거의 영향받지 않음	1	1.8%	0	0.0%
	전혀 영향받지 않음	1	1.8%	0	0.0%
4) 본인의 그동안 마을활동의 경험이나 주관	합계	57	100.0%	40	100.0%
	크게 영향 받음	10	17.5%	9	22.5%
	영향받는 편	41	71.9%	27	67.5%
	그저그러함	6	10.5%	4	10.0%
	거의 영향받지 않음	0	0.0%	0	0.0%
	전혀 영향받지 않음	0	0.0%	0	0.0%

이와 관련하여 활동가 스스로의 가치와 비전에 실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반영'된다(전적으로 반영+반영되는 편) 여성 73.7%, 남성 68.3%로 여성활동가가 자신의 비전과 가치 반영 정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5】 활동가의 가치와 비전의 반영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합 계	57	100.0%	41	100.0%
전적으로 반영	4	7.0%	0	0.0%
반영되는 편	38	66.7%	28	68.3%
그저그렇다	15	26.3%	11	26.8%
거의 반영되지 않음	0	0.0%	2	4.9%

한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어려움의 이유가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고 있어 성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은 ‘시나 자치구와 마을주민의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약 30%로 남성 24.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실제 마을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이라는 응답이 39%, 여성 28.1%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 밖의 이유는 모두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실현의 어려운 이유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합 계	57	100.0%	41	100.0%
시,자치구 등 행정으로부터의 각종 지침과 규정	16	28.1%	12	29.3%
시, 자치구와 실제 마을주민과의 소통의 어려움	17	29.8%	10	24.4%
실제 마을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	16	28.1%	16	39.0%
활동가간의 협력과 이해 부족	4	7.0%	2	4.9%
어려움을 경험한 적 없음	2	3.5%	0	0.0%

□ 마을공동체 활동의 다양성과 통합성

마을활동가의 활동분야와 관련하여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2개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 여성은 주민 커뮤니티 운영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아동돌봄 및 교육이 각 29.8%, 문화·예술 22.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역시 주민커뮤니티 운영이 67.5%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사회적 경제 40.0%, 문화·예술 2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분야는 여성활동가는 아동돌봄 및 교육분야이며, 남성은 사회적 경제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V-27 】 마을활동가의 성별 주요활동 분야(중복응답)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전체	97	170.1	75	187.5
문화, 예술	13	22.8%	11	27.5%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7	29.8%	16	40.0%
아동돌봄 및 교육	17	29.8%	8	20.0%
주거환경 개선(안전 등)	7	12.3%	6	15.0%
주민 커뮤니티 운영	33	57.9%	27	67.5%
복지	6	10.5%	6	15.0%
기타	4	7.0%	1	2.5%

활동가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마을사업이외에 어떠한 마을이슈를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선생님께서서는 위와 같은 사업분야 외에 마을살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마을이슈(혹은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었는데, 공동체의 가치와 관련하여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식 교육’, 평등관계를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참여가 필요한 대상계층으로는 주로 청소년, 청년이나 현재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중장년층 남성, 직장인 남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현재 마을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공모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사업을 마을주민이 제안해서 직접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어 현재 추진방식에 대한 설계의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IV-28 】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마을이슈 및 사업분야

구분	마을이슈
공동체 가치	- 누구다 평등하다는 인식에 대한 교육 - 평등관계에 대한 인식
대상계층	-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 - 청년, 청소년 교육/문화 및 자립지원 - 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청소년 참여 - 청년과 직장 남성의 지역참여 - 중소상인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교육참여 - 중장년층 남성대상 사업 확충 필요
경제활동	- 스스로 소소하게 기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공간확충	-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나 놀이공간 -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주민교육	-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교육 -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 세대간 소통 - 시민의식
위생안전, 건강	-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의 연계, 협력) -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학부모공동체, 혁신학교, 대안학교 등
자원활용	-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 지역의 곳곳을 알고 이해하기
기타	- 공모사업이 아닌, 마을사업으로 직접추진 - 지역자원연계 - 지역정치의 주민참여 - 정보공유

한편, 마을활동가는 마을사업이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가 시급한 연령계층이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여성은 3~40대 미만 여성 31.6%, 2~30대 미만 여성 23%, 5~60대 여성 10.5%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2~30대 남성 24%, 3~40대 미만 23.3%, 4~50대 미만 16.4%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V-29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필요한 연령층 순위와 그 이유

순위	참여필요연령층	이유
1	30~40대 미만 주부, 직장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가 추진력도 있으며, 창의적이며 마을살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현재 많이 필요한 동력이라고 보여짐</li> <li>- 링커세대라 할 수 있기에 향후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li> <li>- 여성: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필요 있음. 아이들을 매개로 한 아줌마 파워</li> <li>- 마을을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지만 정작 직장, 마을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함.</li> <li>- 남녀: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동체를 일굴 수 있는 세대.</li> <li>- 최근 사회 진출한 계층, 가정을 구성한 지 오래되지 않은 계층</li> </ul>
2	20~30대 미만; 싱글, 혼자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의 에너지와 활력. 강한 요구성과 실행력</li> <li>- 마을살이를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는 동력</li> <li>- 싱글여성, 직장인 남성, 문화적 욕구는 뛰어나나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20대 남녀</li> <li>- 남녀/ 경제적 현실로 인한 취업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역량과 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함.</li> <li>- 남성 20대가 자연스럽게 마을살이에 참여 하면서 삶의 방향을 모색 하려는 시도 필요.</li> </ul>
3	40~50대 미만; 주부, 직장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여성:경력 단절 여성과 실직 남성이 같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음. 사회적으로 참여 및 주도적인 세대</li> <li>- 마을을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지만 정작 직장, 마을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함.</li> <li>- 여성:자녀 교육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므로 육아로 인한 지역 활동 제한 여성, 시간 여유가 있어 활동이 자유로운 여성</li> <li>- 남성:지금의 젊은이들과 같이 IMF 등의 경제적 상황으로 별다른 선택의 기회 없이 내몰렸고 자본주의 경쟁 구도에서 많이 시달린 그들이 새로운 대안 찾기에 모색 하였으면 한다.</li> </ul>
4	50~60대 미만; 주부, 직장인, 실직은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지원과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li> <li>- 남성: 연륜과 경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과 여러 인적 자원 활용 가능 인생을 마을살이를 통해 재정립할 필요 있음</li> <li>- 여성:60대이후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li> </ul>
5	60세 이상; 혼자거 주하는 남성, 독거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전에 경제의 주체였던 분들이었으나 현재는 쇠퇴하여 경로당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를 이끈 것에는 존경을 표하나 이면에 이기 주의 사회를 만든 주체이기도 하다. 인생 말년에 보람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 주고, 자신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으며,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마지막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li> </ul>

순위	참여필요연령층	이유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계층 참여 필수</li> <li>- 현재 마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남성과 여성을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게 현 마을공동체의 시급한 문제로 보여진다.</li> <li>- 싱글여성 - 배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li> <li>- 실직남성 - 자신감 회복 등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발전 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li> <li>- 마을 공동체 사업이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남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 내지는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청소년 교육 환경, 지역 안전문제, 경력단절여성 역량강화, 퇴직 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문제</li> <li>- 비혼모임, 청년 일자리 혹은 청년 협동조합 모임 등</li> <li>- 청년들과 40대 남성들이 마을에서 즐겁게 놀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 개발.</li> <li>- 마을에서 여성의 참여가 주도적이어야 하고, 그를 이해하고 뒷받침 하는 남성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다만 40대이상의 보수화된 남성은 걸림돌이라고 생각된다.</li> <li>- 다문화 가정</li> </ul>

다음, 마을공동체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통합성의 시급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동체 목표인 사회적 연대 형성을 위해 다음 각 요소의 통합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네 가지 항목에서 시급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여성은 계층간 통합성(평균 4.11)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세대간 통합성(M=4.09), 지역간 통합성(M=3.57), 성별 통합성 3.52의 순으로 성별 통합성이 가장 낮게 응답된 반면, 남성은 세대간 통합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M=4.33), 계층간 통합성(M=4.23), 성별 통합성 (M=3.62)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통합성을 위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성별 통합성과 관련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시급성 정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IV-30 】 통합성을 위해 각 항목의 시급성에 대한 성별 인식

구 분	여성		남성	
	M	SD	M	SD
1) 성별 통합성	3.52	.738	3.62	.815
2) 세대간 통합성	4.09	.611	4.33	.572
3) 계층간 통합성	4.11	.646	4.23	.733
4) 지역간 통합성	3.57	.828	3.36	1.018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 역시 ‘중간지원인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성장지원’이 전체 응답자의 약 44%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시·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협력 활성화 21.4%,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18.4%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활동가로써 중간지원인력에 대한 자부심이 녹아있는 응답으로 해석된다.

【 표 IV-31 】 타시도와 차별화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시·도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성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서울시나 자치구 등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18	18.4	10	17.5%	8	19.5%
시,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협력의 활성화(민-관 협력의 활성화)	21	21.4	17	29.8%	4	9.8%
중간지원인력(상담원,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성장지원	43	43.9	22	38.6%	21	51.2%
구조화되지 않고, 시민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마을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12	12.2	7	12.3%	5	12.2%
기타	4	4.1	1	1.8%	3	7.3%

다음,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항목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가장 개선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예산 및 회계정산의 간소화’로 여성 평균 4.45점, 남성 4.44점으로 나타나 높은 필요성 정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은 ‘다양한 마을지역 주민참여 활성화’로 여성 4.27점, 남성 4.30점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 모두 높은 개선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여성은 평균 3.98점인데 반해 남성 4.26점으로 남성의 개선필요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와 관련해서 여성은 4.09점, 남성 3.85점으로 홍보에 대해서 개선필요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필요성에 있어서도 여성 4.04점인데 반해 남성 4.23점으로 남성의 개선필요성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제도적 개선필요성에 대한 성별 인식정도

구 분	여성			남성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 (지침, 세부규정 No)	57	3.98	.767	39	4.26	.595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	57	4.04	.597	40	4.23	.620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56	4.09	.640	40	3.85	.736
예산 및 회계정산의 간소화	56	4.45	.601	39	4.44	.552
다양한 마을지역 주민참여 활성화 (성별, 연령별, 대상특성별)	56	4.27	.618	40	4.30	.648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표 IV-33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구분	주요내용
사회적 연대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지역 활동가와 마을공동체란 새로운 활동가 간에 융화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그에 따른 방안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지역 활동가가 이분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따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li> </ul>
행정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 분야를 간소화. 애매모호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배제, 회의비·사업비 등에 한정함 문화 관람비, 여행 항목 등 제외가 바람직</li> </ul>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에서의 인센티브 평가를 없애야 함.</li> <li>- 현재 제안서 중심의 사업은 사실할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예산받고 하는 경향이 있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발굴 필요.</li> <li>-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적 지원</li> </ul>
특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별 인센티브제 폐지, 구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정책</li> </ul>
센터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지원센터와 유기적이면서도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과 공유가 가능한 자치구 단위의 센터(기능) 대한 지원</li> <li>-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지역마다 있는 자원 봉사센터의 등록 봉사자와의 연결..</li> </ul>
담당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및 구청의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정보, 역량과 열정 및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세미나)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li> <li>-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무원들의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그 분들의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적 홍보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마을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 같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조사의 반영 및 제안자 3인 중 1~2인의 인건비 책정.</li> <li>- 센터의 회계 방법이 틀리고 사업 선정 후 자치구의 회계 방법이 너무 틀려 주민들 힘들어 함.</li> <li>-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활동 지원이 필요</li> </ul>

### 3. 사업참여자 조사결과분석

#### 1)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동기와 목적

##### (1) 사업참여 동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동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을(지역)일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했다는 응답과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각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마을 이슈로는 ‘자녀양육’이 주요 마을사업의 참여동기가 되며 마을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마을사업의 참여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참여동기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자녀양육에 있어 이웃과의 소통’에 대한 동기가 40.5%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마을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아 참여동기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V-34 ■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동기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74	100.0%	20	100.0%
마을(지역)일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	25	33.8%	10	50.0%
동네 이웃, 친구, 아는 사람 등의 권유로	10	13.5%	3	15.0%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0	40.5%	5	25.0%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느껴서	6	8.1%	2	10.0%
개인적인 성취나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	2.7%	0	0.0%
기타	1	1.4%	0	0.0%

이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1개’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남성응답자는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에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5%), 여성응답자는 ‘공동체 성장을 통한 보람’(37.8%)과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35.1%)을 주요 목적으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그동안 성장과 발전위주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와 사람과의 관계성 단절이 가져오는 폐해를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판단된다.

■ 표 IV-35 ■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목적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74	100.0%	20	100.0%
내가 살고 있는 마을문제의 자율(주체)적 해결	10	13.5%	4	20.0%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26	35.1%	9	45.0%
공동체 성장을 통한 보람	28	37.8%	4	20.0%
개인의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보람있는 삶	9	12.2%	2	10.0%
기타	1	1.4%	1	5.0%

□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 반영에 대한 성별 인식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과연 ‘성평등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크게 네 개 항목-비전과 목표, 사업별 운영방식, 마을리더 인력양성, 마을활동가 역량강화-으로 구분하여 반영정도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성 평등’ 가치의 반영 정도에 대해 느끼는 인식은 응답자의 절반이상, 약 60%의 응답자가 ‘반영되고 있음’(크게반영됨+반영된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보통’ 30%, ‘반영되지 않음’(반영되지 않음+전혀 반영되지 않음)은 10%내외로 응답되고 있다. 마을리더 인력양성이 성 평등 가치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반영됨’(크게 반영+반영된 편) 여성 56.4%, 남성 55%인 반면 ‘반영되지 않음’(반영되지 않음+전혀 반영되지 않음)은 여성 2.8%, 남성 15.0%로 남성의 소극적 응답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에 ‘성 평등 가치’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은 여성 64.8%, 남성 70%가 ‘반영되었다’고 인식한 반면,



‘반영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은 여성 2.8%, 남성 25%로 남성의 소극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과 남성의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6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 반영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구분	여성		남성		X <sup>2</sup>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비전과 목표	합계	70	100.0%	20	100.0%	2.838
	크게 반영됨	6	8.6%	3	15.0%	
	반영된 편	38	54.3%	9	45.0%	
	그저 그러함	22	31.4%	5	25.0%	
	반영되지 않음	4	5.7%	3	15.0%	
	전혀 반영되지 않음	0	0.0%	0	0.0%	
사업분야 (돌봄, 문화·예술, 교육, 복지, 마을 경제 등) 운영방식	합계	73	100.0%	20	100.0%	3.700
	크게 반영됨	9	12.3%	2	10.0%	
	반영된 편	38	52.1%	11	55.0%	
	그저 그러함	23	31.5%	4	20.0%	
	반영되지 않음	3	4.1%	3	15.0%	
	전혀 반영되지 않음	0	0.0%	0	0.0%	
마을리더 인력양성	합계	71	100.0%	20	100.0%	11.713*
	크게 반영됨	8	11.3%	2	10.0%	
	반영된 편	32	45.1%	9	45.0%	
	그저 그러함	29	40.8%	6	30.0%	
	반영되지 않음	0	0.0%	3	15.0%	
	전혀 반영되지 않음	2	2.8%	0	0.0%	
마을활동과 역량강화	합계	71	100.0%	20	100.0%	20.212***
	크게 반영됨	6	8.5%	1	5.0%	
	반영된 편	40	56.3%	11	55.0%	
	그저 그러함	23	32.4%	3	15.0%	
	반영되지 않음	0	0.0%	5	25.0%	
	전혀 반영되지 않음	2	2.8%	0	0.0%	

\* p<.05, \*\*\*p<.001



【 표 IV-37 】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반영 안된 이유에 대한 자유의견

구분	내용
성평등과 무관	- 성평등 가치와 전혀 연관성 없음
마을사업 설계의 성인지적 관점 부족	- 각종 교육이 여성, 특히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여성들의 조건을 이해하고 계획되었는지 의문임
성 평등 가치 강조	- 성평등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거나 강조된 것을 듣거나 본적 없음
마을공동체 사업에 배제된 대상계층에 대한 강조 필요	- 성평등을 얘기하기보다 아빠의 역할을 강조. 현재 경제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역할을 소홀할 수 없는 문제

## 2) 사업참여자의 마을활동 참여 실태

###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분야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아동돌봄 및 교육’ 분야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주민 커뮤니티 운영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예측되는 바와 같이 여성참여자가 높은 분야는 ‘아동돌봄 및 교육’ 43.2%, 주민커뮤니티 운영 39.2%, 사회적 경제 17.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다르게 ‘주민 커뮤니티 운영’ 사업분야에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이 ‘아동돌봄 및 교육’ 35.0%, 사회적 경제 20.0%의 순으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IV-38 】 응답자의 성별 사업참여 분야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124	131.9	96	129.7%	28	140.0%
문화,예술	10	8.1	8	10.8%	2	10.0%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7	13.7	13	17.6%	4	20.0%
아동돌봄 및 교육	39	31.5	32	43.2%	7	35.0%
주거환경 개선(안전 등)	8	6.5	6	8.1%	2	10.0%
주민 커뮤니티 운영	38	30.6	29	39.2%	9	45.0%
복지	10	8.1	6	8.1%	4	20.0%
기타	2	1.6	2	2.7%	0	0.0%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실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기간, 평균 참여시간과 참여일(1일 평균, 1주 평균), 참여시간대, 마을활동 참여의 애로사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선생님은 마을공동체 (사업)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로 질문하였다. 대부분 2년미만 참여자 비율이 약 74.5%로 4/3을 차지하고 있어 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직접적인 참여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년 이상의 참여 경험을 갖는 응답자는 전체의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공감대 형성의 확산이 요구된다.

■ 표 IV-39 ■ 성별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기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4	100.0	74	100.0%	20	100.0%
1년 미만	39	41.5	31	41.9%	8	40.0%
1~2년 미만	31	33.0	26	35.1%	5	25.0%
2년~4년 미만	2	2.1	2	2.7%	0	0.0%
4~5년 미만	15	16.0	12	16.2%	3	15.0%
5~10년 미만	5	5.3	2	2.7%	3	15.0%
10년 이상	2	2.1	1	1.4%	1	5.0%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선생님께서 마을활동 참여시간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1일 평균 참여 시간은 3.3시간(SD. 2.745), 1주 평균 참여 일수는 2.49일(SD. 1.601)로 분석되었다.

■ 표 IV-40 ■ 평균 마을활동참여 시간 및 일수

마을활동 참여 시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시간(시간, 1일)	87	3.31	2.745
평균빈도(일, 1주)	92	2.49	1.601

1일 평균 참여시간은 성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평균 2~4시간 미만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41.4%), 2시간 미만(29.9%)으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1일 평균 4시간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4시간 이상 참여자도 28.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균 참여시간은 성별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41】 성별 1일 평균 참여시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87	100.0	67	100.0%	20	100.0%
2시간 미만	26	29.9	19	28.4%	7	35.0%
2~4시간미만	36	41.4	29	43.3%	7	35.0%
4~6시간 미만	11	12.6	8	11.9%	3	15.0%
6~10시간 미만	9	10.3	9	13.4%	0	0.0%
10시간 이상	5	5.7	2	3.0%	3	15.0%

하루 중 주요 참여 시간대와 관련하여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하루를 크게 세 개 범주로 구분하여 오전 9~12시, 오후 2~6시, 저녁 7~12시로 질문하였다. 여성의 경우 주로 오전 시간대 참여율이 5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오후 2~6시까지의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43.2%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남성은 오후 시간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저녁 7시 이후 활동한다는 응답율이 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저녁시간에 활동이 보다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2】 성별 하루 중 마을활동 참여 시간대

구분	N	오전9~12시		오후2~6시		저녁7~12시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94	46	48.9	42	44.7	27	28.7
여성	74	40	54.5	32	43.2	19	25.7
남성	20	6	30.0	10	50.0	8	40.0

7일, 1주를 기준으로 평균 활동 일 수를 조사한 결과, 3일미만 활동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58.7%로 나타났고, 3일 이상 참여자는 41.3%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균 활동기간의 성별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3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연번	주요의견
1	- 사업참여자, 활동가에 대한 지원(?)
2	- 직장맘 또는 아빠와의 공동체 모임의 시간 제약
3	-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 필요
4	- 서울시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필요(부모커뮤니티 사업 참여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보미 서비스 지원)
5	-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모임,
6	- 활동이나 모임시 공간부족
7	- 지역(마을)주민들의 관심부족
8	-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 공동체와의 갈등문제가 있음
9	- 공공시설의 경우, 공간개방이 낮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밤에도 모임이 이뤄지므로 공간활용이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음
10	- 최소한의 기본경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11	- 마을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함
12	-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업계획은 당락 유무에 관계없이 상담을 통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13	- 부모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 아이는 방치되고 있음. 따라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바람직함
14	- 모임시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15	- 마을활동은 더 많은 정신적·물질적 차원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임. 그러나 활동의 결과 사회적인 신임을 받기는커녕, 정치적 야욕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음 - 최소한 교통비나 통신비 정도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음
16	- 센터들이 경쟁하는 느낌. 공모사업에서 일반주민과 경쟁관계로 돌아서고 있는데 안타깝다.
17	- 마을활동가들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도 잘 돌보지 못하고 있음. 활동가들이 주민 대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희생은 무리가 따름
18	-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활동공간, 시간운영에 대한 지침 마련
19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 확산 필요
20	- 주말, 저녁시간 활용, 교육
21	- 행정처리의 간소화

마을주민들은 성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여성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선택해주시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자녀양육과 돌봄, 가사일 등으로 인한 시간제약 응답율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 40.4%,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 24.5%,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의 어려움 21.3%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별로 여성 응답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으로 시간의 제약’이 55.4%,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 41.9% 등 여성들이 빈번하게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분석된 반면, 남성은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20.0%) 보다는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 35.0%,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의 어려움 35.0%, 각종 문서작성 및 공식적 회의참석 어려움 35.0%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44】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가 겪는 어려움(중복응답)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154	163.9%	123	166.3%	31	155%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으로 시간의 제약	45	47.9	41	55.4%	4	20.0%
공동체 및 마을사업 정보에 어두움	12	12.8	10	13.5%	2	10.0%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	23	24.5	16	21.6%	7	35.0%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시나 자치구 공무원과의 관계, 다른 단체나 모임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	20	21.3	13	17.6%	7	35.0%
여성과 남성간 문제해결방식 차이의 어려움	8	8.5	5	6.8%	3	15.0%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	38	40.4	31	41.9%	7	35.0%
기타	8	8.5	7	9.5%	1	5.0%

여성과 남성이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성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 IV-45>와 같다.

공통적인 지원 수요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확산, 행정서류 간소화 혹은 문서작성, 공간마련, 행정서류 간소화에 대한 요청이 주요 지원요청 사항으로 제안되었다. 여성에게는 주로 현재 자녀양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마을활동 참여를 위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수요가 빈번하게 요구되고 있었고 특히 현재 부모커뮤니티가 주로 전업주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직장맘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한 참여 시간대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마련, 성인지적 교육마련, 돌봄 장소에 대한 요구가 제안되었다. 남성의 경우 참여활성화를 위해 주말이나 평일 저녁 등 참여시간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특히 성평등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사적인 구호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남성의 참여를 이끌수 있도록 하는 참여 방안, 교육이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표 IV-45 | 성별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공통	여성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홍보</li> <li>- 문서나 사업진행매뉴얼 (서식의 기본틀이나 지침)</li> <li>- 여성과 남성이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공간</li> <li>- 행정서류 간소화</li> <li>- 평일 토론 직장인을 위한 참여방법 개선</li> <li>-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li> <li>- 지역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자원지도가 웹에 있으면 좋겠음</li> <li>- 문서작성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마을 활동참여의 보장</li> <li>- 아이돌봄에 대한 보장</li> <li>- 여성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과 안내</li> <li>- 여성의 입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가 발굴</li> <li>- 가사도우미 지원</li> <li>- 돌봄서비스의 망</li> <li>- 돌봄과 모임장소 문제</li> <li>-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에게는 모임이나 행사참석 어려움. 평일/주말, 낮/저녁 등 시간대가 다양했으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을 제외한 활동시간의 제약</li> <li>-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면 좋겠음</li> </ul>

### 3) 사업 특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자 성인지 역량강화 및 지원정책 수요

마을공동체 사업목적 달성과 보다 성 평등적이기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성인지 관련 교육수요,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필요성 정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 가치실현에의 기여정도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마을공동체가 그 의미를 명확히하고, 마을의 다양한 주민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 보다 구성원의 특성에 보다 민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고 보수성이 짙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성평등 가치가 마을사업에 녹여져 있는지를 ‘성인지 의식’ 관련 교육경험 여부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이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5.2%, 성인지 감수성 교육 15.5%으로 약 25~40%는 성평등 관련 일반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지 통계 관련 교육 3.9%,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에 관한 교육은 5% 내외만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 교육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남성은 응답자의 4/1만이 교육경험이 있는 반면 4/3은 교육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절반이 넘는 57%가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43%는 1개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46】 성별 성인지 의식 교육 관련 경험(중복응답)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103	109.6	82	118.5%	21	105.0%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26	25.2	21	30.4%	5	25.0%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16	15.5	15	21.5%	1	5.0%
성인지 통계 관련교육	4	3.9	4	5.8%	0	0.0%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	3	2.9	3	4.3%	0	0.0%
교육받은 적 없음	54	52.4	39	56.5%	15	75.0%

다음,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동체형성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지,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한 마을공동



체 사업 참여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첫째,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남성은 95%가 ‘필요’ (매우 필요+필요한 편)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8.1%가 필요하다고 인식, 그저그렇다는 중립적 응답이 17.8%로 ‘필요성’ 정도에서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 여성의 82%(남성 75%)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는 응답여성의 85%(남성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필요하지 않음+전혀불필요)는 여성 2.8%, 남성 20%로 여성 응답자 대부분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신뢰수준 95%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해석된다. 넷째, ‘예산 및 회계정산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90%의 응답자가 ‘필요성’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마을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여성 응답자의 약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75%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여성의 경우 다양한 마을주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V-47 ■ 성별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여성		남성		X <sup>2</sup>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 (지침, 세부규정 No)	합계	73	100.0%	20	100.0%	4.235
	매우 필요	17	23.3%	5	25.0%	
	필요한 편	40	54.8%	14	70.0%	
	그저그렇다	13	17.8%	0	0.0%	
	필요하지 않음	3	4.1%	1	5.0%	
	전혀 불필요	0	0.0%	0	0.0%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	합계	73	100.0%	20	100.0%	4.393
	매우 필요	14	19.2%	5	25.0%	
	필요한 편	46	63.0%	10	50.0%	
	그저그렇다	13	17.8%	4	20.0%	
	필요하지 않음	0	0.0%	1	5.0%	
	전혀 불필요	0	0.0%	0	0.0%	

구 분	여성		남성		X <sup>2</sup>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합계	73	100.0%	20	100.0%	11.424*
	매우 필요	27	37.0%	7	35.0%	
	필요한 편	35	47.9%	8	40.0%	
	그저그렇다	9	12.3%	1	5.0%	
	필요하지 않음	1	1.4%	4	20.0%	
	전혀 불필요	1	1.4%	0	0.0%	
예산 및 회계정산의 간소화	합계	73	100.0%	20	100.0%	8.897
	매우 필요	39	53.4%	6	30.0%	
	필요한 편	25	34.2%	12	60.0%	
	그저그렇다	8	11.0%	1	5.0%	
	필요하지 않음	0	0.0%	1	5.0%	
	전혀 불필요	1	1.4%	0	0.0%	
다양한 마을지역 주민참여 활성화 (성별, 연령별, 대상특성별)	합계	73	100.0%	20	100.0%	7.267
	매우 필요	31	42.5%	7	35.0%	
	필요한 편	35	47.9%	8	40.0%	
	그저그렇다	6	8.2%	2	10.0%	
	필요하지 않음	1	1.4%	3	15.0%	
	전혀 불필요	0	0.0%	0	0.0%	

\* p<.05

기타 의견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 등 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 형성, 사업참여자 확대, 시청이나 구청, 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공간 공유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박람회 개최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과연 당초 정책이 지향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참여자의 인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선생님께서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에의 기여정도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이라는 서울시정목표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인식은 약 70%가 ‘기여’(크게 기여+기여한 편)했다고 응답한 반면, 기여하지 못함(거의 기여하지 못함+전혀 기여하지 못함)은 10%미만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많은 비

중의 참여자가 공동체 사업을 통한 돌봄커뮤니티 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유실현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만이 기여했다고 인식한 반면, 40%내외의 응답자는 중립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공동체 사업을 통한 ‘경제공동체’ 실현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이 아닌 사람중심의 마을실현’과 관련하여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여’했다는 응답자는 70%내외이며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기여정도 역시 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약 30%는 중립적, 5%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여성의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67.6%인데 반해 남성은 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의 74%가 ‘기여’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남성응답자는 55%만이 기여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별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경제·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일반적인데 반해 여성은 주로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다가 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하게 된 사례가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는 공동체사업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여성의 지속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표 IV-48 】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의 기여정도에 대한 성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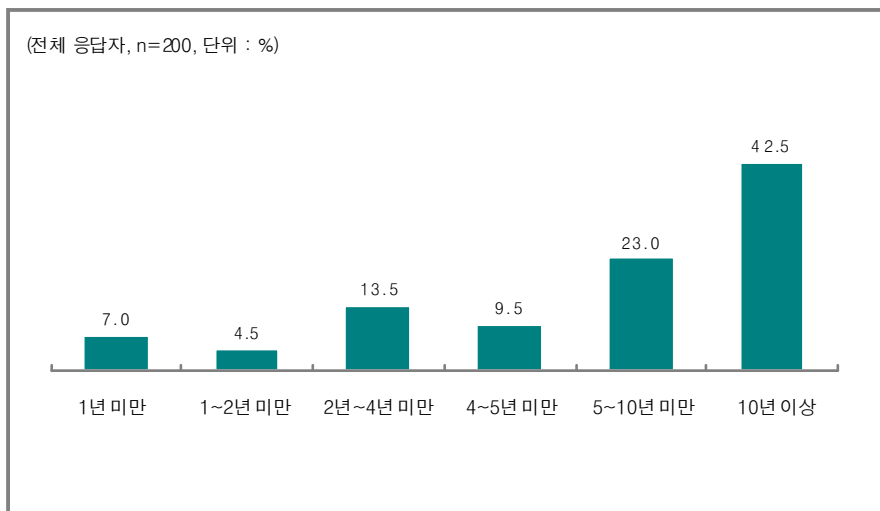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	합계	73	100.0%	20	100.0%
	크게 기여	11	15.1%	2	10.0%
	기여하는 편	41	56.2%	12	60.0%
	그저 그러함	17	23.3%	4	20.0%
	거의 기여하지 못함	3	4.1%	2	10.0%

구 분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기여하지 않음	1	1.4%	0	0.0%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	합계	72	100.0%	20	100.0%
	크게 기여	8	11.1%	1	5.0%
	기여하는 편	36	50.0%	9	45.0%
	그저 그러함	23	31.9%	8	40.0%
	거의 기여하지 못함	4	5.6%	2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	1.4%	0	0.0%
행정이 아닌 사람 중심의 마을실현	합계	72	100.0%	20	100.0%
	크게 기여	9	12.5%	3	15.0%
	기여하는 편	43	59.7%	10	50.0%
	그저 그러함	17	23.6%	6	30.0%
	거의 기여하지 못함	3	4.2%	1	5.0%
	전혀 기여하지 않음	0	0.0%	0	0.0%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	합계	74	100.0%	20	100.0%
	크게 기여	10	13.5%	1	5.0%
	기여하는 편	40	54.1%	11	55.0%
	그저 그러함	22	29.7%	6	30.0%
	거의 기여하지 못함	2	2.7%	2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0	0.0%	0	0.0%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	합계	73	100.0%	20	100.0%
	크게 기여	12	16.4%	1	5.0%
	기여하는 편	42	57.5%	10	50.0%
	그저 그러함	17	23.3%	7	35.0%
	거의 기여하지 못함	1	1.4%	2	10.0%
	전혀 기여하지 않음	1	1.4%	0	0.0%

## 4. 일반시민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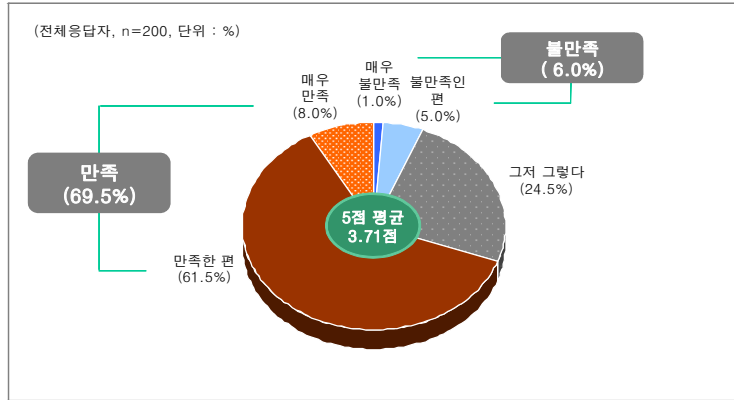
### 1)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_만족도

일반시민의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거주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현 거주지 거주기간은 '10년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10년 미만 23%로 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65.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이 한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공동체를 형성하고 동일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IV-1 ■ 현 거주지 거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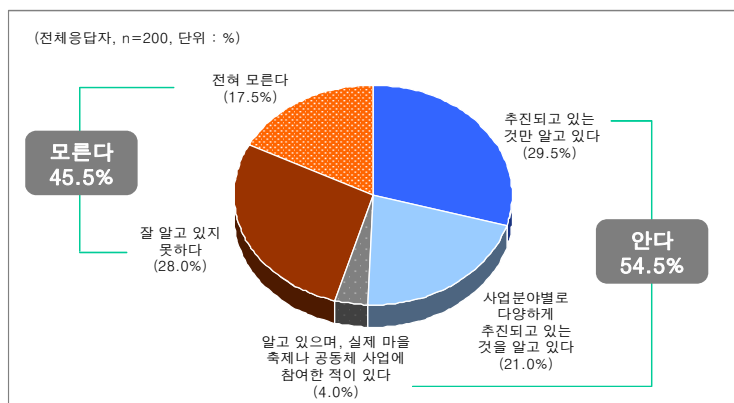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70%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인편)은 6%에 불과하여 서울지역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림 IV-2 ■ 현 거주지 만족도

##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지도와 참여의향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5%, ‘모른다’ 45.5%로 절반이상의 응답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공동체 사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림 IV-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인지도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경로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게 된 경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게 되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지경로는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거리의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통해서’가 22.9%, ‘지역방송이나 케이블 TV를 통해서’ 2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인지경로는 성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주로 TV 등 공중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4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지역 방송이나 케이블 20.4%로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66.7%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지역방송, 케이블 TV 36.4%, 거리의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통해서가 30.9%로 남성에 비해 거주지역과 밀접한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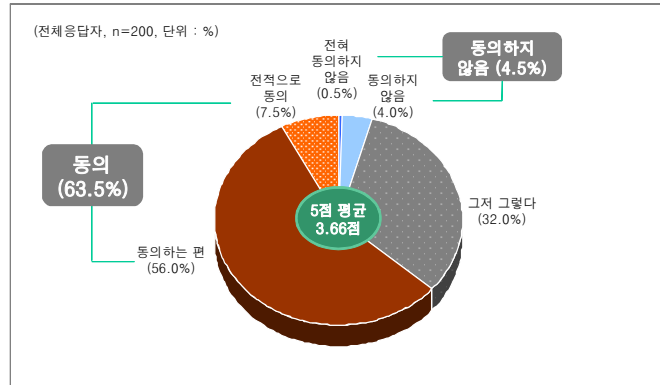
■ 표 IV-49 ■ 성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지경로(N=109,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9	100.0	55	100.0	54	49.5
TV,라디오,신문등 대중매체	35	32.1	10	18.2	25	46.3
지역(동네)방송, 케이블 TV,지역신문을 통해서	31	28.4	20	36.4	11	20.4
거리의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25	22.9	17	30.9	8	14.8
시(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서	12	11.0	7	12.7	5	9.3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4	3.7	1	1.8	3	5.6
이웃,통/반장,친구 등 입소문으로	2	1.8	0	0	2	3.7

□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대한 동의정도와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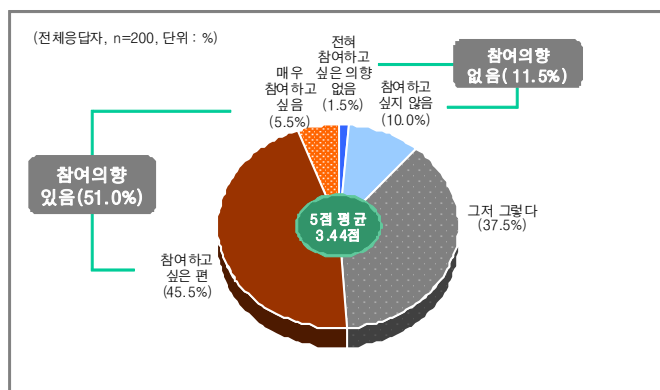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도시생활에서 ‘공동체를 통한 인간성 회복’이나 ‘사회적 연대’ 형성이라는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질문하였다. ‘동의한다’(전적으로 동의+동의하는 편)는 전체 응답자의 63.5%인 반면 동의하지 않음(전혀+동의하지 않음) 4.5%에 불과해 ‘도시생활에서

공동체 형성과 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응답은 여성과 남성이 차이 없이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다.



■ 그림 IV-4 ■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공감 정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실제 참여하고 싶은 의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참여의향 있음'(매우+참여하고 싶은 편)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1%로 나타난 반면,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은 11.5%로 나타났고, 중립적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7.5%로 나타나고 있어 참여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응답은 성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그림 IV-5 ■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의향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중 참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참여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24.5%, ‘아동돌봄 및 교육’과 ‘주거환경개선’이 각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는 성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사업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 20.8%(남성 9.3%), 아동돌봄 및 교육 16.7%(남성 13%)인 반면, 남성은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27.8%(여성 20.8%), 주민 커뮤니티 운영 14.8%(여성 8.3%)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는 여성과 남성 모두 높은 참여의향을 보인 분야이다.

표 IV-50 참여하고 싶은 마을공동체 사업분야(N=102, 참여의향 있는 사람)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2	100.0	48	100.0	54	100.0
문화/예술 분야	29	28.4	13	27.1	16	29.6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25	24.5	10	20.8	15	27.8
아동돌봄 및 교육	15	14.7	8	16.7	7	13.0
주거환경 개선(안전 등)	15	14.7	10	20.8	5	9.3
주민커뮤니티 운영	12	11.8	4	8.3	8	14.8
복지	6	5.9	3	6.3	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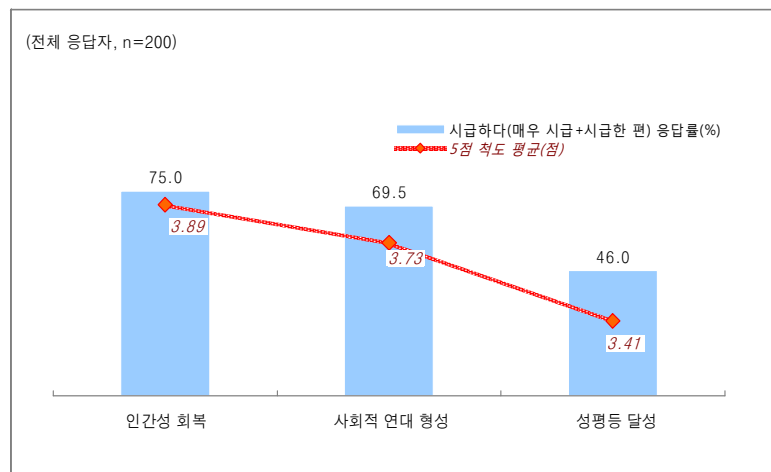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n=23)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39.1%), 이웃이나 지역주민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26.1%), 잘 알지 못해서(17.4%)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생활에서 경쟁과 여유 없는 생활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

####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실현이 시급한 가치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 시민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사업의 철학이나 이념,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따라서 시민들은 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가치실현에 갖는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 '인간성 회복', '사회적 연대형성', '성평등 달성'-로 구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다음과 같은 가치 실현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인간성 회복'이라는 가치실현에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75%가 시급(매우시급+시급한편)하다고 응답하여 세 개 가치 중 가장 시급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형성으로 '시급'하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으나, 성평등 달성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46%만이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5점척도로 했을 때, 평균점수는 각 3.89점, 3.73점, 3.41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응답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치는 '인간성 회복'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남성은 3.99점인 반면 여성 3.78점으로 0.21점이나 남성이 높은 반면, 성평등 달성 가치에 대해서는 남성 3.25점, 여성 3.57점으로 남성이 여성에 0.32점 낮게 나타나 성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 달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IV-6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도

【표 IV-5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도

구분	N	여성 평균(점)	남성 평균(점)
합계	200(명)	100(명)	100(명)
인간성 회복	3.89	3.78	3.99
사회적 연대형성	3.73	3.72	3.73
성평등달성	3.41	3.57	3.25

##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주체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주체로는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상담원, 조력자, 컨설턴트의 지원’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32.0%), ‘서울시나 자치구, 주민센터 등 행정공무원 주도’(15.5%)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담원, 컨설턴트 등과 같이 마을활동가에 대한 주체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상담원, 조력자, 컨설턴트 지원’ 항목 44.0%, 해당 지역 주변의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민-관협력 1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성응답자는 ‘서울시나 자치구, 주민센터 등 행정공무원 주도’ 21%, ‘주민커뮤니티 운영’ 14.8% 등 응답이 크게 구분되고 있다.

【표 IV-52】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주체에 대한 성별 인식

구분	Base for %	서울시나 자치구, 주민센터 등 행정공무원 주도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상담원, 조력자, 컨설턴트의 지원		해당지역 주변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		주민 커뮤니티 운영		
		N	%	N	%	N	%	N	%	N	%	
전 체	200	31	15.5	64	32.0	85	42.5	20	10.0	12	11.8	
성별	여성	100	10	10.0	34	34.0	44	44.0	12	12.0	4	8.3
	남성	100	21	21.0	30	30.0	41	41.0	8	8.0	8	14.8

### ③ 마을공동체 사업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 1순위로는 ‘이웃,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 활성화’(21.0%), ‘이웃,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16.5%)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성별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활성화’를 꼽은 응답자는 여성응답자의 28%인 반면, 남성은 14%에 불과해 꼭 절반 수준이다. 또한 이웃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여성 37%로 남성 33%에 비해 높아 여성들은 사업에 대한 인식과 감성적 공감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 주로 ‘이웃,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19%(여성 14%),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18%(여성 9%)로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 성별 응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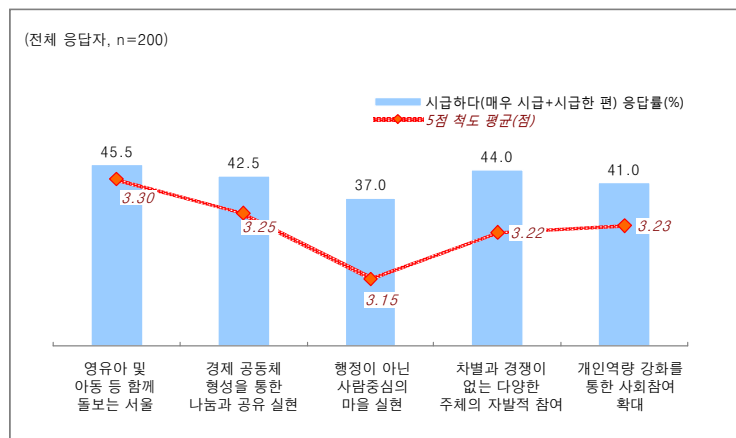
【 표 IV-53 】 마을공동체 사업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

구분	Base for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활성화		이웃,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이웃,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마을이슈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획능력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를 위한 양육 및 돌봄지원 체계 마련		
		N	%	N	%	N	%	N	%	N	%	N	%	
전 체	200	42	21.0	70	35.0	33	16.5	21	10.5	27	13.5	7	3.5	
성별	여성	100	28	28.0	37	37.0	14	14.0	10	10.0	9	9.0	2	2.0
	남성	100	14	14.0	33	33.0	19	19.0	11	11.0	18	18.0	5	5.0

### ④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여 정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데 얼마나 시급한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44.0%), ‘경제공동

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42.5%)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일 때 점수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이 3.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주민들은 공동체 의식, 공동체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의식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성별 응답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V-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도

한편,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 없다'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책의 홍보 부족'(12.2%), '현장참여의 중요성 필요/실제 경험이나 접한 적 없다' 및 '시행 정책에 대한 활용 부분이 적다'(9.8%)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 형성과 신뢰회복, 사회적 연대 등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 단기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조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 1) 성 평등 가치 강조 필요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설계에 있어서 강조점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이 추구한 정책목표는 ‘성장’이나 ‘발전’과 같은 양적 확대와 확산에 초점이 두어졌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각종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러한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더욱 필요성이 요구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마을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연대형성, 호혜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치에는 ‘성평등’ 가치가 얼마나 내재되어 있으며, 공동체 사업의 틀에 얼마나 녹여져 있을까? 실제 이 사업에 주요 활동가나 사업참여자들은 본 사업에 성평등 가치가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 당초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성평등’ 가치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조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성별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설문조사에서 성평등 가치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동가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을주민의 성별 수요를 고려한다는 활동가의 인식은 여성 3.35점, 남성 3.34점으로 나타났다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고려는 여성 3.68, 남성 3.88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5점 척도 중 3점이면 중간이나, ‘성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중립적 응답은, 이것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 참여자의 인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비전과 목표체계, 사업운영 방식 등에서 성평등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약 60%만이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절반을 약간 넘는 응답자만이 성평등 가치 반영에 긍정하고 있었다.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한 응답한 응답자 중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성평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평등' 가치를 간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활동가나 참여자의 응답은 '성 평등'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응답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만 제기해온 성평등이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할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성별 통합성'에 대한 문항에서 세대간 통합, 계층간 통합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시급성을 보인 반면(각 4.21, 4.17)을 보인 반면, 성별 통합성은 3.57점을 나타내 가장 낮은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어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도 낮은 시급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정한 연대와 호혜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내부에 깊이 잠재해 있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강조는 계층간, 세대간 등 여타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 2) 마을지역에서 권력적 요소의 성별 편중

일반적으로 마을지역에서의 주요 활동주체가 여성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 활동 주체가 되면서도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적 요소에 대해서는 여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미약하다.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다양한 권한적 요소가 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요한 권한적 요소는 크게 의사결정 권한과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활동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보다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권한적 요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먼저, 의사결정지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공동체의 다양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남성은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와 '사무국장'의 위치에 있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이사나 운영위원, 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 내에서의 유교적인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지역사회나 공적영역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조직이나 단체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정보력이라

할 수 있다. 활동가에게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성 응답자는 약 51%만이 충분(매우충분+충분한편)하다고 인식한 반면, 남성은 73.1%가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이 느끼는 정보활동에서의 소외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요 정보의 획득방법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여성은 공식적인 회의, 세미나, 워크숍, 동아리 활동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남성은 비정기적 모임이나 회의 전-후의 회식모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인해 정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은 역시 가사와 육아 등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기 때문임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별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 백년 동안 이어져온 관습적 행동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습득한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활동가의 성별 활동실태 및 역량의 특성

마을지역에서의 주요 사업참여자 수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활동의 경력과 연한, 그리고 마을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가의 1일 평균 활동시간은 여성 6.64, 남성 9.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 평균 활동일 수는 여성 4.5일, 남성 5.09일로 남성이 약 0.5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경력이나 연한에 대해서도 여성은 2~4년이 3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5~10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참여 경험과 사회참여 활동시간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실생활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조사결과이다.

한편, 활동가의 역량과 관련하여 활동가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갖는 역량의 충분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 여성은 정보수집, 구성원간 소통역량,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역량에서 남성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 여성은 내적 역량과



관계(relationship) 역량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남성들은 다른 단체나 지역과의 네트워크 역량, 시 및 자치구와의 관계 등 주로 외부적이고 공식적인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량의 성별 특성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4) 활동가의 인력양성 체계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간지원인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사업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척도일 때, 여성 3.69, 남성 3.70). 그럼에도 활동가 스스로는 그와 같은 인력양성체계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낮은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활동수당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남성 2.88점, 여성 3.02점으로 남성이 더 낮게 나타났고, 활동방법도 남성 2.95, 여성 3.00점, 사업분야별 전문성은 여성과 남성이 각 3.31, 3.32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마을활동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참여자가 조사에서도 현행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여성은 ‘개선필요하다’(매우필요+필요)는 응답이 여성 82.2%, 남성 75%로 여성이 더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인력양성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 5)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율성에 대한 성별 인식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또 하나의 특성 중 하나는 ‘행정’이 아닌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서울시 공동체 사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주도의 공동체 사업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활동가 및 마을 사업 참여자 조사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활동가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나 자치구의 지침이나 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절반이하의 응답자(46.6%)만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주로 소속단체나 모임(89.7%), 마을주민의 수요(85.6%)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활동가 본인의 경험이나 주관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89.7%나 되고 있어 활동가에게 많은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활동가가 갖춰야 하는 전문성과 자질로써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활동가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 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성과 다양성 제고 방안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통합성과 다양성은 주요한 용어이다. 다양한 마을주민의 욕구를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다양성의 분야로 공동체 가치로서, ‘성평등 인식 교육’이나 ‘평등관계’와 같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강조가 개방형으로 제안되었고, 대상계층으로 청년, 청소년, 직장남성, 직장여성, 중소기업, 중장년 남성들의 참여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 공간확충, 주민교육, 위생안전 및 건강, 자원활동 등의 다양한 마을 이슈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과 연령층을 포괄하지 못하며 참여대상자 층을 더욱 크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층간, 세대간 통합의 필요성 요구가 높음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이와 같은 다양한 마을 성원들의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여 통합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1.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2. 사업 기반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3.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4. 요약과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V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 1.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 1)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구성과 변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체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정책단계별 세부 분석에서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과 개선조치로 단순화되고 있다. 즉, 정책의 성별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지표는 매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발전·진화하고 있다. 크게 2단계의 발전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시범적용기’와 ‘제도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07~2010년까지는 시범적용기로 정책단계별로 성별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점검항목으로 구성하여 공통사항으로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 정책입안 및 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별 점검지표로 구성하였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한 초기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는 정책단계별 성별 현황 및 특성분석을 위한 점검리스트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즉,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이라는 공통사항과 정책입안 및 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 단계에 따라 각 15개, 16개, 1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기 전 2011년 평가지표는 크게 2개 부문으로 성별현황분석과 정책개선지표로 구분되고 있으며, 성별현황분석의 범주에 사업모집단 및 참여자 집단의 성별 통계, 위원회 성별비율, 예산집행 및 만족도의 성별 현황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성별격차원인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개선지표에는 정책개선 방안으로 관련 법령·지침·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방식, 예산편성 개선안,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방안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개선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분석평가지표 구성을 크게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과 ‘성평등조치사항’으로 구분하여 성별통계를 토대로 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성평등조치 항목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평가를 통한 사업개선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 성별영향평가 지표 변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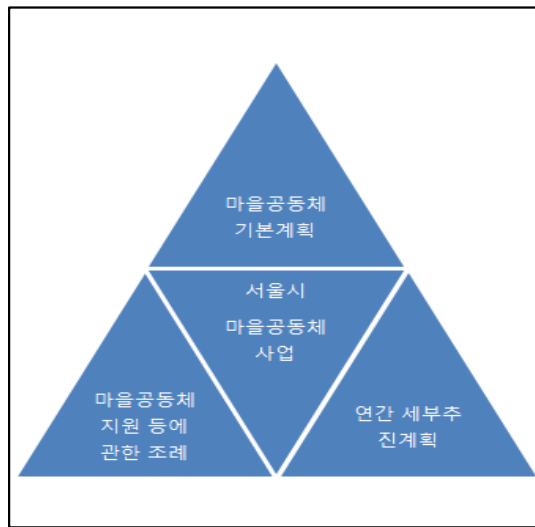
시범 적용기			제도화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동 - 성별통계	공동 - 성별통계	공동 - 성별통계	성별현황분석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분석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분석
정책과정 - 정책입안 및 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책과정 - 정책입안 및 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책과정 - 정책입안 및 형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책개선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2)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설정

2013년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범위는 법령, 계획, 사업으로 세분되어(「평가법」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모든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범위를 법령과 계획까지 확대한 것은 성별에 따른 특성 분석을 단기적·일회적인 사업 뿐 아니라 법령이나 계획과 같이 성별 특성의 반영에 있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조례, 기본계획과 같은 기반 체계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별 관점을 반영하는 완벽

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와 같은 세 개 기반 체계 구성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그림 V-1 ■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영역

즉,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 조례나 관련 시행규칙, 기본계획과 같은 기반체계는 과연 마을공동체 내 주민과 활동주체들간의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별 특성과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를 토대로 본 사업에서 평가할 분석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법령의 분석지표는 크게 세 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여부 및 개선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계획은 크게 두 개 범주로 되어 있으며, 비전과 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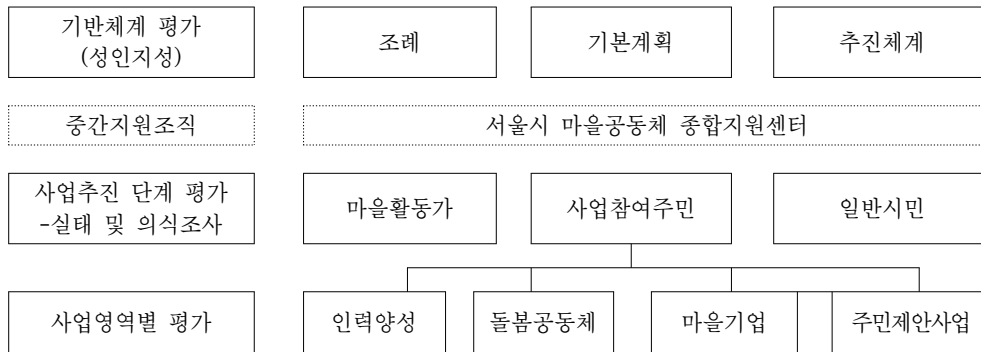
및 중점과제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부문으로 구성되며 세부 분석항목은 크게 네 개이다. 사업은 정책환경의 성별특성과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2개 이며, 모두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성별 요구도 1개 지표, 사업의 성별 형평성 2개 지표, 성평등 조치사항 지표 3개이다.

【 표 V-2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상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지표

법령		계획		사업	
①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가능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1. 사업의 요구도 ①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
② 성별 고정관념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4.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II. 전략 및 중점 과제	2. 성별요구도 ②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②사업수혜에서 성별 특성 ③예산배분에서 성별 특성 반영
③ 성별 특성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3. 성별 형평성 ③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④법령 반영 계획 ⑤사업(또는 과제)반영 계획	성평 등 조치 사항
			⑥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이상과 같은 현행 분석평가법에 기초한 대상영역의 범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 기반체계 평가는 크게 기본계획, 자치법규(조례), 그리고 추진체계로써 관련위원회, 사업담당부서 등의 성별 특성을 평가하며,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집행 및 사업개선에 대한 평가는 실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와 사업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평가한다.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활성화를 위한 일반시민의 사업에 대한 성별 수요는 일반시민 의식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영역에 따라 선정된 네 개 사업영역 참여자에 대해 사업과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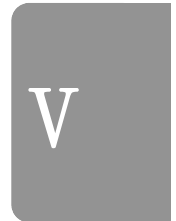


【그림 V-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영역과 범위

각 영역별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반체계 평가항목으로 크게 자치법규나 지침, 기본계획, 추진체계, 기반조성 요소로 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한 평가자료의 출처는 각 항목별 연관된 자치법규, 기본조례, 마을공동체 사업담당부서 조사 및 성별분리통계 여부는 사업계획서 혹은 각종 지원서류에 대한 성별 구분자료여부로 판단한다.

【표 V-3】 기반체계 관련 분석평가 항목 및 분석내용

구분	항목	주요 분석 내용	자료 출처
기반 체계 평가	법·지침	-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가? - 성별 특성 반영해야 할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가?	시·자치구 조례분석
	기본 계획	-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기본계획 성별 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자치구 마을공동체 사업담당 부서 인력과 성별구성 - 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적정한가?	시·자치구 담당부서 조사
	성별 통계	-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양식은 성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각종 사업지원양식등 주요 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용되고 있는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의 성별특성 도출을 위해서 필요한 성별 분리통계는 무엇인가?	조례,사업지침 양식조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크게 계획 및 집행단계와 이후 사업평가 및 사업개선 도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4 마을사업 추진단계별 평가항목과 분석내용

구분	항목	주요 분석 내용	지표 출처
마을 사업의 계획 및 집행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마을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는가?</li> <li>-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획안에 성별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li> <li>-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li> </ul>	마을활동가 조사
	사업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자 지위의 성별 비율은 적정한가?</li> <li>- 마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방식-회의, 다수결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마을활동가 조사
	정책수행 방식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여성 활동가와 남성활동가에게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가?</li> <li>- 마을사업의 참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li> </ul>	마을활동가 조사
사업평가 및 사업개선	사업수혜의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수혜자 성비는 사업대상 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가?</li> <li>- 사업 수혜자의 주관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li> </ul>	영역별 참여자 조사
	사업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지침상 성평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나?</li> <li>- 사업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기회,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개선방안은 무엇인가?</li> <li>- 마을사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li> </ul>	영역별 참여자 조사

## 2. 사업 기반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sup>25)</sup>

### 1)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 (1) 조례의 내용과 구성

기반체계의 성별분석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조례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모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행정기관의 조례 제정 시기는 대체로 2012년에 집중되어 있다. 조례 제정과정을 보면 서울시가 2012년 3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치구가 이어서 제정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와 성북구는 각각 2009년과 2011년에 서울시보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두 자치구는 서울시의 조례 제정 직후 자신들의 조례의 수준과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조례는 총 4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의 조례도 대체로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제1조의 ‘목적’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 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포괄적인 규정과 함께, 특히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장 큰 특성으로서 행정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는데, 행정의 ‘지원’역할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의 추진주체가 바로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을 보는 시각이 기존의 공공사업에서 강조되던 ‘책무성’, ‘촉진’, ‘추진’ 등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시각은 제3장 ‘기본원칙’에서 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기본원칙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고, 둘째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고 명시하여 앞서 조례 ‘목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며, 셋째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넷째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즉 목적과 기본원칙은 용어의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25) 본 절(pp.149~169)은 김애령 소장이 작성함



【표 V-5】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제정 및 내용 현황

연 번	자치구명	제정여부 (시기)	조례내용				비고 (특이사항)
			1장 총칙	2장 사업	3장 위원회 설치	4장 지원센터	
1	서울시	2013.05.16.	○	○	○	○	
2	종로구	2012.05.04	○	○	○	○	
3	중구	2012.09.26.	○	○	○	○	
4	용산구	2012.08.10	○	○	○	○	
5	성동구	2012.05.31.	○	○	○	○	주민협의체
6	광진구	2012.11.23	○	○	○	○	마을공동체사업:
7	동대문구	2012.08.09	○	○	○	○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 협의체(정의)
8	중랑구	2012.07.26.	○	○	○	○	
9	성북구	2011.10.21	○	○	○	○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 을만들기 지원조례)
10	강북구	2012.07.27	○	○	○	○	
11	도봉구	2012.07.25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 을만들기 지원등에 관 한 조례)
12	노원구	2012.06.28.	○	○	○	○	
13	은평구	2012.06.14.	○	○	○	○	- 마을협의체
14	서대문구	2012.11.07.	○	○	○	○	- 마을아름지기사업 - 공간나눔
15	마포구	2012.09.27	○	○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 기좋은 마을만들기 지 원 조례)
16	양천구	2012.06.20.	○	○	○	○	
17	강서구	2012.10.10	○	○	○	-	- 마을학교,마을기업(정의)
18	구로구	2012.10.11	○	○	○	○	
19	금천구	2012.09.28	○	○	○	○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워크숍, 국·내외 견학 포함
20	영등포구	2012.11.01	○	○	○	○	
21	동작구	2012.08.02	○	○	○	○	마을협의체 (정의)

연 번	자치구명	제정여부 (시기)	조례내용				비고 (특이사항)
			1장 총칙	2장 사업	3장 위원회 설치	4장 지원센터	
22	관악구	2012.08.16	○	○	○	○	- 마을기업, 마을학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주민 협의체(정의)
23	서초구	2012.10.04	○	○	○	○	
24	강남구	2012.09.28	○	○	○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25	송파구	2012.10.22	○	○	○	○	주민협의체
26	강동구	2012.09.12.	○	○	○	○	-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정의) - 마을공동체 사업: 건강 증진, 국내·외 선진마을 견학 및 교류사업, 학습·교육 포함

그런데 조례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주민 주도형 사업의 특성과는 모순적으로 행정의 역할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행정은 기본계획(6조)과 시행계획(7조)의 수립 및 공고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8조)하며, 지원신청(10조)을 받고,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을 지원(제14조)하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22-28조) 하는 등 기획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요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6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정책방향과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에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가 주민이라고 명시되고 있을 뿐, 기본계획과 기획, 사업의 선정과 지원, 평가 등에 있어서 모두 행정이 중심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행정과 주민 간에 상호 역할의 배분이 협력적이기 보다는 여전히 지시에 대한 수행으로 일방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여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그 동안 지역발전이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지역사회의 '외형적'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민자



치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조(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고 통합될 수 있고 그 혜택을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례의 한계 중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조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제3조와 제15조 등에 성별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 제3조(기본원칙)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조례 제15조(구성),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에 성별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 (3) 한계와 개선과제

지난 1970년대 이래 서구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마을공동체는 성별을 인식하여 여성친화성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공간구조, 주거 및 교통 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여성의 일상적인 행동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로 재설계해내고 있다.<sup>26)</sup> 특히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는 도시와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양성 모두의 정주권 문제가 중요 의제로 부각되었다.<sup>27)</sup>

26) 여성가족부(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11쪽

27) 정주(settlement)란 일정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일들을 영위하는 생산과 거주 활동이자 그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를 가리킴. 즉 마을은 곧 ‘정주지’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앞서 언급한 ‘마을공동체의 정의’ 뿐 기본원칙, 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간 정주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항목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마을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사회경제적인 빈곤과 차별로 인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례의 기본원칙 혹은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서 성별 혹은 성별 특성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2년 시정 전반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조례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되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와 사업 등은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원칙에 있어서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의 성별 특성을 명시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참여 및 동등한 활동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책무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의 성평등 가치를 내포하고 이에 대한 시민과 시장의 책무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선정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표 V-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선방안

분류	조문	주요내용	개선안
I. 목적 정의 원칙	제1조 목적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의 성별, 성별에 따른 공동체 참여의 수준, 의사결정의 차이, 공동체 내의 성역할의 차이 등을 고려할 것</li> <li>· 성평등한 주민공동체 회복과 성평등한 참여, 성별·국적 등 주민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등</li> </ul>
	제2조 정의	마을은 공간적, 사회적 범위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 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제3조 기본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공동체 회복</li> <li>2. 주민의 참여, 주민이 주도</li> <li>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li> <li>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li> </ol>	



분류	조문	주요내용	개선안
II 책무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 책임과 역할, 적극적인 참여	·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 - 성평등한 책임과 역할, 성평등한 참여 등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는 적극 지원, 활성화 정책의 지속 추진	· 시장은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를 적극 지원
III 사업	제10조 의 2 지원사 업선정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사업선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사업선정심의회에 성별영향분석 평가 전문가 포함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⑤ <생략>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u>성별 균형을 고려한다.</u> ②~⑤ <생략>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서울시는 자체 조례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조례에 관련 내용을 제·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많은 자치구에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및 책무 등에 ‘성평등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지원사업 등 선정시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도 여성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여성주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 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가능성
II.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1) 비전과 목표: ①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12년 처음 수립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비전은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로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에는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통해 삶의 질 회복과 시민과 행정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중립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용에 있어 명확한 지향을 담아내기에는 추상성과 규범성이 커서 비전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전략 및 중점과제

### ② 성별요구도

또한 현행 기본계획에는 마을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분석없이 사업대상, 사업참여 주체로서 마을활동가 양성에서 여성을 주요 수혜자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여성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배분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고, 여성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으며, 마을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행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3년은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불과 1여 년에 불과하여, 아직 기본계획의 성과가 무엇이며 어떠한 실적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계획상 사업 추진이 '마을활동가 2017년 3,180명 양성'과 같이 성과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히려 행정의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공동체 사업 중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에 대한 그림도 마을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남성 중심의 마을활동이 성평등적으로 그리고 다원적으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성별 형평성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체로 다양한 주민제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에 따라서 참여대상이 구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육아·경제·생태·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모커뮤니티 사업의 경우 2013년 수혜인원 19,100명에서 2017년까지 71,900명으로 무려 3.7배를 확대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직장맘, 맞벌이 부부, 한부모, 예비부모 등이 수혜자인 동시에 참여자가 되는 사업으로서 부모 인성교육, 자녀 정서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사회적으로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등과 같은 젠더관계의 변화, 특히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촉진 정책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부모커뮤니티 참여자의 성별 현황, 향후 수혜인원의 성별 현황 예측, 의사결정과 운영에 남녀가 각각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3)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영역에는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추진지원체계 특성, 의사결정과정의 양성평등성, 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구분하였다.

【 표 V-7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영역과 분석지표

영역 및 세부영역	분석지표
(1) 성별통계의 생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양식의 성별 통계가 가능한지 점검</li> <li>·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서 등 주요 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li> <li>·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한 양식이나 문서, 지침 여부</li> </ul>

영역 및 세부영역	분석지표
(2) 추진지원체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주무부서 설치 여부, 위상과 규모</li> <li>· 담당부서의 주요기능과 역할의 젠더 인식</li> <li>·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공무원 주요기능과 역할에 있어서</li> </ul>
(3) 의사결정과정의 성별균형 참여(마을공동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역할(이념과 가치)</li> <li>·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성별구성(지침과 현황 평가)</li> <li>·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에서 성평등 가치에 대한 논의나 언급 (주요 회의내용분석-14회)</li> </ul>
(4) 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내용 분석(홍보내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가치의 도출, 홍보에서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활동)</li> <li>· 홍보방식의 다양성 여부(성별, 연령별 접근가능성 있는지 등)</li> </ul>

### (1) 성별통계의 생산과 활용

마을공동체 주민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초 통계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각종 문서나 서식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마을주민이 모든 사업대상자가 되며 마을이슈나 의제발굴을 위해 구성원의 성별·연령별 등 특성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표>는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각종 서식이나 제출 요청자료의 서식 정보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응시원서, 사업제안서, 공모사업 제안서, 마을주민 교육, 강좌신청서, 마을기업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각종 서식이 있으며, 각 서식은 사업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성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양식은 세 개(활동가 양성사업 중 상담원 응시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 일꾼 양성,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신청서)에 불과하다. 특히 마을사업에는 개별 주민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각종 모임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의 정보는 인원수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개인정보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마을구성원의 인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식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보를 담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는데 한계를 가지므로 기본정보에 대한 요소는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서식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고, 필수정보에는 성별 등 주요 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표 V-8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각종 서식의 정보현황

구분	문서제목	포함정보(개인 및 단체)	비고 (성별유무확인)
응시원서	활동가 응시원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지위, 휴대폰번호, 이메일	
	상담원 응시원서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지위, 휴대폰, 이메일, 주소	성별자료포함
제안서	사업제안서(제안자)	성명, 소재지, 대표자(연락처), 현황: 운영진수, 회원수 단체현황: 상근활동가수, 임원수, 회원수 주민모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공모사업	우리마을 돌아보기	성명, 주소, 주요활동경력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사업제안서	- 제안자:제안자, 대표1인 소재지, 대표자 - 제안자현황: 주민모임-운영진수,회원수, 상근활동가수 - 단체현황: 임원수, 회원수	
	공모사업제안서	공동체활성화 단체명, 회원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10인이상 입주민
각종교육,강좌 신청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심화 일꾼 양성교육	이름,생년월일,성별,연락처,이메일,주소	성별자료 포함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학습자모임대표: 성명(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이메일,주소	성별자료 포함
	서울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	- 주민대표: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제안자2: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제안자3: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마을기업	씨앗기 교육·실행신청서	성명,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창업관심분야, 신청자수	
	조사결과보고서	성명,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사지역, 조사대상	
	창업기지원신청서	성명,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계획서	성명, 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창업위치(주소)	

## (2) 추진지원체계의 성별 특성

특히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 행정의 일방적 기획과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서 탈피하여, 기획과 운용의 자율성, 지속 가능성, 호혜성 등과 같은 가치를 그 기반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종래의 ‘행정-기획관리’, ‘민간-수혜’의 이분법적 관행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주도형’ 혹은 ‘마을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이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중간 지원조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정협의회 운영, 공공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주무부서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점검·분석한다.

###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우선 서울시의 업무 주관부서의 명칭은 2012년 상반기에 서울혁신기획관(국장급) 산하에 설치된 ‘마을공동체담당관’이다. 담당관 산하에는 ① 마을기획팀, ② 마을협력팀, ③ 마을사업팀의 총 3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3개 팀의 총 인원은 12명에 불과한데, 서울시청 내 여타 부서에 비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처럼 주무부서의 담당직원 수가 적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각 실국이 단위사업(약 16개 사업으로 추산)을 자체적으로 기안하고 집행하기 때문인데, 마을공동체담당관실은 주로 <표 3-5>에서와 같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교육,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등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한편 담당인력의 성별 현황은 2012년 서울시 일반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40.9%<sup>29)</sup>이므로, 이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8) 서울시 혁신기획관(2013),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출처: <http://www.seoulmaeul.org>), 6쪽 참조.

29) 서울시, 『서울통계연보』(2012년), 420쪽.



【 표 V-9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업무분장 및 인원

팀 명칭	업무 분장	담당인원
마을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사업 시행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li> <li>·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li> <li>·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li> <li>·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 및 회계 관리</li> <li>·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li> </ul>	6명
마을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국·부서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총괄</li> <li>·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조정 및 평가 추진</li> <li>· 자치구 등 타기관·단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협력</li> <li>· 마을공동체 법인·민간단체 등록</li> <li>· 마을공동체 공무원 교육(현장워크숍 등)</li> </ul>	3명
마을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마을공동체 추진</li> <li>·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li> <li>· 마을공동체 사업선정심의회 운영 지원</li> </ul>	3명

□ 자치구 주무부서 현황

한편 25개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모두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2013년에는 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체 공모하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19개 자치구가 자치행정과 소속의 ‘마을공동체팀’ 혹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형식적, 내용적으로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 광진구와 서대문구는 ‘마을공동체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시급성과 부서간 협력을 강조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랑구, 양천구 등 4개 자치구는 ‘마을공동체’라는 사업명 대신 ‘자치사업팀’ 혹은 ‘주민자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성격을 강조하는 부서명으로 보인다. 성북구와 금천구는 보다 특성화된 주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북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회경제과 내에 마을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는 가장 많은 인원수(13명)로 구성된 ‘팀’보다 상위의 조직 (‘마을공동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 추진체계의 특성: 마을공동체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체계 이원화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무부서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체제와 조례 제정 등이 신속하기 이루어진 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마을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을자원에 대한 성별 통계 생산 등 성주류화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여성정책(혹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안전마을 구축, 다양한 가족지원 등 공통의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추진체계와 계획 하에 시행되면서 협력시스템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

【 표 V-10 】 자치구별 주무부서 현황

주무부서 명칭	기관수 (개)	해당 자치구	평균담당인원 (명)
자치행정과 (혹은 유관부서) 마을공동체팀 (혹은 마을공동체지원팀)	19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희망마을담당관),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문화행정과), 강동구 * 세부 부서명 - 광진구·서대문구: 마을공동체지원 T/F팀 - 도봉구: 마을만들기지원팀 - 노원구: 마을만들기 기획팀 - 구로구: 마을공동체 추진반 - 강동구: 마을공동체육성팀	3.5
자치행정과 (혹은 유관부서) 자치사업팀 (혹은 주민자치팀)	4	중랑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 송파구: 자치지원팀 강남구: 주민지원팀	5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지원팀	1	성북구	6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기획팀 등	1	금천구	13

□ 마을지향 행정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사업은 행정과 주민 간의 상호 신뢰를 통한 상호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관행이 바뀌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일종의 ‘행정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적으로 행정 혁신



의 대표적인 선행사례가 존재하는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성주류화 정책이다.

성주류화 정책은 공공정책의 성격과 본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즉 공공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성평등적 원리와 지침이 적용된 것처럼,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에도 일종의 마을지향 행정<sup>30)</sup>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sup>30)</sup> 마을지향행정의 특성은 <표>에서와 같이 주민주도형 절차, 포괄 예산제도, 과정 및 질적 평가방법 등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관행과 평가규범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마을지향행정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V-11 】 마을지향 행정의 추진방향

구분	마을지향 행정	추진방향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수시공모 지원 “배식에서 뷔페식으로 인큐베이팅 지원”</li> <li>· 입구는 넓게 출구는 좁게 “갈매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이 일방적으로 요건을 정하여, 공간을 짓거나 외형적인 성과를 조기에 건설(?)하는 방식을 지양하고,사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함.</li> <li>· 주민 혹은 여성 준비된 수준(성장단계) 만큼 주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식’ 전략임</li> </ul>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예산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꼬리표예산에서 바구니예산으로”, 기금형식도 고려.</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평가, 사람성장 평가, 질적 평가지표 (마을사업 &amp; 공무원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마을지향 행정&gt;</li> <li>· 행정의 지원이 마을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는가</li> <li>· 마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축적되고 있는가</li> <li>· 절대적 평가보다 상대적 평가, 변화정도 평가</li> <li>· 마을지향행정 제도화의 업그레이드</li> <li>&lt;성인지적 행정&gt;</li> <li>·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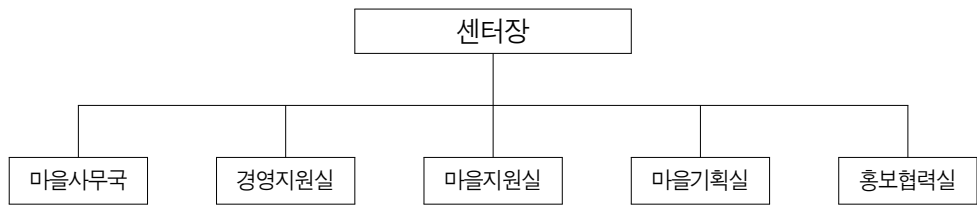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혁신기획관(2013),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출처 <http://www.seoulmaeul.org>), 10쪽 등 참조

한편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마을지향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30) 서울시 혁신기획관(2013),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출처: <http://www.seoulmaeul.org>), 10-11쪽 참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 활동에 참여해온 활동가들이 모인 사단법인 ‘마을에서 수탁·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1개의 사무국과 4개의 실행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의 세부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마을지원실에서는 주민 개인 혹은 주민들이 만든 네트워크(마을넷)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와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 각 부서의 사업 집행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문의, 신청,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일원화하여 진행을 하며, 행정과 주민 양자를 대상으로 맞춤형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필요시 강사진 파견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마을기획실에서는 자치구 등과 사업의 공동 기획과 실행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를 제공한다(지원센터의 기능은 <표 3-8>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센터는 다양한 주민의 수요와 요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도구나 방법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의 주민제안사업에서는 성별을 고려함으로써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 즉, 보살핌의 윤리와 일상적인 삶의 가치가 복원되고, 주관성과 감정의 중요성, 복잡성과 가변성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합지원센터에 젠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그간 마을공동체에서 통용되던 공사 이분법이 갖는 활동의 분절을 감소시키고 사회활동과 임금노동, 가정생활을 연결시키는 성인지적인 훈련을 마을활동가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의 산실인 커뮤니티 공간이 보다 성인지적으로 설계·활용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홈페이지: [www.seoulmaul.org](http://www.seoulmaul.org) 참조

■ 그림 V-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표 V -1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부서명	업무내용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 및 대·내외 네트워크
마을사무국	· 마을공동체사업 심사평가 및 관리 · 주민제안 접수 및 지원사업 집행 및 점검, 현장조사 및 조사원 배치 등
경영지원실	· 시의회 업무보고, 사무행정감사,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 센터의 인사 및 조직관리, 사업계획, 심사분석, 근무평정 및 기관경영평가 감사 등
마을지원실	· 서울시와 자치구 중간조직 협력체계 구축, 마을넷 활성화 · 소권역 마실모임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마을관련 실무 담당 · 마을공동체 교육 콘텐츠 기획, 마을강사 관리, 교육교재개발 등
마을기획실	· 사업종합 조정, 마을공동체 위원회 정책지원, 센터 기획 연석회의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탁사업운영관리 · 신규사업 기획 및 진행, 청년의제 발굴, 마을아카이브 자료축적, 마을행정지표 개발 등
홍보협력실	· 마을공동체 담론 형성지원,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협력, 연구과제 설정 및 계획 수립 평가 ·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구축 및 개발, 소식지 발간, 뉴스레터 발행, 홍보콘텐츠 운영, 홍보위원회 구축, 오피니언 리더 수축 · 마을아카이브 구축, 마을지원센터 기록 체계화 작업, 마을아카이브 표준 매뉴얼 개발, 마을 아카이브 만들기 교육 등

### (3)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 균형 참여

이번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례 특성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 V -13>에는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한 자치구 현황 및 위원회의 성별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의 2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등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공동위원장 중 1인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여성이 공동위원장인 위원회는 서울시와 중랑구.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등 6개 위원회이다.

서울시의 경우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25.0%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의 평균 여성비율이 27.6%라는 것<sup>31)</sup>을 감안하면 오히려 여성대표성 면에서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저조한 편에 속한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보다 상황이 나운데, 서초구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55.0%를 나타내고, 서대문구와 양천구는 여성위원 비율이 50.0%로 과반에 이르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위원회의 여성대표성 수준이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로 연계성이 큰 위원회, 예를 들면 ‘성평등 위원회’의 위원들을 호선하여 겸임하게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거버넌스 기구로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 기능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과 사업실적 평가 등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V-13】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

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유무 (있음 ○, 없음 ×)	총인원수	위원장(2인)*		부위원장		위원		여성 비율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23	14.6	0.3	1.3	0.2	0.5	4.7	7.7	32.9
서울시	○	20	1	1	0	1	4	13	25.0
종로구	○	15	1	1	0	1	5	7	40.0
중구	○	14	0	1	0	1	5	7	35.7
용산구	○	15	0	1	0	1	5	8	33.3
성동구	○	19	0	2	0	1	7	9	36.8
광진구	○	15	0	2	1	0	5	7	40.0
동대문구	○	12	0	1	0	1	2	8	16.7
중랑구	○	15	1	1	0	1	6	7	46.7
성북구	○ (운영위원회)	13	0	1	0	1	4	7	30.8
강북구	○	17	0	2	0	0	4	11	35.3

31) 2011년 서울시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은 27.8%로 나타남(당연직 여성비율은 17.3%, 위촉직 여성비율은 29.5%) 한편 25개 자치구의 각종위원회의 평균여성비율은 37.9%로 나타나고 있음. 2012년 『서울 여성통계』 참조



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유무 (있음 ○, 없음 ×)	총인원수	위원장(2인)*		부위원장		위원		여성 비율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도봉구	○	13		?		?	4	9	30.8
노원구	×	-	-	-	-	-	-	-	-
은평구	○	30	1	1	1	0	16	11	60.0
서대문구	○	20	1	1	1	0	8	9	50.0
마포구	○	15	0	2	0	1	2	10	13.3
양천구	○	14	1	1	1	0	5	6	50.0
강서구	○	15	1	1	0	1	3	9	26.7
구로구	○	15	0	2	0	1	3	9	20.0
금천구	○	15	0	2	0	1	4	8	26.7
영등포구	○	15	0	2	0	1	3	9	20.0
동작구	×	-	-	-	-	-	-	-	
관악구	○	15	-	2	-	1	5	10	33.3
서초구	○	20	0	2	1	0	10	7	55.0
강남구	○	7	0	2	0	0	2	3	28.6
송파구	-	-	-	-	-	-	-	-	-
강동구	○	17	0	1	0	0	6	10	35.3

\* 위원회는 공동위원회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록 분석

2012년 5월 신설된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2013년 10월 현재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대체로 초기의 회의안건은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예산안 등이었다. 그러나 2013년 들면서 점차 안건이 내용이 다양화해지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0월 4일 제7회 회의에서 유일하게 여성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을에서 여성들이 상부상조 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위원장의 제안과, “마을공동체와 여성정책을 같이 고민해서 싱글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보는게 좋겠다”는 방법론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례처럼 앞으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이 다양한 여성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행정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여성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V-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주요 안건

회차 및 일정	주요 안건	비고
2회 2012. 5.12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보고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3회 2012. 6.15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보고	
4회 2012. 7.10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보고	
5회 2012.8.23	· 종합지원센터 '12 사업계획	
6회 2012. 9.3	· 종합지원센터 '12 사업계획	
7회 2012. 10.4	· '1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 여성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추진현황	여성정책관련 안건 논의
8회 2012. 12.27	· 2012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분석 및 2012년 추진계획 보고	
9회 2013..1.14	· '13년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 분과위원회 구성, 홍보전략, 역점사업 추진 · 마을사업 다양한 주체 참여(주민자치위원, 기존직능단체 등 참여방안 및 활동가 양성)	
10회 2013.2.1	·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 실행계획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11회 2013.4.1	· 안전마을 추진계획 · 2013년 홍보종합계획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	
12회 2013.5.20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2년 및 '13년 1차 평가결과 및 대책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안) · 문화분야,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안전마을 사업 추진방향	
13회 2013.7.20	·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개선 방안 · 동네부역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주민제안사업 시범추진) · 마을박람회 및 시민토론회 계획 보고	
14회 2013.10.11	·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 1회는 회의록 없음



#### (4) 시민 참여구조 및 운영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며, 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존의 여타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은 시민의 참여구조를 활성화하는 거버넌스의 통로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에는 풀뿌리 지역 여성들의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눈높이에서 소동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여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주민으로서 여성들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은 마을에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가구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부구조와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남성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마을사업을 해오던 여성 풀뿌리단체들이 있고,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던 여성조직도 있다. 그간 여성인적자원은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온바 있다.

표 V-15 | 마을공동체 자원(資源) 현황

명칭	구성요소
지역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단체(지역풀뿌리단체 약 1,578개소)</li> <li>· 각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동별 20명 내외로 구성)</li> </ul>
지역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시설(약 5,50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사회복지관(95개소), 노인관련복지시설(4,530개소), 장애인관련복지시설(535개소), 자활지원센터(84개소) 등,</li> </ul> </li> <li>· 문화시설(약 9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민회관(25개소), 구민체육센터(59개소), 작은도서관(748개소), 청소년 수련관(51개소), 문화원·문화의집(46개소) 등</li> </ul> </li> </ul>
지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기업(58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사회적 기업(94개소), 서울형 사회적 기업(340개소) 등</li> </ul> </li> <li>· 협동조합(9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행협동조합(65개소), 의료생활협동조합(27개소) 등</li> </ul> </li> <li>· 마을기업(67개소)</li> </ul>
마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아카데미(12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도봉구 마들만들기 씨앗뿌리기 강좌, 강북 마을대학 행복상상 등</li> </ul> </li> </ul>

자료 :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50-56쪽 참조, 자료는 서울시 협조(2011년)

<표 V-16>를 보면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원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자원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단체회원들, 혹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소모임을 만들어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곳도 있다.

앞으로 보다 가시화될 ‘마을네트워크’(이하 마을넷)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지닌 역량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마을활동가 리더로 키워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여성은 마을에 가장 오랜시간 머물고, 이웃과의 만남이 활발한 주체이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상생활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 훈련, 다양한 지식과 경험 훈련을 통해 역량있는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 표 V-16 ■ ‘마포여성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자원 현황

기관명	자원(資源) 현황	소속 및 지원 현황
두레 생협	· 세대통합형 사회 경험 · 조합원 인적자원 풍부	
마포문화재단	·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자원 풍부	마포구 출연
오방 놀이터	· 인큐베이팅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성폭력상담소	· 프로그램운영 가능 공간 및 강사 제공 등	
성산사회복지관	· 유휴 공간 활용	마포구 위탁
영유아통합 지원센터	· 영유아 가족지지망 구축 및 가족지원사업,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경험, 공간활용 가능	마포구 위탁
마포 희망 나눔	· 교육 및 코디네이터 인적자원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	· 문화활동 인적자원	
직장맘 지원센터	· 커뮤니티 활동교육 프로그램 강사인력, 교육예산	서울시 위탁
여성이 바꾸는 일과 미래	· 교육 및 인큐베이팅 인적자원, 공간 활용	
서울 여성노동자회	· 교육자원, 공간활동	



### 3.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추진단계는 크게 기획(Plan)-집행(Do)-평가(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크게 두 단계-사업의 기획과 집행, 사업평가 및 개선-로 구분하고 평가항목으로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사업의 성별관련성, 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및 사업개선의 모색이다.

【표 V-17】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항목 및 주요 분석내용

구분	항목	주요분석내용	비고
마을사업의 기획 및 집행	사업의 성별관련성	-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 마을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가?	활동가 설문조사
	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성	- 마을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운영위원회 등의사결정자지위의 성별 비율은 적절한가?	활동가 설문조사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 마을사업의 주요 정보 획득경로는 무엇인가? - 마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 관련 정보가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배분되고 있는가?	활동가 설문조사
사업평가 및 개선	사업수혜의 양성평등	- 활동가 및 사업 참여자의 주관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활동가 및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사업개선의 모색	- 사업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기회 등 사업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활동가 및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 1) 마을사업의 기획 및 집행단계

마을활동가들은 마을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일선에서 파악하고 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고 돕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인력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정향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성별 고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기획과정에서의 성별 수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지표는 마을사업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고려, 마을공동



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에 대한 인식, 사업기획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한 고려 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성별수요도, 성평등 영향, 성평등 가치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활동가의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 관점, 성별 수요를 고려하는 정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3.5점 내외로 성평등 가치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평등 가치에의 고려정도에 있어서 남성이 3.88점으로 여성 3.68점에 비해 약 0.2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온 남성의 입장에서 '성평등'가치에 대한 요청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표 V-18 】 사업의 이슈발굴 및 기획시 성별관점 고려 여부

구분	여성			남성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4. 성별 수요 반영도	57	3.35	.954	41	3.34	1.109	.045
5. 성평등 영향	57	3.40	.863	41	3.34	.911	.343
6. 성평등 가치	57	3.68	1.055	41	3.88	1.166	-.859

□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평등 가치 고려

마을활동가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마을활동가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한다(항상+가끔씩)는 응답이 6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려하지 않는다(거의+전혀)는 응답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여성 고려 63.2%, 남성 고려 65.8%로 남성의 고려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V-19 】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 고려 빈도

성평등 가치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항상 고려한다	29	29.6	13	22.8%	16	39.0%
가끔씩 고려한다	34	34.7	23	40.4%	11	26.8%
그저 그렇다	22	22.4	13	22.8%	9	22.0%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9	9.2	6	10.5%	3	7.3%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4	4.1	2	3.5%	2	4.9%

이와 관련하여,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친다’(크게 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7%, 그저그렇다는 24.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18.4%로 나타나 성평등에의 영향정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거의 5/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남성 80.5%, 여성 78.9%로 남성 응답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V-20 】 공동체 사업의 성평등에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

성평등 영향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2.0	2	3.5%	0	0.0%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54	55.1	30	52.6%	24	58.5%
그저그렇다	24	24.5	15	26.3%	9	22.0%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15.3	9	15.8%	6	14.6%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3.1	1	1.8%	2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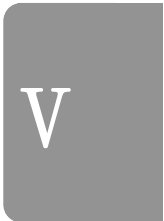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슈발굴 및 기획시 성별 관점 고려

마을활동가는 마을이슈를 발굴하고 마을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상담이나 조력이 마을주민의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성별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슈발굴과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상담, 지원, 조력하고 계십니까?’로 질문하였다. ‘그렇다’(매우그렇다+그런편이다)는 응답은 57.1%로 절반이상의 활동가들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은 19% 정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수요 반영에 대한 의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2%p 높게 나타났다.

【표 V-21】 사업기획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 반영하는지 여부

성별 수요 반영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매우 그렇다	6	6.1	3	5.3%	3	7.3%
그런편이다	50	51.0	29	50.9%	21	51.2%
그저그렇다	19	19.4	11	19.3%	8	19.5%
그렇지 않다	18	18.4	13	22.8%	5	12.2%
전혀 그렇지 않다	5	5.1	1	1.8%	4	9.8%



□ 의사결정과정의 양성평등성

마을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의 주요 논의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의 개수와 그곳에서의 지위를 함께 질문하였다.

먼저,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사회 내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의 수와 관련하여 여성은 3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5개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남성의 참여단체나 모임의 활동여력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V-22 】 성별 참여단체나 모임 참여 비율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	57	100.0%	41	100.0%
1개	10	10.2	7	12.3%	3	7.3%
2개	11	11.2	9	15.8%	2	4.9%
3개	22	22.4	17	29.8%	5	12.2%
4개	14	14.3	6	10.5%	8	19.5%
5개	29	29.6	15	26.3%	14	34.1%
없음	5	5.1	1	1.8%	4	9.8%
기타	7	7.1	2	3.5%	5	12.2%

\*  $p < .05 (X^2 = 13.760^*)$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가입하여 활동하시고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선생님의 지위는 다음 어느 것에 해당 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일반회원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운영위원 또는 이사가 41.8%로 나타났으며, 대표인 응답자는 26.5%, 사무국장 24.5%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별로 여성은 '회원'이라고 응답한 활동가가 약 58%에 달하고 있고, 운영위원 또는 이사인 비율은 44%는 반면 남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비중은 48.8%, 운영위원 또는 이사 39%로 나타나 회원과 운영위원 또는 이사 비율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표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 22.8%, 남성 31.7%, 사무국장 여성 15.8%, 남성 36.6%로 대표나 사무국장 비율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체나 모임에서 대표의 위치는 해당 모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주요결정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실무적 책임 역할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23 】 성별 참여단체(모임)에서의 지위(중복응답)

구 분	전체(N=98)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151	154.1	85	149.2%	66	161%
대표	26	26.5%	13	22.8%	13	31.7%
사무처(국)장	24	24.5%	9	15.8%	15	36.6%
회원	53	54.1%	33	57.9%	20	48.8%
운영위원 또는 이사	41	41.8%	25	43.9%	16	39.0%
기타	7	7.1%	5	8.8%	2	4.9%

□ 사업수행방식의 양성 평등성: 마을활동의 정보획득 방법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는 마을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는 응답은 전체의 60.2%로 나타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31%, 부족하다는 응답이 약 9%로 나타나 절반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V-24 】 마을활동가의 성별 정보획득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정보의 충분성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98	100.0	57	100.0%	41	100.0%
매우 충분	2	2.0	1	1.8%	1	2.4%
충분한 편	57	58.2	28	49.1%	29	70.7%
그저 그러함	30	30.6	24	42.1%	6	14.6%
부족한 편	9	9.2	4	7.0%	5	12.2%
매우 부족	0	0.0	0	0.0%	0	0.0%



이와 관련하여, 마을활동가들은 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즉,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공식적인 정보 외에 사업이나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얻게 되십니까?’로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질문한 결과, 여성은 워크숍이나 학회, 세미나 등에서 마을활동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들은 회식이나 사적 모임, 네트워크 등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보획득 방식의 성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V-25 | 성별 정보획득경로

정보획득 경로	전체(N=98)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계	161	164.3	93	163.1	68	165.9
시,자치구,센터 등에서 교육 이나 워크숍 참여	40	40.8%	24	42.1%	16	39.0%
다른 시,도, 학회 등 세미나, 포럼 참여	26	26.5%	16	28.1%	10	24.4%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	13	13.3%	10	17.5%	3	7.3%
회의 전-후 회식이나 술자리	19	19.4%	10	17.5%	9	22.0%
비정기적 사적모임이나 네트 워크	61	62.2%	33	57.9%	28	68.3%
기타	2	2.0%	0	0.0%	2	4.9%

## 2) 사업평가 및 개선단계

### □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마을활동가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로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한편)는 응답이 전체의 77.5%로 4/3이상이 만족하고 있었고 그저그렇다는 중립적 견해가 20%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활동가 역할에 대한 성별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5%p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V-26 】 활동가 역할에 대한 만족도

활동가의 역할 만족도	전체		여성		남성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합 계	98	100.0	57	100.0%	41	100.0%
매우 만족	10	10.2	5	8.8%	5	12.2%
만족한 편	66	67.3	38	66.7%	28	68.3%
그저 그러함	20	20.4	13	22.8%	7	17.1%
불만족인 편	2	2.0	1	1.8%	1	2.4%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별 만족도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마을공동체 사업활동의 핵심 요소에 따라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 사업수행절차와 과정, 예산정산 및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여부에 따라 질문하였다. 대체적으로 ‘그저 그렇다’ 보통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나 만족정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네 개 항목 중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예산정산 및 평가’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항목은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남성은 ‘예산정산 및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항목의 경우 비슷한 만족도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표 V-27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의 항목별 성별 만족도\_기술통계량

구 분	여성			남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	70	3.69	.925	20	3.70	.801
사업수행 절차와 과정	70	3.60	.824	20	3.70	1.031
예산정산 및 평가	71	3.55	.789	20	3.35	1.089
전반적 만족도	70	3.76	.751	20	3.70	.865



사업영역별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분야는 ‘마을공동체 기업’ 참여자 64%가 ‘만족’(매우만족+만족한 편)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다음이 부모커뮤니티 61%, 주민제안사업 5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기업이나 부모커뮤니티 사업 모두 1대 1 개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간지원 인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사업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28 】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8-1.상담 및 컨설턴트지원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17	100.0%	39	100.0%	44	100.0%	20	100.0%
매우만족	3	17.6%	7	17.9%	10	22.7%	4	20.0%
만족한편	8	47.1%	17	43.6%	16	36.4%	6	30.0%
그저	6	35.3%	11	28.2%	13	29.5%	9	45.0%
불만족	0	0.0%	3	7.7%	4	9.1%	1	5.0%
매우 불만족	0	0.0%	1	2.6%	1	2.3%	0	0.0%

다음은 사업수행절차와 과정에 대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영역은 부모커뮤니티 사업으로 ‘만족’ 66.7%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인력양성 등 기타 사업 60%, 주민제안사업 59%, 마을기업 5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V-29 】 사업수행절차와 과정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8-2.사업수행 절차와 과정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17	100.0%	39	100.0%	44	100.0%	20	100.0%
매우만족	2	11.8%	6	15.4%	6	13.6%	3	15.0%
만족한편	7	41.2%	20	51.3%	20	45.5%	9	45.0%
그저	5	29.4%	9	23.1%	13	29.5%	7	35.0%
불만족	3	17.6%	3	7.7%	4	9.1%	1	5.0%
매우 불만족	0	0.0%	1	2.6%	1	2.3%	0	0.0%



예산회계 및 정산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는 인력양성사업 등 기타 사업분야가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마을기업 사업참여자 만족도는 4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양성사업은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회계에 대한 정산노력이 크지 않는 반면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은 까다로운 정산절차가 사업참여자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V-30 】 예산회계 및 정산에 대한 사업영역별 참여자 만족도

8-3. 예산정산 및 평가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17	100.0%	39	100.0%	45	100.0%	20	100.0%
매우만족	0	0.0%	1	2.6%	6	13.3%	2	10.0%
만족한편	8	47.1%	23	59.0%	21	46.7%	11	55.0%
그저그려함	6	35.3%	10	25.6%	13	28.9%	4	20.0%
불만족	3	17.6%	4	10.3%	4	8.9%	3	15.0%
매우 불만족	0	0.0%	1	2.6%	1	2.2%	0	0.0%

이와 관련하여,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한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는데 대부분 예산 및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참여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행정 및 회계처리 절차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표 V-31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의 불만족 이유

구분	불만족 내용
행정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절차</li> <li>- 서류작성의 복잡성</li> <li>- 회계서류</li> <li>- 사업주체의 편의보다, 사업을 관리하는 측의 편의 우선</li> <li>- 비용처리에 대한 규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li> <li>- 사업예산에 비해 행정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li> </ul>

구분	불만족 내용
	- 예산편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 지침 필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활용은 자율적이어야 하나 예산편성 기준이 제조업을 정리 되어 있으므로 사용상 불편함. 지원기관과의 마찰
마을활동가	- 컨설턴트의 전문성, - 마을활동가의 공동체의식 수준, 실천력에 대한 신뢰도 - 상담이나 컨설팅 지원의 방식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영역별로 마을기업 참여자는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는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 마을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자율성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등 기타사업도 자율성 보장에 대한 필요성 정도의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32 】 추진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사업영역별 개선필요성

12-1.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지침, 세부규정 No)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17	100.0%	39	100.0%	47	100.0%	20	100.0%
매우 필요	8	47.1%	10	25.6%	14	29.8%	5	25.0%
필요한편	9	52.9%	21	53.8%	22	46.8%	10	50.0%
그저그렇다	0	0.0%	6	15.4%	9	19.1%	4	20.0%
필요하지 않음	0	0.0%	2	5.1%	2	4.3%	1	5.0%
전혀 불필요	0	0.0%	0	0.0%	0	0.0%	0	0.0%

사업영역별 성별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인력양성 사업참여자를 제외한 세 개 사업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별로 마을기업참여자는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의 어려움’,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을, ‘부모커뮤니티사업’ 참여자는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 ‘문서작성과 회의참석’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주민 제안사업 역시 문서작성과 공식적인 회의참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V-33】 성(남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구분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27	100.0%	66	100.0%	83	100.0%	30	100.0%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으로시간의 제약	8	29.6%	22	33.3%	24	28.9%	4	13.3%
공동체 및 마을사업 정보에 어두움	2	7.4%	3	4.5%	6	7.2%	3	10.0%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	3	11.1%	11	16.7%	11	13.3%	7	23.3%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의 어려움	5	18.5%	9	13.6%	10	12.0%	4	13.3%
여성과 남성간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의 어려움	3	11.1%	5	7.6%	6	7.2%	3	10.0%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	5	18.5%	11	16.7%	21	25.3%	8	26.7%
기타	1	3.7%	5	7.6%	5	6.0%	1	3.3%



다음,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 사업영역별로 마을기업 참여자 개선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등 기타사업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 참여자의 4/3이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사업의 제도적인 제약요인의 개선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표 V-34 】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에 대한 사업영역별 개선필요성

12-2.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17	100.0%	39	100.0%	47	100.0%	20	100.0%
매우 필요	6	35.3%	7	17.9%	10	21.3%	2	10.0%
필요한편	8	47.1%	23	59.0%	28	59.6%	11	55.0%
그저그렇다	3	17.6%	9	23.1%	8	17.0%	7	35.0%
필요하지 않음	0	0.0%	0	0.0%	1	2.1%	0	0.0%
전혀 불필요	0	0.0%	0	0.0%	0	0.0%	0	0.0%

다음,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개선필요성에 대해 사업영역별로 마을기업 참여자 개선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88.3%), 다음은 주민제안사업(80.8%), 기타사업(80%), 부모커뮤니티(79.5%) 사업참여자 순으로 나타나 홍보의 개선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표 V-35 】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개선필요성에 대한 사업영역별 조사결과

12-3.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마을기업		부모커뮤니티		주민제안사업		기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17	100.0%	39	100.0%	47	100.0%	20	100.0%
매우 필요	8	47.1%	15	38.5%	19	40.4%	6	30.0%
필요한편	7	41.2%	16	41.0%	19	40.4%	10	50.0%
그저그렇다	1	5.9%	6	15.4%	3	6.4%	3	15.0%
필요하지 않음	1	5.9%	2	5.1%	5	10.6%	1	5.0%
전혀 불필요	0	0.0%	0	0.0%	1	2.1%	0	0.0%

## 4. 요약과 시사점

### 1) 정책추진 기반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시사점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은 마을주민이 공동체 사업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체 소모임의 활성화, 상담원·컨설턴트·인큐베이터 등 중간지원인력 양성을 통한 주민 지원,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한 3대 과제로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 협력만들기를 제시하고 과제별 10대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반체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이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본 조례는 마을 지역 내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을 동질적인 주체로 단순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참여가 별도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은 사회적·경제적 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배제되기 쉬우며 따라서 주요 의사결정이나 심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를 명시하지 않으면 참여의 균등기회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본원칙과 가치의 측면에서 공동체 사업이 추구하는 상호연대와 호혜성의 달성을 위해서 성평등 가치가 드러나야 하며, 성평등 가치의 강조를 통해서 공동체가 달성하려는 목표의 역동적 달성노력이 가시화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점검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은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로 삼아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추상성과 규범성이 커서 마을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성평등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성별요구도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마을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요구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의 틀 내에서 남성 중심의 마을활동이 성평등적으로 어떻게 변모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다양한 주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기초한 전략과 중점과제가 도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각종 제안서 및 신청서 양식의 성별분리통계가 일관성있게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각종 서식이나 양식의 일관성있는 자료축적을 위한 정보수집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 혹은 정보자료의 일관성있는 축적을 위한 필수 정보와 사업특성에 따른 선택적 정보수집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해서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추진지원체계의 성별 특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부서 및 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을 점검하였다. 담당부서의 성별구성은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의 성별비율에 따라 여성비율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위원회 여성비율은 평균 32.9%로 서울시 25%, 자치구 33.3%로 위원회의 성별구성 규정인 40%에 못 미치고 있다. 여성위원의 참여 뿐 아니라,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의 의사결정과 심의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성인지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2) 추진단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시사점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체 기획 및 지원체계는 서울시 및 자치구 등 행정이 중심 주체가 되고 있으며,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은 마을살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마을사업의 기획과 집행, 사업평가 및 개선환류 과정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장 참여자인 활동가 및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마을사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중간지원인력인 마을활동가들은 마을주민의 수요를 파악함에 있어서 성별 수요, 성평등 영향, 성평등 가치 반영 정도가 3점대에 머물고 있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성평등 가치가 별도로 강조되고

있지 않으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간정도의 수용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활동가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성과 관련하여 대표나 사무국장의 성별비율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사나 운영위원의 지위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결정지위에서의 성별 분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마을사업의 평가 및 개선과정에서 마을활동가의 마을사업참여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4/3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가의 마을활동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 비율이 약 5%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참여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이나 공적영역에서의 행정절차나 과정이 쉽지 않으며 이 과정을 새로이 적응하며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인한 가정과 마을에서의 이중적 부담과 역할이 가정에서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에 참여와 활동의 성평등적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업영역별로 이와 같은 사업참여에서 어려움의 이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마을기업참여자의 경우,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 29.6%로 가장 높았으며,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의 어려움, 각종 회의참석이나 문서작성의 어려움이 각 1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커뮤니티 등 돌봄사업 참여자 역시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이 33.3%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으며, 그 밖에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과 공식문서 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민제안사업이나 기타 정형화되지 않은 사업 참여자들은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인 회의참석 어려움(25.7%)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마을활동가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업 참여에서



의 성별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수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중적 역할, 가사와 양육, 그리고 마을활동 참여라는 두 개 역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 경험이 짧아 각종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참여, 문서작성이나 행정절차 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설고 생소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참여에서 자녀양육과 돌봄, 가사활동의 남성참여 또는 함께 돌보고 함께 참여하는 가사활동에 대한 캠페인이 요구되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활동하는데 각종 서류나 문서, 공식적인 회의 등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절차와 과정이 재설계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VI

##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1. 마을공동체 추진기반 개선방안
2.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별 성별 특성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도적 개선방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VI

##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 1. 마을공동체 추진기반 개선방안

#### 1) 성평등 가치 및 균형참여를 명시한 조례정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이 사업이 어떠한 법·제도적 기반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2012.3.15)를 제정하여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는 이 조례제정 목적, 기본원칙, 주민 및 시장의 권리와 책무 등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는 ‘모든 마을공동체’가 담아야 할 이상적인 지향성만 담겨있고, 현재의 다양성과 차이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제시는 미흡하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당초 목적으로 한 서울시민의 상호연대와 호혜성을 달성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성평등’ 가치를 어떻게 본 조례에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평등 가치 지향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장은 ‘성평등 목표’를 천명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로 제5조(시장의 책무)에 ‘성평등한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성평등 가치 실현은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지향점과 일치하며, 실현하는 주체가 여성과 남성인 주민이므로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사업과는 다르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주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그동안 지역발전이 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지역사회의 ‘외형적’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주도의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명시가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고 통합될 수 있고 그 혜택을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지역)의 주요 활동주체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모습에는 여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물론 ‘주민’이라는 용어가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주민’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따라서 제3조(기본원칙)에 3항.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하는 것과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 설정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계획 등에 관한 심의기구인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제15조)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시행 규칙 제3조(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에서도 성별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여야 한다.<sup>32)</sup>

---

32)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

이와 같은 제안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I-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

구분	현행	개정방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u>남성과 여성 주민 모두의 참여를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 주민이 주도한다.</u>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주민의 성평등 가치 의무 명시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⑤ <생략>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성별 균형을 고려한다.</u> ②~⑤ <생략>
시장의 성평등 가치 및 목표 천명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u>성평등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u>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서울특별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서울특별시장은 <u>주민의 성평등한 마을만들기</u>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성별, 연령별 등 주민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보완 방안

###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성평등 가치' 반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과제를 담고 있

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으며 사업추진방법 및 성과평가에 대한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담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구상에 있어서 비전과 계획의 설계부문에서는 다분히 행정기술적 목표와 사업의 양적 확산만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동체 형성과 비전에서의 가치지향성이 잘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우선, 비전과 목표 설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 지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부장적 유교적 관습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남녀역할을 구분짓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여성과 남성의 공존과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로의 변화를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 참여자,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평등 가치의 강조 시급성은 다른 가치들, 예를 들면 세대간 통합성, 계층간, 지역간 통합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 사회여서가 아니라 이미 깊이 뿌리박힌 성별 차이를 당연시하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현상유지적 타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지향에 있어서 '공동체의 성평등 실현'을 가치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 혹은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특성을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 설정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 가치'를 담은 비전 수립의 절차와 방법은 공개적인 논의과정과 토론을 거쳐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공동체의 가치로서 연대형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과제와 전략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으며, 성별 요소와 함께, 계층이나 세대 등 마을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2) 소규모 지역단위 마을주민의 특성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 실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특성 변화의 전체 경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시민에 대한 성별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자원의 발굴을 위한 단체나 모임 중심의 기초조사와 상향식 접근을 통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

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3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도출하고 있음에도 마을지역의 특성에 따른 구성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기존 공동체 사업을 조금 변형한 것에 불과한 사업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나 참여자들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었을 때,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공동체 사업의 참여가 필요한 대상 1순위로 3~40대 미만 주부나 직장인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층의 주부나 직장인들은 링커(linker)세대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상층이라는 것이다. 다음 2, 30대 미만의 싱글, 혼자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들을 꼽았다. 이들은 청년들의 에너지와 활력, 사회와 생활에서의 명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실행력을 갖는 대상층이고, 취업의 압박속에서 자신의 역량과 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4, 50대 주부, 직장인, 5, 60대 주부, 직장인, 실직 퇴직자, 60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계층에 따라 다양한 대상층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상층은 연령대에 따른 단순한 구분일 뿐, 세대간, 지역 간 등 영역을 넘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 결과 역시 전체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공동체로써 일정한 공간영역을 형성하는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마을지역 단위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즉,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마을지역 단위의 자율적인 성별·연령별 등 다양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마을의 주요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을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추진지원체계 개선방안

#### (1) 성별 분리통계 마련을 위한 서식의 표준화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분야는 모두 16개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서식이나 양식이 사업별로, 시기별로 일관성 없이 제시되고 있으면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항목 역시 모두 제각각이다. 이렇게 포함된



정보요인들이 서로 다르면 종합적 정보나 자료로써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각 지역별, 마을별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정책적인 자료축적을 위해서는 수집정보요인들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혹은 시기별 각종 서식의 수집 내용이 다르면 오랜 시계열적인 자료를 통합하기도, 정확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정보로서 성별 및 연령 요소를 꼭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양식에 따라서 성별 구분 표시란이 제안되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다양한 신청서나 사업제안서 작성양식에 성별 정보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2~3가지 양식에 불과하다(상담원 응시원서, 교육강좌 신청서: 마을공동체 미디어심화 일꾼 양성교육,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등). 그 밖에 양식에는 성별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성별이나 연령별 정보는 구성원의 인적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기본정보이므로 일관성있게 모든 제안서, 신청서, 응시원서 등의 양식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필요 정보는 선택 정보로 사업이나 제안 양식의 특성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 사업으로 단체(모임)가 제안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대표자 성명 및 성별, 생년월일과 단체 회원수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적도록 한다. 이 외에 선택정보로 단체 현황, 운영진, 단체소재지, 임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표 VI-2 | 각종 서식의 공통 및 선택정보

구 분	공통 정보	선택정보
활동가 응시원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 소속 및 지위 - 이메일 주소
제안서	-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단체: 회원수(성별·연령별)	- 단체현황, 운영진수, 회원수(성별) - 단체 소재지, 임원수(성별),
신청서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이메일주소 - 단체등록번호 등

## (2) 동등참여를 위한 규약, 합의, 지침 마련

조례는 모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각종 의사결정의 위치에 대해 여성과 남성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나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사회적·문화적으로 처해진 환경에 따라 전제조건이 자유스러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을 의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참여를 위한 규약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먼저, 주요 의사결정 지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 지위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의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대표가 두 명인 경우 한 명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 혹은 ‘여성 대표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명이나 임명 기회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여성’을 고려한다’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항상 육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활동가 및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도 이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공동체 사업참여의 애로사항으로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가장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사업을 기획할 때, 보육서비스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원칙이 전제되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 단체들을 지명할 때 더 나은 대표성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성대신 여성을 제안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단체의 대표가 두 명인 곳에서 지명자 중 한명은 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새로운 지명들이 요구될 때 그 단체는 현존하는 지명자가 사임할 때 여성을 지명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성별 분리 통계를 가능한 모든 기회에 수집해야 한다.
- 효과적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들은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남녀모두 개별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기관의 일상 업무에 현실적 이슈로 육아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육아는 모든 행사와 회의에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 (3) 마을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의식 및 정책교육 강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중간지원인력을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마을활동가가 공동체 활동의 촉진자로서 사업영역별, 분야별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하여 각종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상담원이거나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인력으로서 이들은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들은 직접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보다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무를 집행하는 촉진자, 조력자, 링커,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자들은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거의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만족’(매우만족+만족한 편)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활동가로서 자부심과 활동의 보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활동가들이 마을주민의 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활동가의 소양으로 성인지 의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성인지 의식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 활동가는 마을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마을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 임무를 갖기 때문이다. 즉, 마을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성별 특성, 성별 수요와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구성원 특성에 대한 분석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마을활동가들은 마을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을 조금 넘고 있을 뿐 그 외 응답자는 성별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활동가의 경우 25%의 응답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성별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와 같은 활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활동의 범주에 주민의 성별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지 의식 교육은 곧 인권, 구성원 복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형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성인지 의식교육은 성별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성별 요소 뿐 아니라 연령별, 계층별 등 대상특성에

대한 차이와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공동체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에 대한 성인지 의식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약 15시간 내외의 교육시간을 목표로 단계적 전문 교육을 위해 기본소양 교육에 성평등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전문직무 교육으로 현재 성주류화 제도에 대한 이해와 도구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와 적용사례 등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인지 리더십 역량을 갖추므로써 다양한 마을이슈를 끌어내고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VI-3 】 마을공동체 활동가 성인지 의식 및 정책교육 과정(예시)

구분	과정명	시간
기본소양 교육	성인지 의식,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4시간
전문직무 교육	성주류화 정책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와 적용 - 성인지 정책사례 - 양성평등 가치실현	7시간
역량개발	성인지 리더십	4시간

## 2.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별 성별 특성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 1) 마을활동가의 성별 특성에 따른 개선방안

#### (1) 마을공동체 내 활동가의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마을활동가가 여성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성별로 이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여성활동가들은 남성 중심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활동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가사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이 주된 어려움이었던 반면, 남성 활동가는 대부분 마을사업 참여자가 여성인 문화에서의 이질감이나 소통의 한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이 성별 직면하는 어려움의 특성은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의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성 활동가에게 성인지 의식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친화적 소통법을 교육함으로써 마을주민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활동가에게 남성중심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환경에의 적응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성 중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사업기획 및 담당자의 여성진출 확대, 각종 회의 및 관계(relationship) 문화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여성이 보다 쉽게 공적영역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마을공동체 내 상시적 보육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는 생활공동체요, 복지공동체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을활동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마을활동가의 활동시간에 대한 성별 비교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주요 참여자 비율은 여성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의 원인은 여성의 가사 및 육아와 마을활동의 병행에 있다.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양육의 문제를 여성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일상적 양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부모커뮤니티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등 공동체 사업의 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동체 단위의 보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성별 특성에 따른 홍보의 확대 방안

정보력은 사람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누가 더 많은, 혹은 더 질 좋은 정보를 갖느냐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정보의 양에 관계없이 성별로 여성은 남성보다 정보 접근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의 획득 경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획득 수단으로써 각종 회의나 교육, 워크숍 외에 남성의 경우 사적인 모임이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공식적인 모임 외에 사적모임이나 네트워크는 빈번하

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책임감의 실천이며 이는 마을생활에서도 권한(권력)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으로써 마을활동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보공유의 방식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알게된 정보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누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이 마을공동체라는 공동의 생활현장에서 보다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규칙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있어서 여성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의 개선 필요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회식이나 회의 이후 비공식적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나 양육활동의 부부참여가 일종의 생활규칙으로 제시되어야 하며(이렇게 할 때, 늦은 밤에 이뤄지는 비공식 회의를 줄 일 수 있을 것임), 혹은 비공식적 회의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공지’나 ‘알림’ 등 후속적 조치로써 참석하지 못한 활동가에게 환류(feedback)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사업 참여자 및 일반시민의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반영방안

### (1) 사업 참여자의 성별 수요에 따른 지원 방안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성별 어려운 점의 특징은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을 제외하고, 여성은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이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사회참여 및 경력단절로 인한 자기계발이나 역량강화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참여를 통해서 다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참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중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제약이 있는 직장여성이나 워킹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 대외적인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나 네트워크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활현장에서 실질적인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인간관계나 네트워크, 인적·물적자원의 수집과 연계 능력은 공동체 활동의 필요역량이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모으고 분배하는 방안과 전략에 대한 공통의 고민이 필요하다.

### 3) 일반시민의 성별 수요 및 참여확보 방안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64%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있는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참여의향에 대해서도 절반이상의 응답자(51%)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성별로 참여하고 싶은 사업분야로 여성은 문화예술 분야>사회적 경제>주거환경 개선>아동돌봄 및 교육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문화예술분야>사회적 경제>주민커뮤니티 운영>아동돌봄 및 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여성은 이웃 및 마을주민과의 공감대 형성>홍보활성화>모일 수 있는 공간확보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이웃, 마을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공간확보>인적물적자원의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필요수요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도적 개선방안

### 1) 심사·사업선정 심의기준 및 평가과정에 성인지 관점 반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성별 특성 및 수요과악, 그리고 실제 성인지성을 고려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및 선정기준을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인지적 추진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의 심사·선정 기준에 성별 특성이나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턴트, 상담원, 강사, 인큐베이터 등 양성계획 수립 시 각 활동분야별로 양성규모의 성별·연령별 등 대상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면 활동가 역량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영역에서 부모커뮤니티 사업이나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은 사업의 적합성, 예산계획의 적정성과 기대효과가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참여자의 성별 특성이나 사업내용의 성인지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돌봄사업 주체가 대부분 여성중심으로 마을에서의 여성역할로 치부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별·연령별 등 대상특성을 고려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면, 돌봄 역할을 개인이나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중간지원인력의 성인지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간지원인력’인 마을활동가를 적극 양성하여 마을활동의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이들의 활동은 마을주민이 마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을활동가가 스스로 생각하는 주요 역할은 마을주민을 돕는 조력자, 링커, 촉진자, 컨설턴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사업 참여자에게 어느정도 만족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5점 척도, 3.70). 즉 마을활동가는 마을이슈를 찾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념 등은 마을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을사업 참여자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역량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마을지역 주민과 대면접촉이 빈번한 위치에서 성인지 의식교육이나 마을주민에 대한 성별 수요에 대한 파악, 성별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각 활동영역별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마을활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보상방안이 요청된다. 실제 활동가들은 현행 서울시의 인력양성체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마을 활동이 갖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가들은 현행 인력양성체계와 관련하여 사업분야별 전문성은 여성 3.31점 남성 3.32점, 활동수당의 지원 만족도 여성 3.02점, 남성 2.88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의 전문성과 보수수준의 만족도가 어느정도 매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을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견인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 수준도 합리화함으로써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 중심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활동가들은 특히 성평등 가치와 마을이슈 발굴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 그리고 사업영역별 명확한 활동범위와 역할에 따른 전문성 수준의 보장, 그리고 행동지침이 있어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마을활동가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평등의식 교육 외에도 마을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석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마을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분석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요구되는 사업의 발굴 및 예산 확보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성별 맞춤형 행정지원의 특성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여성과 남성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예산회계 절차에 대한 간소화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력양성, 중간지원조직 설립, 민-관 협력 등의 전략을 통해서 특성화를 꾀하고 있다. 마을활동가를 통한 마을주민의 성장지원이라는 전략은 마을활동가 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고 있는 한편,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행정지향의 공동체 사업으로 특성화가 변질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활동가와 마을사업 참여자는 높은 개선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이 세금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이 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입증해야 하는 책임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공동체 사업의 목표달성, 즉 사회적 가치실현 혹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따라서 행정적 절차나 서류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여성과 남성의 활동가 역량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같은 지식·정보의 수집 및 활용 역량, 마을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및 동원 역량에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시나 자치구 등 정부와의 관계 등 공식적인 관계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스스로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제도적인 참여와 사회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수단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남성의 경우 마을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역량에 대해 취약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사업 참여주민의 높은 비율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한계인식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종 상담 및 조력, 컨설팅 활동에 있어서 이성(異性)에 대한 소통방법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마을사업에 있어서 성별 이슈를 찾고 마을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설계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경·김영희·서동희(2004),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남녀평등 마을 만들기 운동의 제안”,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 305~324쪽.
- 김찬동(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태윤·김진영(2012), 「집단효능감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주올레의 활용과 관련 하역」, 제38집 제8호, 69~111쪽.
- 김영종(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2012, 041-076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경성대학교)
- 김형용(2012), 「지역사회서비스와 마을 공동체」, 복지동향 (2012.12)
- 라도삼(2012), 「마을문화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SDI정책 리포트.
- 민현정(2013), 「주민자치를 통한 생활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광주발전연구원.
- 박세훈·천현숙·전성제(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국토계획』, 제44권 3호, 207~220쪽.
- 박승현(2006),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과제-경제·문화·자치의 공동체 활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14호: 241-266쪽.
- 박주형(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 박지민·윤정숙(2010), 「도시속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30권 제1호(통권 제54집) 2010.10.23.
- 송인하(2010), “마을공동체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방자치연구』, 제14집, 33~64쪽.
- 신경희(2012),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상영(2013),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서울연구원.
- 여관현(2012),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 연구: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2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 유희정·김양희·이미원·최진·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 이명호(2006), “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방안-마을과 도시만들기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57~68쪽.
- 이소영·오은주·이희연,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연구보고서 2012-09(제466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 외(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준원(2000). 「공동체주의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공동체’와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정(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주제, 공동체, 연대 그리고 우정의 윤리. 「한국여성철학」. 제14권. 65~88.
- 정규호(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7~34쪽.
- 주혜진(2011). 「대전여성의 사회참여: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호은지(2012),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세미나 자료집-

- 서울혁신기획관(2013). 마을공동체 1년, 시민토론회 자료집
-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세계의 다양한 마을살이
- (사)시민·마을(2013).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상생토크(제2차): 시민사회와 마을
-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2013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박원순 공약집
- 2020목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현황분석 및 외국사례, 서울특별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혁신도시 관련 해외사례조사 결과보고(2006.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2008.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발전의 희망메세지,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2013), 2013년 지역발전 주요통계자료집,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연구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 ILO Bureau for Gender Equality(2010),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 guid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NDP(2002), *GENDER EQUALITY in Community Development*, Compiled by Marie Crawley and Louise O'Meara, March.  
<http://www.focusintl.com/GD063-%20Gender%20Equality%20in%20Community%20Development.pdf>
- Sylvia Chant and Cathy McIlwaine(2012), *Gender,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Space*, <http://www.e-ir.info/2013/06/04/gender-urban-development-and-the-politics-of-space/>

- UN-Habitat(2013), *STATE OF WOMEN IN CITIES 2012-2013: GENDER AND THE PROSPERITY OF CITIE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10), Gender Mainstreaming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ILO Bureau for Gender Equality*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led/documents/publication/wcms\\_141223.pdf](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led/documents/publication/wcms_141223.pdf)
- Lucia Hanmer(2001),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3159.pdf>
- Crawley & O'Meara(2002), 'section 1', Gender Proofing Handbook, *An Initiative of Six County Development Boards*(Funded by the NDP Gender Equality Unit, Dept. Of Justice, Equality & Law Reform)  
[http://www.mariecrawley.com/section1\\_why\\_gender\\_proof.pdf](http://www.mariecrawley.com/section1_why_gender_proof.pdf)
- EAPN(2013), Toolkit on engaging in the national reform programmes and national social reports 2013, *European Anti Poverty Network*  
<http://www.eapn.eu/en/news-and-publications/news/eapn-news/new-eapn-toolkit-on-engaging-in-the-national-reform-programmes-and-national-social-reports-2013>
- Marie Crawley and Louise O'Meara, March(2002), *Gender Equality in Community Development*, *NDP Gender Equality Unit*  
<http://www.focusintl.com/GD063-%20Gender%20Equality%20in%20Community%20Development.pdf>
- Sylvia Chant and Cathy McIlwaine (2013), *Gender,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Space*, e-international relations  
<http://www.e-ir.info/2013/06/04/gender-urban-development-and-the-politics-of-space/>
- Ana Maria Furbino Bretas Barros et al.(2010), The City Statute of Brazil A commentary, *Nacional Secretariat for urban programmes*, Sao Paulo : Cities Alliance and Ministry of Cities(cities witwww.citiesalliance.org/out slums)(2010) Brazil Ministry of Cities
- Oyebanji Oyelaran-Oyeyinka et al. *STATE OF WOMEN IN CITIES 2012-2013 GENDER AND THE PROSPERITY OF CITIES*,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2013*. [www.unhabitat.org/publications](http://www.unhabitat.org/publications)
- Scharff, C. (2011). "Disarticulating Feminism: Individu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othering of 'Muslim women'".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8(2): 119-134.  
[www.kcl.ac.uk/cmci](http://www.kcl.ac.uk/cmci)
- Our Common Future, Chapter 9: The Urban Challenge, e - A/42/427  
<http://www.un-documents.net/ocf-09.htm>

- Alison(2013), On the Edge: Neoliberalism, Austerity and Insecurity  
<https://blogs.ncl.ac.uk/alisonstanning/on-the-edge-neoliberalism-austerity-and-insecurity/>
- Stacey A. Sutton(2008), "Urban Revit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 Policies and Practices",  
 Columbia University  
[http://www.columbia.edu/cu/c2arl/pdf\\_files/USURRP\\_Phase\\_I\\_Final\\_Report.pdf](http://www.columbia.edu/cu/c2arl/pdf_files/USURRP_Phase_I_Final_Report.pdf)
- scott-berzofsky, *THE ABCs OF URBAN REVITALIZATION*, Independent reader  
<http://indyreader.org/contributor/scott-berzofsky>
- HOW TO ORGANIZE A REDEVELOPMENT AUTHORITY*  
<http://www.mass.gov/hed/docs/dhcd/cd/ur/howtora.pdf>
- Mahyar Arefi(2004), "Neighborhood Jump-Starting: Los Angeles Neighborhood Initiative",  
*Cityscape: A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 Volume 7, Number 1 ·  
 2004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 Mahyar Arefi(2003), "Revisiting the Los Angeles Neighborhood Initiative (LAND) Lessons for  
 Planner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2:384-399,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 Deena White et al.(2010), DOUBLE PANEL PROPOSITION Between democracy and  
 governance: participation, partnership and paradox,  
<https://lha.uow.edu.au/hsi/istr/UOW083352.html>
- Marilyn Taylor et al.(2008), Understanding NGO involvement in governance: the search for  
 cross cultural understanding, Paper presented at the 2008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9-12 July 2008, Barcelona, Spain



# 부 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13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활동가의 성별 활동실태와 특징, 그리고 추진상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활동가 역할과 성별 활동실태, 그리고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과제책임자: 조연숙 연구위원

연락처: 810-5021(choys33@seoulwomen.go.kr)

### □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의 개념인식, 역할에 대한 인식

1.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컨설턴트나 상담원, 인큐베이터 등과 같이 마을주민에게 사업의 이슈발굴, 의제화를 통해 마을사업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돕는 사람을 '마을활동가'로 정의할 때, 선생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한 곳에  $\sqrt{\quad}$ 표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_\_\_\_\_ ② 직접 마을사업을 하기보다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하도록 돕는 사람

- \_\_\_ ③ 마을사업의 경험을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에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 하는 사람
- \_\_\_ ④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촉진자, 링커(linker), 컨설턴트, 조력자
- \_\_\_ ⑤ 실제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사업의 대표자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리더, 활동가
- \_\_\_ ⑥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_\_\_\_\_)

2.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 \_\_\_ ① 있음(어떤 경우: \_\_\_\_\_)
- \_\_\_ ② 없음

3.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 만족 한 편	③그저 그러함	④불만족인 편	⑤ 매우 불만족

▣ 마을공동체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 평가

4.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슈발굴과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상담, 지원, 조력) 하고 계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런편이다	③그저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그렇지 않다

5.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주민의 성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크게 영향을 미친다	②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③그저그렇다	④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①항상 고려한다	②가끔씩 고려한다	③그저그렇다	④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⑤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7.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는 마을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충분	②충분한 편	③그저그러함	④부족한 편	⑤매우 부족

8.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공식적인 정보 외에 사업 및 활동과 관련한 정보(혹은 지식)는 주로 어떻게 얻게 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까지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_\_\_\_① 시·자치구·센터 등에서 교육이나 워크숍 참여

\_\_\_\_② 다른 시·도, 학회 등 세미나, 포럼 참여

\_\_\_\_③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

\_\_\_\_④ 회의 전-후 회식이나 술자리

\_\_\_\_⑤ 비정기적 사적모임이나 네트워크

\_\_\_\_⑥ 기타(구체적 작성 \_\_\_\_\_)

□ 마을활동의 목적과 활동실태

9. 지역사회 내 선생님께서 참여하는 각종 단체나 모임(커뮤니티)은 몇 개입니까?

\_\_\_\_\_ ① 있음(\_\_\_\_\_개)                      \_\_\_\_\_ ② 없음

9-1. 선생님께서 가입하여 활동하시고 있는 단체나 모임에서 선생님의 지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해당되시는 것에 모두 √해 주십시오)

\_\_\_\_\_ ① 대표              \_\_\_\_\_ ② 사무처(국)장              \_\_\_\_\_ ③ 회원  
\_\_\_\_\_ ④ 운영위원 또는 이사              \_\_\_\_\_ ⑤ 기타(\_\_\_\_\_)

10. 선생님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순수 풀뿌리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응답)

\_\_\_\_\_ ① 1년 미만              \_\_\_\_\_ ② 1~2년 미만              \_\_\_\_\_ ③ 2년~4년 미만  
\_\_\_\_\_ ④ 4~5년 미만              \_\_\_\_\_ ⑤ 5~10년 미만              \_\_\_\_\_ ⑥ 10년 이상

11.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  
한 것 1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_\_\_\_\_ ① 내가 살고 있는 마을문제의 자율(주체)적 해결  
\_\_\_\_\_ ②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_\_\_\_\_ ③ 공동체 성장을 통한 보람  
\_\_\_\_\_ ④ 개인의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보람있는 삶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2. 선생님께서 주로 활용하시는 마을활동 참여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가장 빈번한 방법을 다음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상담 및 컨설팅(방문)   | ② 상담 및 컨설팅(이메일 or 전화) | ③ 교육        |
| ④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참석 | ⑤ 지역주민과 커뮤니티 활동       | ⑥ 행사참여 및 홍보 |
| ⑦ 기타             |                       |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3. 선생님께서는 마을활동 참여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1) 1일 평균: \_\_\_\_\_ 시간,                      2) 1주 평균: \_\_\_\_\_ 일

14. 선생님의 마을활동 참여 시간대는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오전: \_\_\_\_\_부터 \_\_\_\_\_시까지                      ② 오후: \_\_\_\_\_시부터 \_\_\_\_\_까지  
③ 저녁: \_\_\_\_\_시부터 \_\_\_\_\_까지

15. 선생님께서 마을활동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의 ‘본인’역량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매우 충분	②충분 한편	③그저 그렇다	④부족 한편	⑤매우 부족
1) 지식·정보수집 역량					
2) 지식·정보활용 역량					
3) 다른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역량					
4) 마을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역량					
5) 인적·물적 자원 활용 역량					
6) 시나 자치구 등 정부와의 관계 역량					

15-1. 이 외에 마을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역량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시시오.

\_\_\_\_\_

\_\_\_\_\_

□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16.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가로 활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요소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크게 영향 받음	②영향 받는 편	③그저 그러함	④거의 영향받 지 않음	⑤전혀 영향받 지 않음
1)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활동가’로서의 지침이나 매뉴얼					
2) 소속단체나 모임에서 논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마을활동의 지향이나 가치					
3) 실제 마을주민의 수요나 요구					
4) 본인의 그동안 마을활동의 경험이나 주관					
5)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					

17.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선생님의 가치와 비전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적으로 반영	②반영되는 편	③그저그렇다	④거의 반영되지 않음	⑤전혀 반영되지 않음

17-1. (④,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_\_\_\_\_

18.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공동체 사업’이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1개)

\_\_\_\_\_ ① 시·자치구 등 행정으로부터의 각종 지침과 규정

- \_\_\_\_\_ ② 시·자치구와 실제 마을주민과의 소통의 어려움
- \_\_\_\_\_ ③ 실제 마을주민의 참여와 관심 부족
- \_\_\_\_\_ ④ 활동가간의 협력과 이해 부족
- \_\_\_\_\_ ⑤ 어려움을 경험한 적 없음
- \_\_\_\_\_ ⑥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마을공동체 활동의 다양성과 통합성

19. 선생님께서는 마을의 다양한 ‘생활(삶)’ 가운데 주로 참여하고 계신 분야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까지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① 문화·예술                      ②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③ 아동돌봄 및 교육

④ 주거환경 개선(안전 등)      ⑤ 주민 커뮤니티 운영    ⑥ 복지

⑦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_\_\_\_\_)

1순위: \_\_\_\_\_,                      2순위: \_\_\_\_\_

20. 선생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업분야 외에 마을살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마을이슈(혹은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_\_\_\_\_

21.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서 참여가 시급한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성별·연령별 참여가 시급한 주체의 특징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구분	여성 (예시: 청소년, 싱글여성, 직장인 여성 등)	남성 (예시: 청년, 직장인 남성, 실직 남성 등)
① 20대 미만		
② 20~30대 미만		
③ 30~40대 미만		
④ 40~50대 미만		
⑤ 50~60대 미만		
⑥ 60대 이상		
⑦ 기타		

22.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네트워킹, 연대를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는 항목과 가장 어려운 항목이 각각 무엇인지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각1개)

구분	1) 가장 잘 하는 항목	2) 가장 어려운 항목
① 이웃마을, 이웃단체(혹은 모임)와의 연대		
② 지역자원의 모집과 배분		
③ 마을주민들과의 연대		
④ 시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과의 연대		
⑤ 활동가들간의 소통과 연대		
⑥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23.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동체’의 목표인 사회적 연대 형성을 위해서 다음 각 요소 통합의 시급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매우 시급	②시급한 편	③그저 그러함	④거의 시급하지 않음	⑤전혀 시급하지 않음
1) 성별 통합성					
2) 세대간 통합성					
3) 계층간 통합성					
4) 지역간 통합성					
5)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화

24.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서울시나 자치구 등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 \_\_\_\_\_ ② 시·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협력의 활성화(민-관 협력의 활성화)
- \_\_\_\_\_ ③ 중간지원인력(상담원,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성장지원
- \_\_\_\_\_ ④ 구조화되지 않고, 시민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마을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25. 선생님께서는 중간지원인력으로써 상담원, 컨설턴트, 인큐베이터, 강사 등에 대한 인력양성체계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만족도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①매우 만족	②만족한 편	③그저그렇다	④약간 불만족	⑤매우불만족
1) 각 사업분야별 전문성					
2) 활동수당의 지원					
3) 활동방법 및 보고체계					

25-1. (④,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



---

26.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크게 기여	②기여한 편	③그저 그러함	④거의 기여하지 못함	⑤전혀 기여하지 않음
1)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					
2)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					
3) 행정이 아닌 사람중심의 마을실현					
4)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					
5)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가 성인지 역량강화 및 지원 정책 수요

27.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인지’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육과정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 ①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_\_\_\_ ②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_\_\_\_ ③ 성인지 통계 관련교육      \_\_\_\_ ④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  
 \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8.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항목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매우 필요	②필요한 편	③그저 그렇다	④필요하지 않음	⑤전혀 불필요
1)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지침,세부규정 No)					
2)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구 분	①매우 필요	②필요 한편	③그저 그렇다	④필요 하지 않음	⑤전혀 불필요
4) 예산 및 회계정산의 간소화					
5) 다양한 마을지역 주민참여 활성화(성별,연령별, 대상특성별)					
6)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28-1.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 응답자 특성

1. 선생님께서는 다음 활동가 중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_\_\_\_① 상담원      \_\_\_\_② 인큐베이터      \_\_\_\_③ 컨설턴트  
\_\_\_\_④ 교육강사      \_\_\_\_⑤ 마을넷 운영위원      \_\_\_\_⑥ 마을사업 대표자  
\_\_\_\_⑦ 마을 활동가      \_\_\_\_⑧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2. 선생님의 성별은?      \_\_\_\_① 여성      \_\_\_\_② 남성

3. 선생님의 연령은?      \_\_\_\_세

4. 선생님의 결혼여부는?      \_\_\_\_① 결혼      \_\_\_\_② 미혼

5. 선생님의 자녀는?

\_\_\_\_① 1명 \_\_\_\_② 2명 \_\_\_\_③ 3명 \_\_\_\_④4명이상 \_\_\_\_⑤없음

5-1. 자녀연령 ① 첫째: \_\_\_\_세 ② 둘째: \_\_\_\_세 ③ 셋째: \_\_\_\_세

6. 선생님의 거주지는? \_\_\_\_구

7. 선생님의 주택형태는?

\_\_\_\_① 단독주택 \_\_\_\_② 다세대 혹은 연립 주택 \_\_\_\_③ 아파트  
\_\_\_\_④기타(구체적으로\_\_\_\_\_)

\* 소정의 답례품을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개인정보 활용여부에 동의여부를 표시  
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2) 성함: \_\_\_\_\_,

연락처: \_\_\_\_\_(핸드폰번호)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13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그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마을공동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의 참여 실태와 정책의 성별 수요 등을 조사하여 마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과제책임자: 조연숙 연구위원

연락처: 810-5021(이메일: choys33@seoulwomen.or.kr)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 동기와 목적

1.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_\_\_\_\_ ① 마을(지역)일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

\_\_\_\_\_ ② 동네 이웃, 친구, 아는 사람 등의 권유로

\_\_\_\_\_ ③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_\_\_\_\_ ④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필요해서

\_\_\_\_\_ ⑤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느껴서

\_\_\_\_\_⑥ 개인적인 성취나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_\_\_\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1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_\_\_\_\_① 내가 살고 있는 마을문제의 자율(주체)적 해결  
\_\_\_\_\_② 마을활동 참여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  
\_\_\_\_\_③ 공동체 성장을 통한 보람  
\_\_\_\_\_④ 개인의 활동역량 강화를 통한 보람있는 삶  
\_\_\_\_\_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 실태

3. 선생님은 마을공동체 (사업)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① 1년 미만    \_\_\_\_\_② 1~2년 미만    \_\_\_\_\_③ 2년~4년 미만  
\_\_\_\_\_④ 4~5년 미만    \_\_\_\_\_⑤ 5~10년 미만    \_\_\_\_\_⑥ 10년 이상

4. 선생님께서는 마을활동 참여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1일, 1주일 평균으로 각각 적어주십시오.

① 1일 평균: \_\_\_\_\_시간,                      ② 1주 평균: \_\_\_\_\_일

5. 선생님의 마을활동 참여 시간대는 다음 중 어느 곳에 해당하십니까? 최근 3개월간 평균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오전: \_\_\_부터 \_\_\_시까지                      ② 오후: \_\_\_시부터 \_\_\_시까지  
③ 저녁: \_\_\_시부터 \_\_\_시까지

6. 선생님께서 마을활동에 참여하시는데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 1가지만 √표해 주십시오.

- \_\_\_\_\_ ①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 \_\_\_\_\_ ② 배우자(남편)의 참여 제약
- \_\_\_\_\_ ③ 배우자(아내)의 참여 제약
- \_\_\_\_\_ ④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 \_\_\_\_\_ ⑤ 개인적인 시간부족
-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1.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 마을공동체 사업참여의 만족도

7. 선생님께서 다음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문화·예술                      \_\_\_\_\_ ②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_\_\_\_\_ ③ 아동돌봄 및 교육                \_\_\_\_\_ ④ 주거환경 개선(안전 등)
- \_\_\_\_\_ ⑤ 주민 커뮤니티 운영            \_\_\_\_\_ ⑥ 복지
- \_\_\_\_\_ ⑦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_\_\_\_\_)

8. 선생님께서는 다음 항목과 관련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①매우만족	②만족한 편	③그저 그러함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1) 상담 및 컨설턴트 지원					
2) 사업수행 절차와 과정					
3) 예산정산 및 평가					
4) 전반적 만족도					

8-1. (④, 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

9.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다음 각 항목에 '성평등'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크게 반영됨	②반영된 편	③그저 그러함	④반영되 지 않음	⑤전혀 반영되지 않음
1) 비전과 목표					
2) 사업분야(돌봄, 문화·예술, 교육, 복지, 마을경제 등) 운영방식					
3) 마을리더 인력양성					
4)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9-1. (④,⑤)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



10.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여성(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에 있어 여성(남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2가지를 선택하여 √해 주십시오)

- \_\_\_\_\_ ① 자녀양육 등 가사일 부담으로 시간의 제약
- \_\_\_\_\_ ② 공동체 및 마을사업 정보에 어두움
- \_\_\_\_\_ ③ 자원을 모으고 활용하는데 어려움
- \_\_\_\_\_ ④ 인간관계나 네트워크(시나 자치구 공무원과의 관계, 다른 단체나 모임과의 관계 등)의 어려움
- \_\_\_\_\_ ⑤ 여성과 남성간 문제해결방식의 차이의 어려움
- \_\_\_\_\_ ⑥ 각종 문서작성이나 공식적 회의참석
-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과 남성에 지원되어야 할 방안에 대한 의견

여성에게: \_\_\_\_\_

남성에게: \_\_\_\_\_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성인지 역량강화 및 지원 정책 수요

11.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성인지’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육과정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_\_\_\_\_ ②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 \_\_\_\_\_ ③ 성인지 통계 관련교육      \_\_\_\_\_ ④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
-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_\_\_\_\_ ⑥ 교육받은 적 없음

12.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항목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①매우 필요	②필요 한편	③그저 그렇다	④필요 하지 않음	⑤전혀 불필요
1) 사업추진의 자율성 보장(지침, 세부규정 No)					
2) 상담·교육·컨설팅 등 지원활동 개선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4) 예산 및 회계정산의 간소화					
5) 다양한 마을지역 주민참여 활성화(성별, 연령별, 대상특성별)					
6)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12-1)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13.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기여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①크게 기여	②기여한 편	③그저 그러함	④거의 기여하지 못함	⑤전혀 기여하지 않음
1)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					
2)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					
3) 행정이 아닌 사람중심의 마을실현					
4)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					
5)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응답자 특성

1. 선생님의 성별은? \_\_\_\_\_① 여성 \_\_\_\_\_② 남성

2. 선생님의 연령은? \_\_\_\_\_세

3. 선생님의 결혼여부는? \_\_\_\_\_① 결혼 \_\_\_\_\_② 미혼

4. 선생님의 자녀는?

\_\_\_\_\_①1명 \_\_\_\_\_②2명 \_\_\_\_\_③3명 \_\_\_\_\_④4명이상 \_\_\_\_\_⑤없음

4-1. 자녀연령 ① 첫째: \_\_\_\_\_세 ② 둘째: \_\_\_\_\_세 ③ 셋째: \_\_\_\_\_세

5. 선생님의 거주지는? \_\_\_\_\_구

6. 선생님의 주택형태는?

\_\_\_\_\_① 단독주택 \_\_\_\_\_② 다세대 혹은 연립 주택 \_\_\_\_\_③ 아파트

\_\_\_\_\_④기타(구체적으로\_\_\_\_\_)

## 서울시 마을(지역)주민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13년도 연구과제의 하나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주민의 의견과 생각을 통해서 파악하여 공동체 사업이 마을지역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응답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과제책임자: 조연숙 연구위원

연락처: 810-5021(이메일: choys33@seoulwomen.or.kr)

### □ 마을공동체 사업의 인지도

1.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	②만족한 편	③그저그렇다	④불만족인편	⑤매우 불만족

1-1.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_\_\_\_\_ ① 1년 미만    \_\_\_\_\_ ② 1~2년 미만    \_\_\_\_\_ ③ 2년~4년 미만  
\_\_\_\_\_ ④ 4~5년 미만    \_\_\_\_\_ ⑤ 5~10년 미만    \_\_\_\_\_ ⑥ 10년 이상

2. 선생님께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한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다
- \_\_\_\_\_ ②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업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 \_\_\_\_\_ ③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고 있으며, 실제 마을축제나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 \_\_\_\_\_ ④ 잘 알고 있지 못하다
- \_\_\_\_\_ ⑤ 전혀 모른다
- \_\_\_\_\_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알고계신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을 알게 되는 경로는 주로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 \_\_\_\_\_ ② 지역(동네) 방송, 케이블 TV, 지역신문을 통해서
- \_\_\_\_\_ ③ 거리의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 \_\_\_\_\_ ④ 시(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서
- \_\_\_\_\_ ⑤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통해서
- \_\_\_\_\_ ⑥ 이웃, 통·반장, 친구 등 입소문으로
-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선생님께서는 도시생활에서 ‘공동체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이나 ‘사회적 연대’ 형성이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전적으로 동의	②동의하는 편	③그저그렇다	④동의하지 않음	⑤전혀 동의하지 않음

□ 마을공동체 사업에의 참여의향

5. 선생님께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매우 참여하고 싶음	②참여하고 싶은 편	③그저그렇다	④참여하고 싶지 않음	⑤전혀 참여하고 싶은 의향 없음

5-1. 5번 문항에서 (①, ②에 응답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 중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 ① 문화·예술                       ②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③ 아동돌봄 및 교육                 ④ 주거환경 개선(안전 등)  
 ⑤ 주민 커뮤니티 운영             ⑥ 복지  
 ⑦ 기타 (구체적으로 작성 \_\_\_\_\_)

5-2. 5번 문항에서 (④, ⑤에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① 직장생활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② 이웃이나 지역주민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③ 마을공동체 사업분야는 내가 관심이 있거나 흥미있는 사업이 아니다  
 ④ 다른 동아리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  
 ⑤ 잘 알고 있지 못하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서울시 마을공동체 형성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

6. 선생님께서는 도시생활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매우시급	②시급한 편	③그저 그러할	④시급하지 않음	⑤전혀 시급하지 않음
1) 인간성 회복					
2) 사회적 연대 형성					
3) 성평등의 달성					

7. 선생님께서는 지역(마을) 공간에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요 참여 주체가 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한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서울시나 자치구, 주민센터 등 행정공무원 주도
- \_\_\_\_\_ ②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 \_\_\_\_\_ ③ 해당지역 거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이끌 수 있는 상담원, 조력자, 컨설턴트의 지원
- \_\_\_\_\_ ④ 해당지역 주변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민-관 협력
-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선생님께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활성화
- \_\_\_\_\_ ② 이웃,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벼룩시장이나 ‘아나바다’와 같은 행사를 통해)
- \_\_\_\_\_ ③ 이웃,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
- \_\_\_\_\_ ④ 마을이슈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획능력

- \_\_\_\_\_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_\_\_\_\_⑥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를 위한 양육 및 돌봄지원 체계 마련  
 \_\_\_\_\_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9.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마을주민의 특성 가운데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가 꼭 필요한 대상자 특성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또한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1) 1순위: \_\_\_\_\_,                      2) 2순위: \_\_\_\_\_

<b>【보기】</b>		
① 20대 미만의 청소년 계층	② 20대 청년 계층	③ 3, 40대 전업주부 계층
④ 3, 40대 싱글 직장여성	⑤ 3, 40대 직장인 남성	⑥ 3, 40대 실업남성
⑦ 5, 60대 전업주부 여성	⑧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10. 현재 서울시는 ‘도시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돌봄, 사회적경제, 주민참여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①크게 기여	②기여한 편	③그저 그러함	④거의 기여하지 못함	⑤전혀 기여하지 않음
1) 영유아 및 아동 등 함께 돌보는 서울					
2)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공유 실현					
3) 행정이 아닌 사람중심의 마을실현					
4) 차별과 경쟁이 없는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					
5) 개인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10-1. (④, ⑤에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1.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양성평등 관련 교육 참여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교육과정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      \_\_\_\_\_ ② 성인지 감수성 일반교육  
\_\_\_\_\_ ③ 성인지 통계 관련교육      \_\_\_\_\_ ④ 우리나라 성주류화 정책  
\_\_\_\_\_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_\_\_\_\_ ⑥ 교육받은 적 없음

□ 응답자 특성

1. 선생님의 성별은?      \_\_\_\_\_ ① 여성      \_\_\_\_\_ ② 남성
2. 선생님의 연령은?      \_\_\_\_\_ 세
3. 선생님의 결혼여부는?      \_\_\_\_\_ ① 결혼      \_\_\_\_\_ ② 미혼
4. 선생님의 자녀는?  
\_\_\_\_\_ ① 1명      \_\_\_\_\_ ② 2명      \_\_\_\_\_ ③ 3명      \_\_\_\_\_ ④ 4명이상      \_\_\_\_\_ ⑤ 없음
- 4-1. 자녀연령      ① 첫째: \_\_\_\_\_ 세      ② 둘째: \_\_\_\_\_ 세      ③ 셋째: \_\_\_\_\_ 세
5. 선생님은 현재 직장이 있으십니까? 다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_\_\_\_\_ ① 자영업      \_\_\_\_\_ ② 정규직(시간제)      \_\_\_\_\_ ③ 정규직(풀타임)  
\_\_\_\_\_ ④ 계약직      \_\_\_\_\_ ⑤ 일용/임시직      \_\_\_\_\_ ⑥ 일하지 않음  
\_\_\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6. 선생님의 거주지는? \_\_\_\_\_구

7. 선생님의 주택형태는?

\_\_\_\_\_① 단독주택    \_\_\_\_\_② 다세대 혹은 연립 주택    \_\_\_\_\_③ 아파트  
\_\_\_\_\_④기타(구체적으로\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정책연구-13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조연숙  
발행일 2013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14-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